

■ 2012년 전문자료집 ■

부 모 교 육

- 복지관 로고 -

일상생활에서 뇌성마비 아동을 옴기거나 안는 법



팀 명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재활치료1팀
일 시	2012년 3월 19일 ~ 4월 6일
담당자/문의	김영화 / (032)472-0340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일상생활에서 뇌성마비 아동을 옮기거나 안는 법

독립적인 움직임을 갖지 못하는 뇌성마비 아동은 많은 시간을 보호자에 의해 의존하여 움직이게 됩니다. 보호자가 아이를 다루는 과정은 아이의 운동양상에 영향을 주게 되고, 옮기는데 관련된 모든 동작들이 아이에게는 또 다른 학습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를 다룰 때는 아이에게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자세를 교정하고, 머리와 몸통의 조절과 균형을 촉진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 스스로가 자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균형감을 배우게 하고, 자세유지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주변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도움은 아이가 단계적인 움직임을 성취하면 점진적으로 줄여 나갑니다.

1) 중등도의 강직을 가지고 주로 신전을 보이는 아이



[그림1]아동을 잘못 안은 경우

보호자가 아이를 앞쪽으로 안아서 아이의 다리가 보호자의 허리를 감을 경우 아이의 고관절에 불안정성을 제공하는 자세입니다. 동시에 보호자는 한 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받치게 되어 골반과 몸통, 다리 등에 비대칭적인 자세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보호자는 아이의 겨드랑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등을 받쳐줌으로써 아이 스스로 등을 펴거나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림2-1]좋은 자세로 안은 경우(치료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세)

보호자는 아이의 엉덩이와 허리를 보호자의 고관절 위(즉면 허리위치)에 고정시켜 아이가 다리를 많이 벌리지 않고서도 관절을 구부릴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아이의 겨드랑이를 받쳐줌으로써 아이가 머리를 들고 팔을 위로 올리거나 앞으로 내밀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세를 통하여 아이는 보호자와 눈을 마주칠 수 있고, 아이는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2-2] 좋은 자세로 안은 경우

아이의 시선을 보호자와 동일한 방향으로 하여 안는 좋은 자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아이는 다리를 구부리고 밖으로 회전시키면서 벌릴 수 있게 됩니다. 다리를 밖으로 회전시키면서 적당히 구부리고 있어야 아이의 고관절에 안정성이 생기게 됩니다. 보호자는 팔로 아이의 어깨가 밑으로 쳐지는 것을 막아주게 되어 아이가 머리를 들고 허리를 펴는 동작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2) 주로 신전을 보이는 심한 강직을 동반한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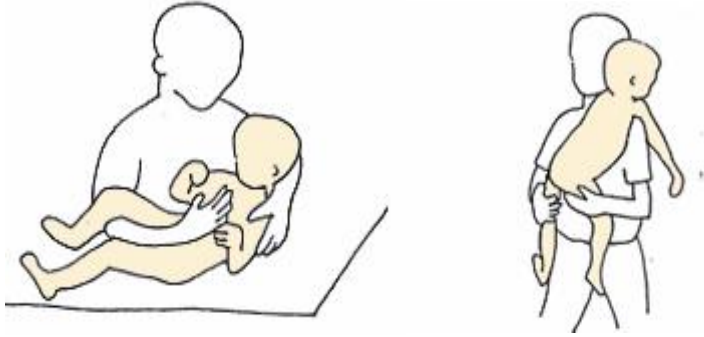


[그림3-1,2,3] 뇌성마비 아동을 잘못 들어 올린 경우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전이 심한 아이를 들어 올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는 다리를 구부리거나 벌리지 못하고, 머리는 뒤로 젖혀지며, 팔은 구부린 상태로 고정되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잘못 들어 올릴 경우 아이가 가진 비정상적인 패턴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3-2와 3-3은 아이를 잘못 옮길 때 나타나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아이의 머리가 과도하게 뒤로 젖혀지고 어깨는 심하게 움츠러들며 팔은 모아지게 되고, 다리의 신

전되는 힘이 증가되어 구부리기가 힘들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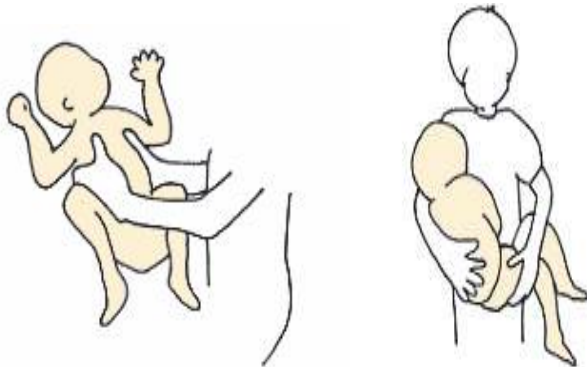


[그림4-1,2] 좋은 자세로 들어 올린 경우

그림 4-1은 그림 3에서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아이를 앉히는 과정입니다. 보호자는 아이를 옆으로 안으면서 아이의 머리와 어깨를 앞으로 구부리게 합니다. 아이의 다리 사이로 보호자의 다른 손을 넣어 다리를 벌리도록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팔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앉는 동작에 스스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림 4-2는 아이의 다리를 밖으로 회전시키고 벌려서 보호자의 체간에 고정시키고, 아이의 팔이 보호자의 몸 뒤로 넘어가게 합니다. 아이는 머리를 들고 등을 바로 세울 수 있으며, 팔을 자유롭게 하고 넓어진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3) 주로 굴곡 양상을 보이는 중등도 이상의 심한 강직을 보이는 아이



[그림5-1,2] 잘못된 안은 경우

주로 굴곡을 보이는 아이는 턱을 앞으로 내밀고 뒷목을 짧게 하면서 고개를 뒤로 젖힌 자세를 취합니다. 어깨는 뒤로 당기면서 팔을 구부리고 고관절과 다리를 구부리거나 부분적으로 신전 시킨 자세를 갖습니다. 그림 5-1은 아이의 겨드랑이만 지지하고 안을 경우 아이가 가진 비정상적인 패턴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5-2는 어떤 경우의 아이라도 항상 피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로 아이를 안을 경우 갇난 아이를 안듯이 안게 되어 아이의 정서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아이가 가진 비대칭적인 자세와 패턴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림6-1,2,3] 좋은 자세로 안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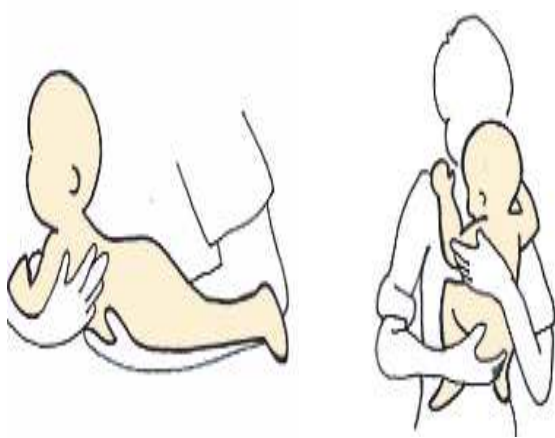
그림 6-1과 6-2는 아이를 옆으로 잡아서 안는 방법입니다. 이 자세에서는 아이가 등을 펼 수 있으며, 팔을 구부리거나 아래로 내려뜨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고관절과 다리를 신진 상태로 만들어 다리를 벌리면서 밖으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림 6-2는 아이가 몸통을 돌려서 앞드린 자세가 되도록 하는 그림입니다. 몸통과 골반의 분리운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림 6-3은 아이가 좀 더 고개를 들고 다리와 등을 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는 양팔로 주변 사물들을 잡을 수 있고 주변 환경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4)몸의 긴장도가 낮은 아이



[그림7] 잘못 안은 자세

그림 7은 근 긴장도가 낮은 아이를 안을 때 피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아이의 골반과 어깨가 고정되지 않고 팔과 다리는 구부러져 있고 등도 구부정한 자세가 됩니다. 보호자와 아이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자세에서는 아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유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림8-1,2] 좋은 자세로 안은 경우

그림 8-1은 몸의 긴장도가 떨어지고 머리를 가누지 못하는 아이에게 골반과 어깨를 고정시킴으로써, 스스로 머리와 몸통을 펴고 팔을 앞으로 내밀 수 있도록 하는 자세입니다. 아이는 부모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과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8-2는 아이가 작은 경우 옆드린 자세에서 머리를 들고 몸통을 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아이의 팔꿈치는 항상 어깨보다 앞에 오도록 하여 팔과 어깨 부위로 체중을 지지하도록 유도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뇌성마비 아동의 이동 보조도구 및 운동도구

1) 보조기와 운동도구의 목적 :

- 자세유지를 통해 비정상패턴 억제, 감소하기 위해
- 비정상 운동을 막기 위해
- 정상적 자세배열과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 구축을 막고 관절가동범위를 유지하기 위해
- 목표된 운동을 잘 학습하기 위해

	<p>세바퀴 자전거</p> <p>운동의 수단이지만 의료적 필수용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p> <p>교실에서 교실로, 또는 교실에서 치료로 움직이는 것과 같이 실외 및 복도에서 운동성을 제공합니다.</p> <p>다리로 페달을 돌릴 능력이 없는 아동을 위한 손으로 추진하여 움직이는 자전거가 있습니다.</p>
	<p>엎드림 스쿠터</p> <p>움직이는 동안 팔의 사용과 머리를 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p> <p>바닥 활동의 참여 및 접근, 독립적으로 타고 내리는 능력, 그리고 다른 수동 운동도구 보다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p> <p>단점으로는 목과 등의 긴장유지에서 오는 피로, 머리가 물건에 부딪힐 위험, 손이 캐스터에 걸리거나 거친 표면에 스칠 위험, 바닥보다 높은 환경을 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p>
	<p>보행기</p> <p style="text-align: center;">수동보행기</p> <p>경도에서 중간정도의 뇌성마비 아동이 선 자세로 당기거나 잡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이용합니다. 전방 지지 워커 또는 후방 지지 워커가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지지보행기</p> <p>다리를 상호 움직이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지만 골반, 가슴, 그리고 때로는 상체와 머리에 지지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p>
	<p>휠체어</p> <p>아동의 성장과 신체 및 기능적 요구, 보호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선택해야 합니다.</p>

	<p>유모차</p> <p>특수유모차는 영아유모차와 비슷하지만 자세 지지를 위한 착석 요소가 있습니다.</p>
	<p>단하지보조기(Ankle foot orthosis)</p> <p>발등이 아래로 내려가는 까치발이 지속되면 발목이 굳어버리게 되거나 변형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발목이 외반되어 접질림 현상이 잘 나타나며, 아취를 받쳐주어 신체의 정렬에 도움을 줍니다. 발목의 이완성 마비로 인한 족하수를 방지합니다.</p>
	<p>Swedish knee brace</p> <p>무릎의 과도한 신전을 방지합니다.</p>

장애아동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이해와 만다라 미술치료



팀 명	재활치료1팀
일 시	2012년 03월 19일 ~ 04월 06일
장 소	미술치료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아동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이해와 만다라 미술치료

1. 장애아동 어머니의 자기 효능감

세상 대부분의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지는 않는다. 장애아동의 출생은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며 자녀의 장애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어머니들은 거의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되며, 자신의 운명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장애아동 어머니들은 장애자녀를 항상 보호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과 개인적 욕구 충족 및 여가선용 등이 부족하게 되어 만성적인 우울, 불안 등에 시달릴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애아동 어머니들은 장애아동의 출생과 양육으로 많은 시간을 좌절하고 불안해하며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점은 장애아동 어머니들이 이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낮은 자기효능감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장애아동의 출생과 양육에 따른 부담은 전통적으로 아동의 양육을 일차적으로 맡고 있는 주 양육자, 즉 어머니에게 그 책임이 전적으로 부과되고 있기(Beckman, 1984) 때문에 장애아동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키는 문제는 장애아동의 긍정적인 교육과 발달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심리적 자원인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과 대처를 위한 인지적인 과정으로 작용한다(Bandura, 1993). 문제 상황에 직면할 때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문제 상황을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특징을 보인다(Johnson & Mash, 1989). 또한 인지된 자기효능감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서 개인이 추구하는 행위의 방향과 강도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고 양식과 정서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안지영, 2001). 그러므로 장애가 있는 자녀의 양육이라는 커다란 문제 상황에 직면한 장애아동 어머니에게 높은 자기효능감은 장애아동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도울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으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애아동과 만족할만한 정서적인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생활환경 속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원만히 해결하고 사회구성원으로써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한다.

2. 장애아동 어머니 활동 매개체로서의 미술치료

장애아동 어머니를 위한 심리적, 정서적 치료를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사용되는 매체 또한 다양하다. 그중 미술은 먼저 고려될 수 있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데 미술치료는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 부적응을 미술을 통해서 도와주는 방법으로 창작미술을 통하여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원만하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정여주, 2003).

많은 미술활동 매개체중의 하나인 만다라는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게 하고,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게 하여 내면의 긴장을 완화시킨다(정여주, 2001). 따라서 이번 부모교육에서는 많은 매개체중의 하나인 만다라를 소개하고 직접 실시해 봄으로서 심리적 이완과 변화를 체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며, 만다라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3. 만다라의 개요

1)만다라란?

만다라(Mandala)는 고대 언어인 산스크리트어에서 원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만다라란 용어는 범어 만다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용어는 ‘마하바라타’등의 인도 문헌에 의하면 서책의 장, 국토의 구획 등의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였으나 불교에서는 주로 밀교적 용어로 사용되었다(홍윤식, 1996). 만다라는 티베트 불교 미술을 대표하며, 밀교에서는 만다라를 만다(mada)와 라(la)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만다(manda)는 중심 또는 본질을 의미하는 접두어이며, 라는 소유 혹은 성취를 의미하는 접미사이다. 즉, 만다라의 정의는 중심과 본질을 얻는 것, 마음속에 참됨을 감추고 있거나 본질을 웬만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홍윤식, 1996: 김용환,1998) 또 투치(Tucci)는 만다라를 인도인의 종교적 의식 전환체험이 회화 형식으로 표현된 것으로 ‘의식 분해와 의식재통합의 상징 표상’이라고 정의한다.(김용환,1998)

융은 만다라를 심리학적 입장에서 ‘개성화 과정의 그림’이라고 정의한다. 자기실현 과정에서 비롯되는 정체성의 혼란을 심리적 극복하려는 동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개성화 과정의 그림’이며, 이것이 즉 만다라라고 하며, 이것은 심리의 통합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을 가장 잘 나타내고 가장 적절하게 상징하는 것이 만다라임을 의미한다. 또한 만다라를 통한 정신의 통합이 곧 치료라고 단정지었다(전영옥,2001). 동양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융은 만다라를 한 종교의 제례의식에 국한시키지 않고, 인간 집단 무의식에서 원형적 상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술치료를 전목시켰다.

만다라는 우주의 본질 또는 생명의 진수가 가득한 원형의 바퀴를 뜻한다고 했으며(석도열,2000), 인간정신 속에 잇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만다라는 심리적인 치유와 종교적 구원 사이를 오가는 중심적이고, 우주적인 상징이라고 하였다(김진숙, 1997)

현대에 있어서 만다라가 가지는 의미는 종교적 목적이거나 명상과 영성체험을 위한 것이든, 자기 성장이나 정신적 신체적 이완과 치료를 위한 것이든, 교육적 차원에서 이용되는 것이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통합된 삶을 지향하려는 현대인들의 고향과 같은 존재로 만다라를 그리면 조화와 균형이 잡힌 만다라의 구조 때문에 만다라가 주는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정여주, 2001).

2)만다라의 3가지 영역

① 만다라는 개인적 삶의 영역, 즉 소우주 영역을 나타낸다.

만다라를 바라보며 깊이 묵상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중심에 와 있으며, 동시에 자신은 삼라만상의 존재와 서로 연결되어 성스러운 우주에 속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개인적 삶의 영역으로 만다라를 심층 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대표적 심리학자는 융이다. 융에 의하면 만다라는 원형적 통일체를 상징한다. 원형적 통일체가 의미하는 것은 현대인들의 꿈이나 무의식적으로 그린 그림을 통하여 원형적 상징 언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② 만다라는 우주의 영역을 나타낸다. 소우주 영역뿐만 아니라 ‘무한 공간과 시간을 포함하는 영원성의 상징’인데 대우주영역을 나타낸다.

대우주 영역으로서의 조화의 신비 속에서 항상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마음의 고향을 찾고자 한다. 만다라 수행을 하는 사람은 만다라에서 우주의 질서와 본질을 깨닫게 되며, 자신의 생명과 우주와의 관계를 터득 할 수 있다.

③ 만다라는 신적인 영역을 나타낸다.

만다라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신성이며 초월적 현실을 추상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다라는 내적인 관조와 명상을 투영하고 내면의 경험을 체험하도록 지도한다.

4. 만다라치료의 개요

1)만다라 미술치료란?

만다라 미술치료는 삶의 중심을 찾고 고요를 체험하게 하여 자신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둥근 원상의 공간에 다양한 작업을 통하여 기쁨과 재미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내적 갈등을 치유하고 예방하며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만다라에 표현되는 원 현상은 무궁무진하다. 이 때문에 만다라에 형상화된 어떤 원형에 대해서도 임의의 해석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관계되어 있는 특정 개인의 전 생활 상태에서 보이는 형식에 의해서 설명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떠한 이유로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있는 개인에게 의미를 갖는지를 철저히 발견하고자 시도할 때 비로소 생명을 갖는다. 그러므로 만다라에 나타난 상징성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일은 개성화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다라를 통한 미술치료의 목적은 자기실현이다. 자기란 의식과 무의식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다. 자기는 언제나 나를 넘어 선다. 무의식은 무궁무진하고 깊어서 아무리 무의식을 의식화시킨다고 하여도 우리는 무의식을 다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융은 ‘자기실현이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닌,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융은 심리치료와 자기실현을 위한 방편의 하나로 미술치료에 만다라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만다라를 그리는 작업은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게 하고, 만다라를 그리는 동안 우리의 내면이 표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내면의 긴장이 완화된다(정여주, 2001).

만다라는 개인의 정신을 집중하게 함으로써 내면의 질서를 생성시키고 자기에게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도구이며, 만다라는 총체적인 인격을 지향하는 인간 정신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를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과 같으며, 만다라는 매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그리게 되는 것이다(김진숙, 1998). 능동적 상상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만다라를 그리는 현상은 인간에게 내적 기쁨, 내적 질서, 생명의 의미를 되찾아 주게 된다(김성민, 1998).

만다라를 미술치료에 적용하는 중요한 목적은 만다라를 통하여 분열된 자신을 통합하고 삶의 본질, 자신의 중심에 이르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미부영, 1998). 또한 만다라 미술치료는 사람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조정할 뿐만 아니라 만다라를 그리는 사람에게 에너지와 힘을 줄 수 있고(강유정, 2009),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겪고 있는 심리적 불안 상태를 통합하여 주고, 경험하는 다양한 불안들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외적인 스트레스에 대해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신적 힘을 기르게 한다(박숙희, 2007). 만다라는 인간의 내적 존재를 밝혀주고 균형을 이루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현대인 누구에게나 어떤 연령에도 필요한 것이다.

2)만다라를 미술치료에 접목하는 특징

- ① 가운데 원이 있으므로 빈 공간일 때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림을 시작할 수 있고, 원은 어디에서나 균형 잡혀 있기 때문에 통일과 균형감, 원만함을 준다.
- ②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가 다소 모호한 경우에 방법이 간접적이므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어 누구에게나 쉽게 사용될 수 있다.
- ③ 구체적인 유형의 자료가 남기 때문에 자신의 그림을 객관화 시켜 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표현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④ 보관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시기에 작품을 재검토하여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때때로 새로운 통찰이 일어나 개인적인 성장과정의 제거나 역동성이 미술의 상징을 통해서 나타난다.

5. 만다라 미술치료의 두 가지 방법

만다라는 일반적으로 문양이 있는 만다라를 선택해 색칠하는 방법과 스스로 만다라를 만들고 완성해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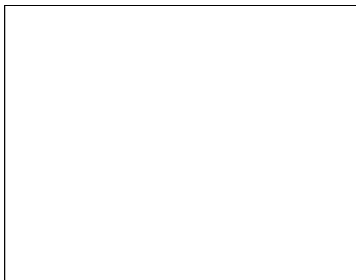
1) 문양 만다라 활동 법



- ① 명상음악이나 조용한 음악을 듣다, 혹은 그냥 조용한 것을 원하신다면 생략해도 된다.
- ② 좋아하는 문양이나 원하는 문양을 선택한다.
- ③ 잠시 눈을 감고 몇 차례 심호흡을 하며 어떻게 칠할 것인지 생각해 본다.
- ④ 자유롭게 색칠한다. 선과 색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칠하시면 됩니다. 선을 무시하고 칠하셔도 되며, 그날의 이끌림에 활동을 맡긴다.
- ⑤ 날짜를 적고 제목을 정해 붙여본다.
- ⑥ 스스로 선택한 문양에 대해 생각해 보며, 자신이 왜 이 문양을 선택했고, 제목을 명명해 놓았으며, 자신의 활동물을 보며 드는 느낌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본다.

※ 만다라의 도안은 인터넷이나 만다라 문양집을 통해 찾을 수 있으며 선택할 수 있다.

2) 자유 만다라 활동 법



- ① 명상음악이나 조용한 음악을 듣다, 혹은 그냥 조용한 것을 원하신다면 생략해도 된다.
- ② 그날의 자신의 상태나 지금 현재의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본다.
- ③ 잠시 눈을 감고 몇 차례 심호흡을 하며 어떻게 표현 할 것인지 생각해 본다.
- ④ 자유롭게 표현한 후 색칠한다. 표현에 제약은 없으며, 색이나 선으로만 표현해도 되며, 그날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려 표현해도 된다.
- ⑤ 날짜를 적고 제목을 정해 붙여본다.
- ⑥ 스스로 표현한 활동물에 대해 생각해 보며, 자신이 왜 이런 표현을 하게 되었고, 제목을 명명하였으며, 표현한 활동물을 보며 어떤 감정이 들고, 느낌은 어떤지 생각

해 본다.

※ 자유만다라의 도안은 스스로 종이에 원을 그려 넣어 그 안에 표현을 해도 되며, 동그란 모양의 어떤 매체든 제약을 두지 않는다. (ex : 둥근 도자기그릇, 둥근 캔버스 등등)

앞에서 설명했듯이 만다라는 어떤 표현적 제약을 두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과 그 날의 상태에 따른 표현을 할 수 있다. 활동물을 완성한 후 자신의 감정을 그날 활동물에 적어 놓고 날자와 제목을 쓰며,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무의식에 대해 통찰해 볼 수 있고 스스로의 상태나 감정에 대해 이해하여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작업이다. 매일 일기를 쓰듯 작업을 하며 일주일 혹은 한달의 자신의 작품을 돌아보며 자신의 감정주기를 체크해 볼 수 있다.

만다라 미술치료는 아동을 양육하고 돌보는 것처럼 모 스스로도 자신의 감정과 내면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서 장애아동의 양육과 일상생활에서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다양한 사회적 과제와 상황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애착증진을 위한 치료놀이 기법의 활용



팀명	재활치료 1팀
일시	2012.7.5 ~ 2012.7.18
장소	놀이치료실



남동강애인종합복지관

<애착 증진을 위한 치료놀이 기법의 활용>

1. 치료놀이의 기초

치료놀이란 관계에 중점을 둔 치료로써 지시적인 심리치료의 방법이며 접촉을 중심으로 신체적 자아와 심리적 자아를 형성해 나가도록 도움을 주는 치료기법이다. 이 관계놀이를 통해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불안과 어려움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게 되며 아동들이 겪은 외상적 경험에 관한 쌓여있는 욕구를 해결해줄 수 있다. 또한 신체적인 접근보다 정서적 접근에 초점을 두어 정서적인 조절감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법이다.

2. 치료놀이의 네 가지 차원

건강한 부모와 아기를 관찰하면서 구조, 개입, 도전, 양육 네 가지 원리를 발견하였고 이러한 원리들은 애착을 증진시키는 놀이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

1) 구조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서 환경과 질서의 흐름을 알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안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기법이다.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면서 내면적 외면적인 무질서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주의집중이 어렵고 혼란감을 가진 아동들에게 적합한 기법이다.

2) 개입

영아를 혼자두지 않고 장난을 치고 함께 놀아주고 어머니의 감축과 재미있는 표정으로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기법이다. 서로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서서히 자기의 몸과 어머니의 몸을 구별하게 되고 상호작용의 즐거움을 알아가게 된다. 이는 위축되어있고 신뢰감이 적어 불안이 높은 아이들에게 적합한 기법이다.

3) 도전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기법으로 수차례 넘어짐을 반복한 후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고 도전하여 성공하였을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기법이다. 어머니에게 너무 의존적인 아동, 쉽게 좌절하는 아동들에게 적합하다.

4) 양육

자신이 가장 사랑스럽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영아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기법이다. 자신이 사랑스럽고 인정받는 존재라는 느낌을 주는 것으로 건강한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토대로 경험의 부재로 인해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가진 아동들에게 민감한 양육을 적용하여 욕구충족과 긴장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긴장하고 경직된 아이들에게 적합하다.

3. 장애아동의 치료놀이 원리

예상했던 방식대로 자녀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모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였는데도 기대만큼 발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울감을 줄 수 있다.

특히 친해지려는 노력에 저항하거나 회피하는 아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더욱 더 상실감이 크게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치료놀이의 아래의 원리를 통해 자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발달을 더욱 촉진할 수 있게 된다.

1) 감각 감정 그리고 행동을 상호조절하고 조율하는 기본패턴 만들기

초기의 정서적 유대와 기본조율패턴을 만들도록 하여 의미 있는 관계로 아동에게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작용을 한다.

2)의도에 관한 비언어적, 언어적 단서를 읽고 반응하기

아동의 단서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반응하여 아동이 치료사의 단서를 알아차리고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은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3)느낌과 생각으로 의사소통하기

치료놀이는 말에 의존하지 않으나 상호작용의 주고받음과 소통하는 것에 집중한다. 따라서 언어발달에는 직접관여하지 않아도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4)최적의 감각으로 개입하기

치료놀이는 안정과 즐거움의 감각을 둘 다 경험할 수 있는 기법으로 두 가지의 감각을 조절할 수 있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5)양육자에게 보상이 되도록 아동과 일체감 가지고 리듬감있게 조율하기

일상에서의 치료놀이는 부모 자녀관계의 개선을 가져온다.

4.치료놀이가 애착관계에 미치는 영향

과거에는 발달장애 자녀와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는 설이 있었으나 낮은 상황실험을 통해 아이들이 애착을 형성하며 거의 절반정도는 안정애착을 형성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모성적인 통찰력은 아동의 안정애착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여기서 통찰력이란 ‘행동의 이면에 숨어있는 동기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예상치 못한 아동의 행동과 나타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면에서 아동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통찰력과 건강한 부모 자녀 간 관계는 아동의 숨겨진 잠재력을 불러일으키며 상호작용과 발달 이 두 가지를 모두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아동들과의 온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재형성하여 애착대상과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5.애착발달에 영향을 주는 치료놀이 활동

치료놀이에 대한 영향과 효과는 알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어떤 방법이 유용한지 모르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다. 아래의 방법은 연령별로 어떤 치료놀이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

1)구조

■영유아

●콩 주머니 게임

콩주머니, 또는 부드러운 장난감을 머리위에 올려놓고 아동의 손아래에 자신의 손을 놓는다. 신호를 주고 고개를 숙여 아동의 손으로 콩 주머니가 떨어지도록 한다. 이를 번갈아가며 한다. 잘 못 잡는 아동은 손을 같이 잡아주며 활동한다.

●썰썰썰 놀이

아동의 손을 잡고 이끌며 “빵집아저씨/가장 빠르게 케이크를 구워주세요/(아동의 이름)과 함께 굴리고 모양을 내 주세요/그리고 (아동이름)을 위해 오븐에 넣어주세요~ 라고 노래를 불러준다.

●색깔점토 짜기 또는 찍기

색깔점토를 아동과 자신의 손에 넣고 “짜세요~”라고 말하고 째 눌러준다. 이는 조절이 어려운 아동이 조직화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된다.

●비눗방울 터뜨리기

비눗방울을 손가락, 발가락, 팔꿈치, 어깨 등의 신체부위로 터뜨리게 한다. 또한 빠르게 터뜨리게 하기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재미있는 방법으로 방 건너기

매트의 끝과 끝에 서서 깡충 뛰기, 까치 발 들기, 기어가기, 뒤로 걷기 등의 특별한 방법으로 다가와서 포옹이나 환영해주는 놀이이다.

■학령기이후

●‘엄마 해도 되요?’놀이

엄마의 지시에 따라 아동이 수행하는 것으로 수행 전 물어보고 해야 한다. ‘엄마 해도 되요?’ 라는 말을 잊어버리면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집중이 어려운 아동에게 적합하다.

●00가 말하길 놀이

00가 말하길 이라는 말이 나오면 수행하는 놀이로 “00가 말하길 손을 머리위에 올려”라고 할 때 손을 머리위에 올리고 말이 없으면 수행하지 않는 놀이이다.

2)개입

■영유아

●소리 나는 얼굴

아동 얼굴을 누르며 ‘삐’라고 말하고 턱을 누르면서 ‘뽕’하고 말한다. 아동이 상대방의 코와 턱을 누르면 적절하게 삐 소리와 뽕 소리를 낸다. 아동이 소리를 내도록 바꿔서 진행할 수도 있다.

●안녕, 잘 가

아동과 마주보고 무릎에 앉는다. 부모는 손으로 아동의 등을 받치고 “안녕”이라고 하며 “잘 가”라고 하여 뒤로 내려가게 한다. 그리고 다시 세우며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한다. 번갈아가며 놀이를 한다.

●**똑똑 누구세요**

아동의 몸을 가볍게 두드리며 “똑똑”(이마 두드리기), “누구세요”(아동의 눈 보기). “자물쇠를 열어요”(아동의 코를 두드리며), “들어가요”(손가락으로 입안에 걸어 들어가는 척하며 음식 넣어주기)라고 한다.

●**불 풍선 터뜨리기**

불에 공기를 넣어 아동의 손이나 발로 터뜨리게 한다.

●**팝콘 발가락**

아동의 신발을 벗기면서 아동 신발 안에 팝콘, 땅콩, 포도가 있는지 묻고 신발을 벗겨 벗진 발가락을 발견한다.

●**스티커 붙이기**

색깔 스티커를 아동에게 붙이고 치료사나 부모에게 자신과 같은 위치에 스티커를 붙이는데 상대방이 똑같이 꾸며질 때까지 붙인다. 나중에 떼어내기 전에 아동과 부모가 함께 같은 위치 스티커를 맞댄다.

●**끈적이는 코**

숨 공에 로션을 발라 코에 붙이고 붙어서 떼도록 한다.

●**아기돼지이야기**

발가락을 움직이며 말한다. “아기돼지가 시장에 갔어요/아기 돼지는 집에 있어요/이 아기 돼지는 구운 소고기를 먹었어요/이 아기돼지는 아무도 없어요/이 아기돼지는 집에 가는 내내 “꿀꿀꿀”울었어요”각 아동에게 맞도록 세부적 변화를 준다.

■**모든 연령**

●**소리 나는 몸**

얼굴이나 몸의 특정한 부위를 누르며 소리 낸다. 예를 들어 무릎을 누르며 코끼리 소리를 낸다. 여러 가지 다른 접촉을 하며 어느 부위에서 어떤 소리를 냈는지 기억하게 한다.

●**불어 넘어뜨리기**

아동과 마주보고 앉아 손을 잡고(어린 아동은 무릎에 앉혀놓고)상대방이 ‘불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이 불면 치료사는 뒤로 넘어진다. 내면이 약한 아동에게 좋은 놀이이다.

●**체크 업 놀이**

코, 턱, 볼, 손가락, 발가락, 무릎 같은 신체부위를 보며 따뜻한지 혹은 차가운지 단단한지 부드러운지 꿈틀거리는지 가만히 있는지 살펴본다. 주근깨의 개수, 점의 개수, 손가락 마디마디를 확인한다.

●**호일조각**

아동의 신체를 호일로 감싼 다음 어떤 부위인지 맞추는 놀이를 한다.

●밀고 당기기놀이

손바닥을 서로 맞대거나 상대방의 어깨에 발을 대게 한다. 신호를 주면 아동이 치료사를 밀도록 하여 과장되게 뒤로 넘어진다.

●특별한 악수 만들기

변갈아가며 새로운 동작을 더해 특별한 악수 만든다. 이 악수들은 회기에 걸쳐 누적될 수 있고 회기의 시작과 끝을 알려줄 수도 있다. 아동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놀이이다.

3)양육

■영유아

●숨 공으로 달래주기

아동을 방석 위에 앉히거나 팔로 안아 편하게 하고 얼굴, 팔, 손 등을 숨 공으로 부드럽게 만져준다. 자신이 만지고 있는 윤곽을 따라 아이의 모습에 대해 묘사해준다.

■모든 연령

●숨 공 또는 깃털 맞히기

아동의 손을 숨 공과 깃털로 건드린 후 감촉을 느껴보게 한다. 아동에게 두 가지 감촉의 차이에 대해 묻는다. 아이의 눈을 가리고 어느 부위를 건드렸는지 아동이 맞추어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아동 꾸며주기

점토, 색 테이프, 호일 등으로 목걸이, 반지, 팔찌를 만들어준다.

●로션 또는 파우더 도장 찍기

아동의 몸에 로션을 바르고 종이, 바닥, 거울 등에 찍어본다. 로션을 찍고 그 위에 파우더가루를 뿌려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다.

●로션 파우더 바르기

로션과 파우더를 발라주면서 “오 로션, 로션 00의 발에 바른 로션이 느낌이 좋아요~ 좋아요~ 오 로션 좋은 느낌이에요~” 라고 노래를 만들어 불러주며 감각 욕구에 주의를 기울여 강한 압력을 주거나 예민한 아동들은 로션보다 파우더를 사용하여 놀이를 한다.

●물감 그림그리기

여러 가지 색을 섞어 패턴을 만들고 핑거페인트 물감을 아이의 손이나 발에 문지른다. 종이위에 올려 자국을 찍고 아이의 발을 부드럽게 닦아주고 파우더를 발라준다.

●쿠키반죽하기

아이의 몸을 쿠키반죽이라고 하여 여러 가지 조미료를 넣고 주무른다.

●미끌 미끌 쪽

아동의 팔 다리에 로션을 바르고 미끄러지는 흥내를 낸다. 과장되게 뒤로 넘어지

는 행동으로 아동이 이완되게 만든다.

●부드럽고 뽀뽀하게

아동을 바닥에 눕히고 양 팔과 다리를 흔들며 힘을 빼 편하게 있도록 한다. 아동이 긴장을 풀도록 뽀뽀한 나무가 부드러운 면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며 문질러준다.

●파우더 발자국

파우더를 뿌리고 그것을 밟도록 한다.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묻었다면 어두운 색의 매트를 걷게 하여 발자국을 남기도록 한다.

●터치 전달하기

앞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여 번갈아가면서 상호작용하는 놀이이다.

4)도전

■영유아

●기어가기 경주

베개를 쌓아놓고 집단과 아동이 무릎으로 기어 그 곳을 최대한 빨리 돌아오도록 하는 놀이이다. 서로의 발을 잡으려고 시도하고 방향을 바꾸어 다시 해보기도 한다.

■모든 연령

●방석 위 균형 잡기

방석 하나로 시작하여 개수를 늘려 계속해서 균형을 잡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의 허리 위를 잡아주고 균형을 잡으면 손을 떼어 스스로 균형 잡고 서있는 것에 대한 감정을 느끼도록 한다.

●풍선 테니스

손을 사용하지 않고 풍선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는지 목표를 세워 게임을 한다.

●비누 방울 테니스

비누 방울이 터질 때까지 주고받으며 입으로 분다.

●격파하기

종이테이프를 들고 아동의 앞에 서서 격파하여 반으로 자르게 한다. 신문지를 이용할 수도 있다.

●길이재기

아동을 벽에 세워놓고 키를 표시한다. 까치발로 서있게 하고 뛰어올라 최대한 높이 손을 뻗어 길이를 재고 표시한다. 뛰어오른 길이를 표시하여 높이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한다.

●신문지편치, 골인

신문지를 격파하고 그것을 뽀뽀 뭉쳐서 공을 만든다. 세 번의 기회를 주어 휴지통에 골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골인하면 지지표현을 해준다.

●숨 공을 들어올리기

발가락으로 숨 공을 들어 올려 바구니에 담는 놀이이다. 주의집중을 기를 수 있고 개수를 늘리면서 더욱 흥미롭게 놀이할 수 있다. 발가락에 공을 끼고 돌아다니기 놀이를 할 수도 있다.

●**균형 잡기 활동**

바닥에 누워 두 다리를 들고 방석을 그 위에 얹어 균형을 잡도록 한다. 30초 후 방석을 하나씩 올리고 유지할 수 있게 한다.

●**풍선 균형 잡기**

풍선을 치료사와 아동의 사이에 두고 떨어뜨리지 않고 방을 돌아서 와야 한다. 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한다.

●**손수레**

아동이 바닥에 손을 대고 있으면 아동의 뒤에 서서 발목이나 무릎의 위를 잡아주고 손으로 걷는 놀이이다. 힘든 활동이므로 지치게 되면 그만 두어야 한다.

●**줄다리기**

줄을 잡고 당기기 놀이를 하여 승부를 가르다.

***참고문헌**

치료놀이(2011). Phyllis B Booth, Ann M Jernberg저. 윤미원, 김윤경 외 1명 역.
학지사

치료놀이의 이해와 적용(2009). 신현정 저. 학지사

노래부르기를 통한 장애아동의 언어중재



팀 명	재활치료1팀
일 시	2012년 10월 29일 ~ 11월 02일
장 소	음악치료실



<노래 부르기를 통한 장애아동의 언어중재>

인간은 출생 전 양수 환경에서부터 엄마의 목소리 선율과 심장 박동의 리듬에 영향을 받으며 출생 이후 성장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청각 자극을 경험한다. 청각 자극 중 하나인 음악은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들은 음악을 통해 말하기, 추상적 사고, 자기표현뿐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촉진시키고, 성공적인 음악적 경험을 통해 성취감과 자아 실현을 획득하며, 긍정적인 자아상의 확립과 사회성을 배워나갈 수 있다. 또한 음악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접근은 아동의 언어 발달을 위한 촉진제로 사용되어 발성과 호흡, 음운 발달, 억양, 언어의 의미론, 구문론, 화용론의 발달을 돕는다.

언어영역 발달을 위한 음악적 중재

언어 영역에서 음악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으로 아동들의 언어적 기능에 맞추어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작가는 발화에 필요한 호흡 강화에 목표를 둔 활동이 있는가 하면 크게는 주어진 주제에 대한 가사 만들기와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하기가 있을 수 있다. 노래 활동은 아동의 자발적인 언어 산출을 자극, 촉진, 강화시키며 유아의 언어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된다. 음악은 멜로디, 리듬, 템포, 음정, 세기, 가사 등을 이용하여 아동의 표현적 언어와 수용적 언어를 발달시켜 주며, 음악활동을 통해 소리의 영역을 확장하고 목소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음악치료는 활동을 통해 계속적으로 언어적 지시를 제공하고 이에 반응하도록 유도한다. 즉, 음악은 매우 융통적인 도구로 치료사에 의해 적절하게 구성될 때 아동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치료적 매개가 될 수 있다.

① 발성과 호흡력 향상을 위한 음악적 중재

아동의 호흡 조절 능력은 음색이나 목소리의 공명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적절한 언어 능력을 위해서는 기본 호흡의 유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을 위한 음악 활동은 리듬 연주에 맞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연습하기, 취주 악기를 길게 불며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취주 악기를 장/단, 강/약을 조절하면서 불기, 노래를 부름으로써 악보에 명시된 곳에서만 호흡을 하는 활동 등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호흡 훈련은 발화와 발성에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신체와 발성 기관을 편안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이완을 제공하기도 한다. 호흡 조절력은 신체적 이완과 생리적 상태에 리듬적인 규칙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적절한 발화 및 발성 활동에 필요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음악이 시간적인 틀에 근거한 활동인 것을 고려할 때 음악을 이용한 호흡 훈련은 호흡의 양과 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악기 연주를 통해 혀와 입술을 움직이는 것을 훈련시키고 명확한 조음에 필요한 구강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이는 언어적 문제가 있는 아동들

에게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② 음운 발달을 위한 음악적 중재

음악치료 활동에서는 음운 처리 과정에 필요한 기술들을 단어의 언어적 리듬과 억양에 맞추어 향상시키며, 발음의 정확성을 가져오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리듬을 이용한 테크닉을 활용한 음악활동은 아동들의 음운 훈련에 있어서 체계적인 리듬과 멜로디 작업은 언어에 필요한 음역, 강도 그리고 속도를 향상시켜 준다. 단어에 리듬과 멜로디를 적용한 다양한 노래 활동은 아동들이 음운 처리를 자연스럽게 함과 동시에 명확한 발음을 유도하는 음악적 접근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두 음절과 세 음절로 된 단어들의 경우는 각 음절에 음고와 리듬을 제공하여 언어 산출이 훨씬 부드러워지게 해 준다. 노래에서 제공된 리듬적인 구조화에 근거한 단어 산출은 언어적 표현을 더 촉진시켜 주는데, 모음과 자음의 배열이나 자음과 자음의 배열에서 단어의 언어 리듬에 근거한 조음의 정확성을 향상시켜 준다.

③ 언어리듬과 억양강화를 위한 음악적 중재

음운론 발달을 중심으로 구성된 음악 활동은 언어 리듬과 구강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데에 활용되기도 한다. 음악적 요소 중에서 언어와 관련된 것은 리듬과 멜로디인 것을 고려했을 때 많은 연구들이 음악과 언어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실질적으로 음악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언어 기술에서도 억양 강화에 목표를 둔 음악치료 활동은 언어 리듬과 음률을 다룬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언어는 리듬의 연속이며, 말할 때의 자연스러운 억양을 음악의 리듬과 멜로디에 적용하여 음악치료의 요소로 사용한다. 또 음절과 음표를 연결하여 말할 때의 리듬과 노래의 리듬을 유사하게 하여 자연스러운 노래 부르기를 통해서 아동의 언어를 촉진한다.

④ 의미론의 발달을 위한 음악적 중재

음악 활동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노래를 배우면서 가사를 통해 어휘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행동은 단어 습득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노래에서 제시된 단어의 의미들을 이해하고 내용과의 관계도 이해하게 된다. 음악치료 세션에서는 계속적으로 습득된 단어들을 탐색하게 해 주고 새로운 단어들을 소개한다.

노래의 주제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의 어휘들을 활용하는데, 방향, 위치, 크기, 시간 등의 상대적 개념은 물론, 악기 소리를 중심으로 구별할 수 있는 의성어와 의태어들을 다룬 노래들을 활용할 수 있다.

⑤ 구문론의 발달을 위한 음악적 중재

구문론은 말의 언어학적 구조와 관련 있는 영역으로 형태소 및 낱말의 나열과 그

들이 통합하여 구, 절, 문장 등을 이루는 방법을 의미한다. 언어의 구문론적 측면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노래를 많이 사용하는데 기존의 곡들보다는 치료사가 아동의 필요를 위해서 특별히 개사하거나 작곡을 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격조사(주격, 목적격, 처소격, 형격 등), 어말 어미(존칭), 선어말 어미(시제, 부정 등)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가사에 적용시켜 노래를 통해 구조를 습득하고 1절 이상의 절들을 제시하여 적절한 단어만을 바꾸는 연습을 함으로써 문장 만들기를 하도록 유도한다.

⑥ 화용론의 발달을 위한 음악적 중재

의미론의 발달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발달은 화용론이다. 화용론은 특정 상황에 대해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사용하는 말의 기능을 의미한다. 화용론적인 기술을 보여주는 언어적 행동은 특별히 규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야기 전체의 의미를 분석하거나, 문장의 논리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행동, 또는 간접적인 표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상대방의 비언어적, 특히 얼굴 표정이나 강세, 억양 등이 전달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기술 등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음악 안에서 가사가 전개하는 의미와 부분적인 언어적 참여를 통해 훈련될 수 있다.

노래 부르기를 통한 언어 중재 관련 사례

① 노래 부르기를 통한 정인지체 아동의 조음개선 효과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7-9세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긴장 이완, 발성, 리듬스피치, 노래 부르기의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 아동들의 조음 개선 효과는 다음과 같다.

자음 정확도는 사전 검사에서 64.47이었으나 사후 검사에서 93.06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노래 부르기 전후 단어 위치에서의 오류는 사후 검사에서 단어 위치의 오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노래 부르기 활동이 자음 정확도와 단어 위치에서 오류의 감소에 매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② 노래 부르기를 통한 자폐성 아동의 언어 훈련 효과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7세 아동에게 노래 부르기를 활용한 언어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노래 부르기를 통한 언어 훈련은 자폐성 아동의 언어영역 중 요구하기, 동사 표현하기, 의성어 표현하기에 효과적임이 실험을 통해 나타났다.

유·아동 발달과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



팀 명	재활치료 2팀
일 시	2012년 7월 11일 ~ 24일
담 당	이 슬
장 소	서면교육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 부모교육 >>

• 각 연령별 인지 발달

1. 0~1 발달 특성

- 인지발달은 지각 운동 기능 발달과 밀접히 관련됨
- 시각 발달
 - 4개월 : 명도가 높은 색, 대비가 뚜렷한 형태를 선호함
- 청각 발달
 - 생후 3~4일: 소리에 반응함
 - 3개월경 : 말소리 리듬에 따라 반응함
- 8~12개월 : 숨기는 것을 본 경우에는 그 물체를 찾아낼 수 있음
- 1세 전후 : 손으로 사물을 탐색하는 것에 호기심을 보임. 사람이나 사물의 특정 행동 반응을 얻고 싶을 때에는 의도적으로 건드리기도 함

※ 상호 작용 방법

- ① 사물을 탐색할 수 있는 놀이를 제공하고 함께 놀이해준다.
 - 여러 가지 물체를 두드리고 소리내기(북, 방울 등), 물체 집어넣고 꺼내기, 숨기고 찾기 등
- ② 인지 발달은 감각 발달과 관련되므로 아기가 사물을 쥐고 흔들고 빨고 소리 내는 등의 감각적인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③ 인지 발달은 아기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탐색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놀이할 기회를 준다.
- ④ 8~9개월부터는 영아용 블록을 이용해 놀이하도록 준비하고 도와준다.

2. 1~2세 발달 특성

- 주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임
- 12~18개월경
 - 사물을 결합시키고 연관시키려고 시도(예: 영아용 끼우기 블록 사용하기, 큰 상자 안에 작은 것 넣기 등)
 - 보는 사람 앞에서 숨긴 물건 찾기
 - 다른 사람의 동작 모방하기
 - 사물을 다른 것의 대치물로 사용하기 시작(예: 자기의 손수건을 인형의 손수건처럼 사용)
- 18~24개월 : 무엇이든 모방하려 함
 - 이전에 들었던 소리나 행위 재생하기
 - 복합적인 음성 모방하기

- 상징놀이를 즐기기 시작 (예: 큰 블록을 인형 침대로 사용하기)
- 간단한 블록 구성하기
- ○, △, □ 모양 등의 간단한 모양 퍼즐이나 2-3 조각 그림 퍼즐 맞추기

※ 상호 작용 방법

- ① 여러 가지 직접 만지고 탐색할 수 있는 놀이를 준비해준다.
- ② 흙, 모래, 물 등의 자연물로 놀이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놀이는 창조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③ 모방놀이, 초보적인 소꿉놀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함께 놀이해준다.
(예: 인형놀이, 상차리기 놀이, 인형 목욕시키기, 인형 유모차 태우기, 바구니에 장난감 넣고 꺼내기 등)
- ④ 간단한 모양의 퍼즐을 함께 맞추며 모양을 관찰하도록 한다.
- ⑤ 여러 가지 모양의 짝을 맞추거나 분리하는 종류의 놀잇감으로 놀이할 기회를 준다.
- ⑥ 깨끗이 놀이하는 것보다는 몰두해서 탐색하며 놀이하는 시기이므로 지나치게 청결을 강조하지 않도록 한다.

3. 2~3세 발달 특성

- 유아는 매우 호기심이 많고 탐구력이 강한 문제 해결자로서, 사물이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왜 그런 행동이 일어나는지를 발견하려고 시도하므로 끊임없이 주변 세계에 대해 관찰하고, 질문하고, 조작하고, 분류하고, 측정함.
- 언어와 상징을 사용하여 사고하고 기억하기 시작하며,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함.
- 같은 것을 되풀이해서 놀이하기를 즐김
- 위험의 개념을 이해하고 일반적인 위험 상황으로부터 몸을 멀리 함
- 사물을 분해하였다가 다시 조립할 수 있음
- 사물의 색, 모양, 크기, 용도 등에 따라 단순하게 분류할 수 있음
- 양, 수에 대해 제한된 이해를 보이기 시작하고 '1'의 개념이 생김
- 위, 아래, 안의 개념이 생김
- 짧은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물건에 대해 기억하고 말할 수 있음
- 신체 각 부분의 이름과 위치를 앎
- 조금 복잡한 퍼즐도 맞출 수 있음(약 5-15조각)
- 색연필이나 크레용으로 굵적거리고 수평선을 그림
- 블록으로 수직적 탑이나 수평적 열 짓기, 둘러싸인 형태 짓기가 가능함

※ 상호 작용 방법

- ① 듣고, 보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는 등의 감각을 이용하여 직접 관찰, 조

- 작하는 놀이 경험을 제공해주고 놀이 상대가 되어 준다.
- ② 제한된 용도로 사용되는 것(예: 무선 조종 자동차), 색깔 공책보다는 유아가 스스로 구성 할 수 있는 놀잇감(예: 블록, 손으로 미는 자동차)을 준비해주고 창의적으로 놀이하도록 돕는다.
 - 대소근육 블록은 양을 충분히 준비해준다.
 - 필요한 소품(사람, 동물 모형, 자동차, 찻길 등)을 제공한다.
 - 놀이 상대가 되어 함께 놀이한다.
 - ③ 자신의 신체, 주변 사물 등을 살펴보고 이름을 알아보는 기회를 갖는다.
 - ④ 그리기 도구(크레용, 색 물감 등)로 마음대로 굵적거리도록 격려한다.
 - ⑤ 물, 모래, 나뭇잎 등과 같은 자연물을 탐색하고 이러한 물체를 이용하여 놀이 할 기회를 준다.

4. 3~4세 발달 특성

-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시기임
-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지만 실제적인 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음
- 양의 차이와 위, 아래, 뒤, 밑 등의 공간 관계를 이해하며 지금, -하기 전에, -다음에 등 의 시간 관계도 부분적으로 이해함
- 많고 적은 차이가 큰 수량의 경우를 이해하기 시작함
- 상징적 기능이 발달하여 사람, 장소, 사건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과 사고가 가능함
- 사물을 초보적으로 분류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생겨 형태, 색, 모양, 소리에 따라 구분하고 단순한 서열이 가능함
- 구체적 사물이나 행동이 제시되지 않을 때에도 상상하거나 추측하여 행동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짐
- 실제와 꿈이나 환상을 확실히 구분하지는 못하여 연극, 인형극 등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이나 상황을 실제라고 믿음

※ 상호 작용 방법

- ① 유아들이 자연적인 호기심을 발휘하여,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배우며 원인과 결과 관계를 실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시간을 제공해준다.
- ② 정해진 답을 말하도록 요구하는 학습 상황보다는 유아가 직접 사물을 이용하여 탐구해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놀이 상황을 마련해 준다.
- ③ 구체적인 사물을 이용하여 색, 모양, 크기, 소리 등을 비교, 분류할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해주고, 유아가 발견한 것을 언어로 표현하도록 도와준다.
- ④ 다양한 극 놀잇감을 준비해 주고, 관련된 책을 읽어주거나 정보를 주어 극놀이가 정교해 질수 있도록 돕는다.

- ⑤ 상상의 세계를 극놀이나 미술, 춤, 구성 활동 등을 통해 창조적으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5. 4~7세 발달 특성

- 점차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기억력이 증가함
- 4세경에는 초보적인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간단한 사건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음
- 10 이내의 수에 대한 기본 개념이 형성되며 일상생활에서 수를 활용함
- 동물과 식물에 관심을 갖고 이름, 생김새, 움직임 등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형성함
-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상황에 호기심을 갖고 일과 사물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하기 시작함
- 시계나 청소기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기계의 조작에 관심을 가짐
- 사물의 모양, 색, 크기, 용도 등에 따라 분류, 범주화하는 능력이 발달하나 복잡한 분류는 잘 하지 못함
- 시간의 흐름, 사건의 순서 등과 관련된 시간 개념이 발달하지만 아직 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읽지는 못함
- ○, △, □ 등의 도형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릴 수 있으며, 위 아래, 안 밖과 같이 위치와 관련된 공간 개념도 발달함

※ 상호 작용 방법

- ① 가정의 일상생활 속에서 생기는 문제에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도록 격려한다.
 - 놀잇감을 찾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 이 과자를 동생과 똑같이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② 놀이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다른 사람과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③ 학습지와 같은 형태보다는 유아가 직접 조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놀이하면서 호기심과 사고력이 발달하도록 돕는다.
- ④ 숫자를 암기식으로 읽고 쓰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한다.
- ⑤ 동식물을 기르거나 관찰해보는 경험을 가지도록 한다.
- ⑥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질문이 많은 시기이므로 귀찮아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성의 있게 솔직히 대답해준다.
- ⑦ 사물의 특성이나 현상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학적인 자세에 대한 모델을 보여 유아가 어려서부터 탐구하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 ⑧ 정해진 답을 찾아 답하는 형태의 폐쇄적인 놀잇감(학습지, 색칠 공부, 배터리

를 이용한 무선 조종 놀잇감 등)보다는 유아의 생각을 시도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개방적인 놀잇감 (블록, 목공 놀이, 콜라주 재료, 모래놀이 등)을 제공해주고 유아가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 하도록 격려한다.

- ⑨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일이나 사물에 호기심을 갖도록 격려하고 유아 수준에 맞는 여러 가지 도서를 준비해주고 함께 읽는 시간을 갖는다.

• 인지 발달을 위한 지도 방안

1. 일반적인 지침

- ① 타고난 능력을 잘 파악해야 한다.
개개인의 인지적 특성을 파악하여 무리한 요구를 피하고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어린이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다.
어린이의 상징적 활동을 자극하고 격려하며, 자기중심적 사고, 개념 발달의 특성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상 생활 속에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지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③ 어린이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한다.
어린이의 질문이 비록 시시하거나 엉뚱할지라도 성실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대답해 줌으로써 지적 호기심을 계속 가지도록 격려한다.
- ④ 충분히 놀이할 수 있도록 환경적 자극을 제공한다.
나이에 맞는 놀이를 제공해 줌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고 수준 높은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2. 창의성 개발

- ① 창의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개방적, 허용적 분위기가 바람직하다.
- ② 어린이들이 계속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인 태도를 갖고 행동하도록 정서적 자극을 제공한다.
어린이가 실수를 하더라도 질책하지 말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 ③ 적극적으로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린이가 스스로 질서와 조화를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
일상생활 용품들이 상식적인 범위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혹은 엉뚱하게 활용되도록 격려한다.
- ④ 주변의 사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도록 한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남의 말에 진지한 태도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창의성을 개발하려면 어린이와 성인 모두의 인내심이 필요하다.

단기간을 통해 이를 수 없으며 창의적인 지능, 창의적인 태도, 창의적인 성격으로 변화해야 한다. 창의성이란 인내심과 지구력 등의 성격 요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인지적 놀이 지도

어린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 놀이하면서 스스로 인지적 학습을 한다. 여러 가지 놀잇감과 흙, 나무 토막, 돌멩이, 나뭇잎 등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고 노는 동안 각 물체의 무게, 질감, 색깔, 크기 등 물리적 지식을 학습하게 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논리적, 수리적 지식도 습득하게 된다. 어린이들의 놀이는 놀잇감의 종류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인지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조작놀이, 쌓기놀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조작놀이

어린이가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사용해서 놀잇감을 맞추고, 분리하고, 재배열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물을 다루는 놀이를 조작놀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3~5세 어린이에게 적합한 조작놀이는 다음과 같다.

- ① 3세 어린이에게는 손잡이가 있거나 배경판에 조각 그림의 윤곽이 그려져 있는 퍼즐이 적합하다. 또한 눈과 손의 협응 및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동시에 옷 입기에 기본이 되는 단추 끼우기, 지퍼 올리기 등 손으로 조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 ② 4세 어린이에게는 단순한 조각 그림 맞추기뿐 아니라 도형 퍼즐, 숫자 퍼즐 등 특정 개념 학습을 학습시킬 수 있는 퍼즐을 제공한다. 그밖에 숫자와 개수 맞추기 등 다양한 짝 맞추기와 색깔이나 모양, 크기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는 놀잇감을 준비한다.
- ③ 5세가 되면 조금 어려운 수준의 조작 놀이도 가능해지는데, 숫자나 형태에 따라 바느질하기나 패턴에 따라 구슬에 끈 끼우기, 다양한 주사위 게임 도구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2) 쌓기놀이

수학적 학습의 기초가 되는 형태, 크기, 길이, 높이, 넓이, 부피의 개념을 습득하게 된다.

블록 조각을 가지고 노는 가운데 부분과 전체의 관계, 분수 개념, 수의 많고 적음을 이해하게 된다.

- ① 2세경부터 쌓기 놀이가 가능하다. 가볍고 부드러운 커다란 스펀지 블록이나 손으로 집기에 용이하고 표면 처리가 잘된 나무 블록을 준비해 준다. 이 시기에는 양손으로 블록을 마주 눌러 끼우거나 단순하게 돌려 넣는 조작이 가능하므로 7~10cm 크기의 플라스틱 끼우기 블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 ② 3세 어린이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삼각형 등과 같이 기본 형태의 블록이나 중

이 벽돌 블록을 제공해 준다. 레고와 같은 작은 끼우기 블록도 서서히 소개해 줄 수 있다.

- ③ 4세 어린이는 널빤지, 원기둥과 같은 종류의 다양한 블록을 제공한다. 동물이나 사람 모형, 각종 자동차를 준비해 주면 쌓기놀이가 더욱 다양해진다.
- ④ 5세가 되면,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 등 인지적인 발달을 위해서 실패나 도르래, 다양한 크기의 상자를 함께 준비해 준다.

※ 참고 자료

유아의 놀이 활동의 도구가 교육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제작한 교구와 놀이자료 등을 모두 놀잇감으로 총칭할 때, 연령별로 어떤 놀잇감을 주어서는 안 되는가, 어떤 것을 주면 좋은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	주어서는 안 되는 것	주면 좋은 것
입에 손을 넣는 연령 (1-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켜 버릴 만한 작은 장난감 -태우기 쉬운 것 -맞췄다 뺏다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 있는 장난감 -유독한 도료가 칠해 있는 것 -유리나 단추가 끼워져 있는 동물 장난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튼튼한 딸랑이 -고무제로 빨수 있는 소리가 나는 장난감 -솜 등이 채워져 있는 인형이나 동물(봉제 인형) -크고 밝은 색의 매달린 장난감 -각이 둥글게 된 쌓기나무 -끈이나 핸들이 붙은 장난감 -장난감 상자
탐색하고 싶어하는 연령 (2-3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쉽게 끊어지거나 긁힐 수 있는 것 -날카롭고 거친 것 -맞췄다 뺏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유독한 도료나 장식이 있는 것 -튀기기 구슬, 비즈, 코인 -타기 쉬운 장난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리나 삼이 놓여 있는 모래터 -커다란 팩보드 (구멍이 뚫린 나무 조각을 끼워 넣는 것) -목재의 동물 장난감 -장난감 자동차, 짐마차 -넘어지지 않는 어린이용 자동차나 삼륜차 -낮은 흔들 목마 -작은 의자나 테이블
흥내놀이를 하는 연령 (3-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의 힘으로는 너무 무거운 장난감 -깨지거나 뽀뽀이 흩어지는 것과 같은 마감재료가 좋지 않은 장난감 -날카롭거나 끊어지는 장난감 -전기 장난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은 빗자루, 용단 청소기 -장난감 전화기 -간단한 옷을 입은 인형 -접시, 소형의 정원 도구, 트랙터 등의 장난감 -전기가 통하지 않은 장난감 기차 -쌓기나무

<p>창작을 시작하는 연령 (4-5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눈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적을 쓰는 장난감 ·-넘어지기 쉬운 기동성 있는 장난감 (삼륜차, 짐마차 등) ·-유독한 도료가 칠해져 있는 것 ·-쉽게 완성되거나 끊기는 장난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칠판과 먼지가 나지 않는 분필이나 초크 ·-그림물감과 스케치북 ·-간단한 조립세트 ·-인형의 집과 가구 ·-작은 스포츠 용구 ·-빨래대야와 세탁판 ·-끝이 둥글게 된 가위 ·-종이 인형세트, 옷 ·-점토세공
<p>잔재주가 나는 연령 (6-8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증을 마치지 않은 전기 장난감 ·-어린이의 힘이나 능력에 비해서 너무 크거나 복잡한 것 ·-날카로운 날이 있는 장난감 ·-종지 않은 스케이트화 ·-전도성이 있는 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공 놀이 도구 ·-소형 썰매, 롤러 스케이트 ·-검증을 마친 전동장난감, 연 ·-놀이용 가게세트, 은행, 주유소의 놀이기구 ·-퍼즐과 게임류 ·-인형과 인형 용구
<p>취미나 기능이 특수화되는 연령 (8세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총, 투궁(投弓), 활과 화살 ·-화학세트 ·-위험한 도구나 전동 장난감 이상은 부모의 감독하에서 아니면 안 된다 ·-검증을 마치지 않은 전동 장난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미 재료, 미술과 공예품 ·-사진, 코인이나 우표수집 ·-꼭두각시 인형 ·-악기 ·-모형이나 조립세트 ·-체육과 스포츠기구 ·-자전거 ·-과학세트

“우리 아이도 할 수 있어요!”
지적·발달장애인 스포츠 종목



팀 명	재활치료2팀
일 시	2012년 07월 16일 - 07월 20일까지
작성자	특수체육교사 최보람
담당자	최보람



부모교육

1. 지적·발달 장애인의 스포츠

지난날 장애인의 스포츠의 참여는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더욱이나 지적장애인들의 스포츠는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으며,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 험합니다.

하지만 2009년 제2회 INAS(국제지적장애인스포츠연맹)종합대회, 2010년 남아공 지적장애인축구선수권대회, 2011년 제3회 INAS 대회 참가 및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12년 만의 결실을 맺은 2012년 런던 장애인올림픽에 참가 하는 등 국가브랜드 증대와 장애인스포츠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적·발달 장애인의 대표적인 스포츠 대회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동·하계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동·하계 한국스페셜 올림픽, 국제 스페셜 올림픽 등이 있습니다.

우리 힘찬교실, 튼튼교실 아이들도 체육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꿈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는 데에 큰 보탬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음의 부모교육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이 출전할 수 있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중심으로 지적·발달 장애인 스포츠종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장애학생들에게 체육은 건강증진 그 이상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꿈을 키우고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장애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의 필요성을 알리고, 스포츠를 통해 사회성 함양과 신체적 장애가 일상의 장애가 아님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해왔습니다.

장애학생체육대회 출신의 탁구, 수영 지적장애인선수들이 오는 8월 개막되는 런던 장애인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에서 맹훈련 중입니다. 힘찬교실, 튼튼교실에서 함께 운동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번 대회가 장애인올림픽이라는 큰 꿈을 키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 농구

지적·발달 장애 남학생의 종목으로 중학생부, 고등학생부로 나누어 경기를 진행하여 기본 경기방식과 참가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가요강 및 경기방식

장애유형	등급	성별	세부종목	구분		
				초등	중	고등
지적발달장애	open	남	단체전	-	○	○

참가자격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지적발달장애인
참가인원 및 신청	○ 경기임원 : 2인 이내 (감독1인, 코치1인) ○ 선수 : 12인 이내 ※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별도 신청
경기방법	○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하되, 전·후반(12분씩)으로 구분하여 경기를 진행하고, 무승부일 경우에는 연장전(3분)을 실시한다. ○ 장애등급에 따른 구분은 따로 하지 않으며, 대회운영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농구 경기를 주관하는 대한장애인농구협회 또는 파견된 경기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2) 배구

지적·발달 장애 배구경기는 남·여 혼성으로 진행되고, 중고등학생 통합경기입니다. 다음은 2012년 장애학생체전 배구경기 사진과 참가요강 및 경기방식입니다.

■ 참가요강 및 경기방식

장애유형	등급	성별	세부종목	구분		
				초등	중	고등
지적발달장애	open	혼성	6인제 입식배구	-	통합	

3) 배드민턴

초,중,고등학교 통합으로 경기 진행되며 단식과 복식 종목이 있습니다.

■ 참가요강 및 경기방식

장애유형	등급	성별	세부종목	구분		
				초등	중	고등
지적발달장애	IDD	남 / 여	단식, 복식	통합		



4) 볼링

초,중,고 통합으로 경기 진행되며 남녀 경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참가요강 및 경기방식

장애유형	등급	성별	세부종목	구분		
				초등	중	고등
지적발달장애부	TPB 4	남 / 여	개인전, 2인조	초, 중, 고 통합		

참가자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등급분류를 필한 학생.
참가요강(안)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6개 이벤트 경기한다. ○ 초, 중, 고 모두 통합 경기한다. 단, 초등학생의 경우 핸디 적용(유무 검토) ○ 총 3게임 합산 경기 하여 순위를 정한다. ○ 3개 시도 미 출전 이벤트는 취소 및 통합 경기한다. ○ 등급분류는 각 시도에 위촉한 등급분류 위원에게 받고 필요시 본회 등급분류위원회에게 받는다. ○ 대한장애인볼링협회 경기 및 유니폼 규정에 따른다. ○ 볼검사는 대회 전에 일괄 검사한다.

5)역도

우리나라는 장애인올림픽을 3회 제패한 선수를 포함한 여러 선수가 세계기록을 보유한 역도강국이라고 합니다.

전국장애학생체전 역도종목 선수는 대회당일 연령이 15세가 되어야 자격이 있습니다. 경기방식은 스쿼트, 데드리프트 형태의 경기방식으로 실시합니다.

꾸준히 튼튼교실과 힘찬교실을 통해 운동해온 우리 친구들이 도전해 볼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참가요강 및 경기방식

장애유형	성별	체급		중량
		남자	여자	남자
지적발달장애 (OPEN)	남/여	-30kg		30.00kg 까지
		-40kg		40.00kg 까지
		-50kg		50.00kg 까지
		-50kg		50.00kg 이상
		-60kg		60.00kg 까지
		-70kg		70.00kg 까지
		+70kg		70.00kg 이상



6) 육상

장애학생체전 중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육상”의 소개입니다. 전국적으로 특수학교, 특수학급, 복지관, 운동발달센터를 통해 많은 지적·발달장애학생들은 육상경기 출진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있으며 우리 남동장애인복지관 튼튼교실, 힘찬교실 아이들도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상경기는 다음 표의 트랙 종목 이외에도 창던지기, 포환던지기, 멀리뛰기, 높이뛰기 종목들이 있습니다.

■ 참가요강 및 경기방식

장애유형	등급	성별		세부종목	구분		
					초등	중	고등
지적발달장애	T20	남	여	100m	○	○	○
		남	여	200m	○	○	○
		남	여	400m	-	○	○
		남	여	800m	-	○	○
		남	여	1500m	-	○	○



7) 실내조정

실내조정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인천시 지적·발달장애 학생 선수단이 매우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조정은 심폐지구력향상과 상·하지 근력향상에도 매우 탁월하여 지적·발달 장애학생 부모님들에게 매우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시 장애인체육회와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는 실내조정 교실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요강 및 경기방식

장애유형	등급	성별		세부종목	구분		
					초등	중	고등
지적발달장애	open	남	여	500m타임레이스	○	○	-
		남	-	단체전(남2) 500m타임레이스	통합		-
		혼성		단체전(남1, 여1) 500m타임레이스	통합		-
		남	여	1,000m타임레이스	-	-	○
		남	-	단체전(남2) 1,000m타임레이스	-	-	○
		혼성		단체전(남1, 여1) 1,000m타임레이스	-	-	○



8) 축구

보통 학교나 기관에서 팀을 이루어 경기에 출전하고 있고 인천시에는 “마름단”이라는 지적장애인 축구단(성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지적발달장애 축구는 혼성경기로 여학생과 함께 경기를 진행합니다.

■ 지적장애

학생부	전후반 각25분, 휴식시간 15분
-----	--------------------

■ 참가요강 및 경기방식

장애유형	등급	성별	세부종목	구분		
				초등	중	고등
지적발달장애	open	혼성	11인제	통합		

9) 탁구

장애등급 관계없이 선수등록은 TT11로 통합되어 논란이 많은 종목입니다. 올해 인천시 혼성 단체전은 준우승을 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장애학생 종목입니다.

■ 참가요강 및 경기방식

장애유형	등급	성별	세부종목	구분			
				초등	중	고등	
지적발달장애	TT11	남	여	단식	통합		○
		남	여	복식	통합		○
		혼성		단체전	통합		○



10) e-스포츠

e스포츠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기타 영상 장비 등을 이용하여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입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슬러거, 스타크래프트, 카트라이더 출전 종목이 있고 게임을 즐기는 많이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정보화 능력 신장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실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슬러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방식 : 개인전 ○ 경기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 6이닝 진행 - 홈/어웨이 결정 : 팀 대표간 동전던지기 - 승패결정 : 6이닝 후 득점에 따라(1차 무승부 시 연장전 1회씩 진행 후 득점 차 발생시 승패 판정) - 캐릭터 : 대회 전용 캐릭터 지급(예선, 본선) - 전체 이용가 버전활용
스타크래프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방식 : 개인전 ○ 경기규칙- 승리조건 : 3라운드 2선승 - 경기시작 전 출전순서, 개인별 주종족 제출 - 아이디 : 개인 및 시도 공통아이디 택일 - 경기맵 : 단장의 농선, 파이썬, 투혼
카트라이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방식 : 단체전 ○ 경기규칙- 승리조건 : 5라운드 3선승(예선), 7전 4선승제 (8강~결승) - 첫 라운드 시작 전 양팀 선수 1명 씩 교차 입장 (출발 유불리 제거) - 경기 채널 : L3- 카트 바다 : 기본카트(변형카트 인정-오리지널, 블랙라민, 블레이드) - 캐릭터 : 기본 캐릭터 10종 중 택 1 - 경기트랙 : 랜덤



11)수영

전국장애학생대회 출신 선수들이 런던장애인올림픽까지 출전할 정도로 대한민국 지적장애인 수영의 위상이 높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참가요강입니다.

■ 참가요강 및 경기방식

장애유형	등급	성별	세부종목	구분			
				초등	중	고등	
지적발달장애	S14	남	여	자유형 50m	○	○	○
		남	여	자유형 100m	-	○	○
		남	여	배영 50m	○	○	○
		남	여	배영 100m	○	○	○
		남	여	평영 50m	○	○	○
		남	여	평영 100m	○	○	○
		남	여	접영 50m	○	○	○
		남	여	접영 100m	○	○	○
		남	여	계영(4×50m)	○	○	○
		남	여	혼계영(4×50m)	○	○	○



3. 세계장애인수영대회 2연패 “김진호 선수”이야기

김진호 母 "물 꺼리던 아들 붙잡고 종일 물속서 울기도 했죠"
 '인간승리' 김진호 키운 집념의 모정 유현경씨
 '자폐'진단에 한때 자살도 생각...자상함 만큼 엄격하게 교육
 "사회와 소통하는 아들 보고싶어"



세계장애인수영선수권대회 ‘인간승리’ 김진호(19·부산체고 2년)군. 그의 뒤에는 또 다른 ‘인간승리’인 어머니 유현경(45)씨가 있다. 14일 오전 부산 영도구 청학2동 S 아파트에서 유씨를 만났다. 175cm, 75kg의 건장한 청년은 어머니 곁에서 한자공부를 하고 있었다.

“하루 하루가 죽음과도 같았어요.” 유씨가 진호의 사진첩을 꺼내 들고는 툭 내뱉은 말이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진호의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 내기까지는 짧지않은 뜬이 흘렀다.

“아이의 첫 울음 소리를 잇을 수가 없어요. 진호는 저희에게 너무나 큰 사랑과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1986년 2월 28일 낮. 3.1kg의 아이가 우렁찬 첫 울음을 토했다. 튼튼하고 씩씩했다. 남편 김기복(47)씨와 유씨는 4년 열애 끝에 결혼했다. 행복은 절정에 달했다. 자식이 귀한 집안에 2대 독자가 태어난 것이다.

6개월여가 흘렀을까. 여느 아이처럼 웅알이를 하거나 눈을 맞췄어야 했다. 하지만 걱정은 없었다. “조금 늦는 거겠지, 아이는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으니까.”

세 돌을 맞은 1989년 2월. ‘엄마’란 말조차 하지 못했다. “자폐(발달장애)적 성향이 강하다. 이대로 두면 아이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8개월의 예약대기 끝에 서울까지 올라와 찾았던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의사의 진단이었다.

“자폐가 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진단을 받았을 당시의 절망감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후 하루 하루는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돌아앉아 울기를 수 천번, 수만 번. 그대로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자식만은 결코 버릴 수 없었어요.”

3년 간의 특수기관 치료도 효과가 없었다. 부모 욕심에 무작정 넣은 일반 초등학교에서는 1달여 만에 쫓겨났다. 유씨는 ‘선생님’을 자처하며 관련서적 등을 뒤적이며 특수프로그램을 짰다. 사진을 보여주며 당시 기억을 스스로 적게 하는 사진메모 학습, 종이에 그림을 직접 그리거나 잘라 비닐로 감싸는 공작 훈련, 남들이 쓰다 버린 학습지를 주워 연습장에 오려 붙여 빈칸을 채우는 놀이 등 스스로 개발한 수업을 한시도 거르지 않았다.

당근만이 능사가 아니었다. 학습 과정에서 아이가 실수를 하면 밥그릇을 빼앗고, 편식을 하면 이틀을 꼬박 굶기기도 했다. 언어능력 향상과 식사예절 등을 통한 사회적응 훈련이었다. 효과가 조금씩 생겨나면서 아이의 투정도 늘어갔다. “아이와 약속을 해요.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줘요. 놀이공원 앞까지 갔다가도 약속을 어기면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유도한 뒤 그냥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어요.”

5살 때 처음 수영장에 데려갔다. “자폐아 특성상 처음 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물 근처에는 가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이를 껴안고 온 종일 물 안에서 함께 울었죠. 언제부터인지 아이가 물 속을 편안하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씩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수원 북중 수영 특기생을 거쳐 2003년 11월 부산체고에 입학하면서 배내식(40) 전담코치의 체력 및 반복훈련 지도를 받으면서 ‘선수의

길'에 접어들었다.

진호는 20일부터 다음달 울산 체전준비를 위해 훈련에 들어간다. “체코대회 때 외국 코치들이 진호에게 ‘Best Swimmer’라고 할 정도로 재능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수영이 전부는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 후 실업팀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와 소통하며 적응하는 ‘사회화’가 가장 큰 바람이에요. 아직도 종종 진호는 시한폭탄이나 럭비공과 같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유씨는 지난해 4월 ‘자폐아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를 출간했으며, 현재 ‘진호야, 사랑해’라는 두번째 책의 탈고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장애유형 및 아동의 언어수준에 따른 가정지도 방법



팀 명	재활치료2팀
일 시	2012년 7월 16일 ~ 7월 27일
담 당	권윤해, 김가인
장 소	서면교육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언어치료 가정지도 방법

1. 가정에서의 구문지도

1) 모델링(시범보여 주기)

모델링은 구어 시범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때 구어자극은 아동의 구어수준이나 조음수준을 고려하여 주는 것이 좋다.

예) 아동이 2어문 이상을 모방하지 못 할 경우 모델링은 2어문이나 3어문 수준이 적당하다. 너무 긴 문장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의 모방의도를 상실하게 해서는 안된다.

예문(1)

아동: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면서) “빵-빵”

엄마: (차를 밀어주면서) “차 민다(차 간다. 차가 빵-빵, 정수 간다, 빨리 가자).” ○
“차가 빵-빵 빨리 가게 엄마가 밀어 줄게.” ×

또한, 조음에서도 될 수 있으면 아동이 조음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 좋다.

2) 액센트나 억양사용하기

아동에게 너무 긴 음절수의 단어를 모방하게 할 때에는 적당한 길이의 음절에서 중간을 액센트나 억양을 주어 아동이 다시 시작하는 느낌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예문(2)

안녕히계세요. ×

안녕히 계세요. ○

3) 확대하기

확대는 문장을 완성하거나 표현을 정확하게 하기위해 아동이 빠뜨린 동사, 조사, 전치사 등의 몇몇 단어를 더 첨가시켜 줌으로서 아동이 말한 것을 증강시키는 것이다.

예문(3)

아동: “우유”

엄마: “우유 마세요.”

아동: “누나 밖에”

엄마: “누나 밖에 있어.”

4) 확장하기

확장은 단지 문법적인 삽입만을 두지 않고 의미론적 정보를 제공한다.

예문(4)

아동: “아기 울어”
엄마: “그래. 아기 배고파서 울어. 엄마가 우유 줄게”
아동: “피 나”
엄마: “피 나네. 아프지. 약 발라야겠다”

이때, 모방을 유도하는 데에는 목적을 두지 않는다. 아동이 한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장을 표현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5) 교정하기

아동의 잘못된 조사사용, 시제사용, 동사사용을 바르게 고치는 것을 말한다.

예문(5)

아동: “아기 접시 깨졌어요 “
엄마: “아기가 접시 깬어요. 라고 해야지” “아기가 접시 깬어요”
아동: “아기가 접시 깬어요.”

이때, 지나친 교정은 자신감을 뺏을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6) 자기-교정하기

이 방법은 아동과 말을 하는 동안, 아동의 잘못된 부분을 부모가 한 번 그대로 틀리게 말한 후 바른 형태를 다시 들려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동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도 오류를 범한 후 다시 교정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자기-교정의 방법을 제시해 준다.

예문(6)

아동: “삼촌 왔어요.”
엄마: “삼촌 왔어요 가 아니지. 삼촌 올꺼예요”

이때 언어표현시 틀린 부분과 함께 바른 부분을 동시에 제시해 줌으로서 정오의 판단력을 길러준다.

7) 문장 완성하기

문장 완성하기는 어머니가 먼저 문장의 일부분을 말해주고 아동이 나머지 뒷부분을 스스로 완성하게 하는 방법이다.

예문(7)

아동: (아동이 장난감 자동차에 인형을 태우고 있다)
엄마: “인형이 뭐하지? 인형이 차 _____”
아동: “인형이 차 타요.”

2. 가정에서의 과제지도

1) 과제지도의 중요성

치료실 밖에서 아동의 의사소통기술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치료사들은 어머니에게 과제를 주어 전이과정을 수행하게 합니다.

언어치료의 목적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나더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실이라는 공간의 한정되어 있으며 아동들에게 여러 상황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치료시간 역시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분 동안의 치료시간동안 치료사는 최상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아동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지속적인 언어자극을 받는 곳은 가정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나 가족의 역할은 치료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2) 과제지도는 어떻게 할까요?

▶ 치료사의 지시에 잘 따라 주세요.

가끔 어머니들 나름대로 과제를 잘못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꾸준히 해주세요.

과제를 잘 수행하지 않으면 그 만큼 아동의 향상속도는 늦어집니다. 이것은 아동, 치료사, 어머니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과제지도의 실제

변별적	차이가 큰 것 ⇒ 차이가 작은 것
흥미유발	알고 있는 것 ⇒ 모르는 것
점진적 접근	발달단계가 낮은 것 ⇒ 높은 것
용암법	서서히 자극(힌트)을 줄여나가기
질문에 대답하기	누구, 뭐, 어디 ⇒ 어떻게 ⇒ 언제 ⇒ 왜
지시따르기	한가지 사물 + 한가지 동사 ⇒ 두가지 사물 + 한가지 동사
	한문장 지시 ⇒ 두 문장 지시
	가까운 공간 ⇒ 먼 공간

-1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태어났을 때부터 말을 충분히 걸어주면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 * 아이가 젖을 먹는 것은 바로 촉각을 통한 첫 번째 학습이다. - 일부러 젖꼭지를 아기의 얼굴의 여기 저기에 붙여주면 아이는 공간 조정 능력을 빠르게 배워 상하, 좌우 감각을 몸에 익혀간다.
- * 1주일이 지나면 20cm 거리의 사물을 볼 수 있고 큰 소리에 반응을 나타내면서 깜짝 깜짝 놀라기도 한다.
- * 좌, 우로 움직이는 것을 쳐다보는 등 주변에서 오는 자극에 대해 반사적으로 반응한다.
- * 피부와 혀가 잘 발달되어 있어 단맛을 좋아하고 시고 쓴맛을 주면 얼굴을 찌푸리면서 싫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 미지근한 물, 차가운 물, 단물, 짠물, 신물 등을 수건에 적셔서 맛보게 하면 미각에 좋은 자극이 된다.
- * 여러 가지 냄새를 맡도록 해 주면서 키우면 후각이 발달한 아이로 자라게 된다.
- * 울음은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아기의 유일한 의사표현이기에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어 애정을 확인해줘야 한다.
- * 아- 우 등의 긴 모음을 소리낸다.
- * 손과 발의 이름을 말해 주고 기저귀를 갈아 줄 때도 말을 걸어 준다.
- * 자장가를 불러 주며 아기를 안고 주변을 돌아다닌다.
- * 아기는 색의 대조와 형태가 확실한 흑백 모빌에 흥미를 느끼므로 30cm 정도 떨어진 곳에 걸어주며 교육용 놀잇감으로 좋다.
- * 빨간색의 큰 글씨로 쓰여진 문자표를 걸어두면 어릴 때부터 글자에 친숙해진 아이는 글자를 보면 즐거워하는 아이로 자란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다 하지만 하루 종일 들려주면 청각이 둔해진다.
- * 음의 고저가 심하지 않은 조용한 음악을 1회 15분 정도로 하루에 30분씩 매일 들려준다.
- * 얼굴을 쳐다볼 수 있기에 웃어 보이거나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애정을 길러야 한다.
- * 아이를 둘러싼 환경에 색채를 풍부하게 해주어야 한다.
- * 밝은 색의 장난감이나 아름다운 화초로 주변을 장식하고 아기 주위에 명화를 붙여준다.

- 2 개월 -

1. 언어, 인지적 발달

- * 귀 가까이에 딸랑이를 울려서 청각의 발달을 도모하고 보통 말, 청소기 소리, 그밖에 생활음 등에 익숙해지게 한다.
- * 아기를 안고 방안을 거닐며 가구나 주변 사물의 이름을 매일 같은 방향 같은 순서로 반복하여 들려준다.
- * 바깥 경치를 보이면서 가능한 많은 이야기를 서술하듯 자세히 말을 들려준다.
- * 높낮이가 있는 웅얼이를 하며 목소리에 반응한다.
- * 아기가 울 때 태교시를 들려준다.
- * 몇 가지 소리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고 특히 자주 접하게 되는 엄마의 목소리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구별하게 된다.
- * 아직은 일반적인 크기의 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15cm내외의 책이 적당하다.
- * 시각발달을 위한 흑백무늬 초점 맞추기 책이 교육용 놀잇감으로 좋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아기에게 TV를 보이지 않도록 한다.
- * 아기가 울 때는 자장가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데 한번에 30분 이상은 들려주지 말고 한가지 악기보다 여러 가지 악기가 함께 연주되는 교향곡이 좋다.
- * 아기 주변에 영화를 걸어주고 꾸밈을 한 달에 한 번씩 바꿔 준다.
- * 수유 후 30분-1시간 정도 같이 놀아 주고 나서 홀로 조용히 노는 시간을 준다.
- * 기저귀감은 무늬 있는 천으로 한다.
- * 아기와 스킨십을 많이 하여 감각 기관에 자극을 준다.
- * 엄마의 눈동자나 유두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 * 엮어 재우면 자칫 코가 막혀 영아 돌연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전에는 뉘워 재우거나 옆으로 재우는 것이 좋다.

- 3 개월 -

1. 언어, 인지적 발달

- *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상대가 되어 준다.
- * 영화를 보이면서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 * 신체 각 부위의 이름을 말 해 주고 집안의 사물을 이야기 해 준다.
- * '아', '어'등의 모음으로 웅얼이를 시작하고 소리를 내어 사람을 부르고 자신의 기분을 표현 한다.
- * 아기와 눈을 맞추면서 구령을 붙여 리듬감도 키운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아기와 눈맞춤을 하고 대화하면서 젓을 먹인다.
- * 엄마의 얼굴을 알아보고 얼르면 웃고 누구에게나 웃음으로 반응하는 시기이다.
- * 친근한 목소리와 낯선 목소리를 구별하여 친숙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조용해지기도 한다.
- * 손을 움직여 입에 넣고 빨고 수시로 손가락을 입에 넣는데 아기가 손가락 빨기를 통하여 욕구를 충족하게 해준다.
- * 아기와 스킨십을 자주 가져 아기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갖도록 해준다.
- * 햇빛의 자외선이 뼈의 발육을 도와 구루병 등을 예방해 주고 아기 기분 전환에도 좋다.

- 4 개월 -

2. 언어, 인지적 발달

- * 공원 등에 데리고 다니면서 조용한 자연의 소리를 들려준다.
- * 좋은 그림 앞에 데리고 가서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준다.
- * 욕조에 데리고 들어가서도 충분히 말을 걸어 준다.
- * 아기의 이름을 멀리서 불러 주어 엄마의 모습을 찾게 한다.
- * 여러 가지 장난감을 주어 각 물체의 모양과 크기와 감촉과 부피가 천차 만별임을 알도록 해 준다.
- * 아이를 안고 집안을 거닐며 가구명칭을 하나하나 되풀이해서 가르친다.
- * 웅알이에 대해 대꾸를 해 주어 더 많은 웅알이를 유도함으로써 응답 훈련을 시킨다.
- * 아, 어, 오, 우, 이 등의 후두음 발성을 유도한다.

3. 사회, 정서적 발달

- * 놀이를 통해 아기와 함께 웃고 장난을 칠으로써 유머 감각을 길러준다.
- * 동물 장난감을 주어서 동물에 대한 친근감을 길러 준다.
- * 아기에게 대꾸할 때는 되도록 과장된 반응을 보여준다.
- * 산보를 하며 아이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인상을 가질 수 있게 한다.
- * 경치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말을 해주어야 한다.

-5 개월 -

1. 언어, 인지적 발달

- * 소리에 민감해진다.
- * 신체 부위, 가구, 동물, 탈 것 등의 이름을 가르친다.
- * 좋은 시를 낭독해서 들려주고 그림책을 보이면서 이야기를 해 준다.
- * 경치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말을 많이 해주어야 한다.
- * 자장가 등 여러 가지 노래를 불러 준다.
- *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등을 구별하므로 칼라 모빌을 달아준다.

- 빨간색 : 적극적인 사고와 자립심을 키워줌
- 노란색 : 정서안정과 원만함을 키워줌
- 파란색 : 명랑함과 호기심을 키워줌
- 초록색 : 신중함과 진지한 사고를 키워줌

2. 사회, 정서적 발달

- * 놀이 상대가 되어 주어 노는 것을 좋아하게 한다.
- * 무엇이 나올까 놀이를 해주어 아기의 기억력과 상상력을 높여주자.
예) 아기가 흥미를 보이는 물건들을 보여준 다음 원통 속에 넣었다가 기울여서 반대편으로 나오는 것을 반복해 보여준다.
- * 딸랑이가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교육용 놀잇감으로 좋다.
- * 딸랑이는 던지거나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도록 견고하고 무독성이어야 하며 소리는 자극적이지 않아야 한다.
- *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엄마의 모습을 구분할 수 있다.

-6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엄마, 아빠 목소리를 잘 구별할 수 있다.
- * 감정의 표현도 풍부해진다
- * 복잡하고 폭넓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 * 웅얼이는 점차 유아어로 바뀌어간다.
- * '엄마, 아빠'와 같은 익숙한 말은 혼자서도 곧잘 할 수 있게된다,
- * 칭찬이나 꾸중과 같은 간단한 말을 알아듣는 놀라운 발전을 보인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엄마와만 단둘이 지낸 아기라면 낯가림이 유달리 심해진다.
- *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처음 보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울음을 터뜨린다.
- * 낯가림이 유별나게 삼한 아기에게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도록 한다.

-7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언어를 발달시키는 주요시기이므로 충분히 대화의 상대가 되어 준다.
- * 웅얼이에서 유아어로 조금씩 발전하기 때문에 엄마, 맘마 같은 말은 명확한 발음이 아니더라도 곧잘 하기도 한다.
- * 아이 앞에서 움직이는 장난감을 작동시켜 준다.
- * 딸랑이를 흔들어서 눈으로 쫓도록 한다.

- * 기어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물에 흥미를 갖게되고 중뇌를 자극하여 언어 발달과 지능발달에 도움을 준다.
도리도리짝자궁 : 목운동에 좋다.
곤지곤지짝자궁 : 눈과 손의 협응력을 키워준다.
잼잼 : 손가락 근육을 발달시킨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쉬운 멜로디의 곡을 들려준다.
- * 스킨십을 해 주면 아이의 정서가 안정되어 현명한 아이로 자라게 된다.
- * 유모차를 태우는 것 보다 팔에 안고 걷는 것이 스킨십에 좋다.
- * 사람을 알아본다.
- * 슬프다, 기쁘다 등의 복잡한 감정표현을 할 수 있다.
- * 창을 열어서 식물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 * 엄마와 단둘이 있는 아기라면 낮가림이 유달리 심해진다.
- * 소리나는 장난감을 두드리기를 좋아한다.
- * 오뎅이는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은 아이들의 움직임을 자극하는 데 필요하며 순간집중력이 향상되는교육용 놀잇감으로 좋다.
- * 엄마와 함께 공놀이를 한다.
- * 큰 상자에 작은 상자를 끼워 넣거나 상자 뚜껑을 닫는 놀이를 한다.

-8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그림책이나 도감을 보여 준다.
- * 엄마가 내는 음을 따라한다.
- * 형(오빠), 누나(언니)등 가족 관계의 이름을 가르친다.
- * 서, 앉아, 손 씻어 등 동작어를 가르친다.
- *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와 같은 행동과 말을 가르쳐준다.
- * 기억력이 생기면서 흥내내기도 잘하게 되는데 아기와 눈을 마주치고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 * 말은 서툴지만 말귀는 어느 정도 알아듣게 된다.
- * 칭찬이나 꾸중과 같은 간단한 말을 알아듣기도 하면서 발전을 보인다.
- * 장난감 숨바꼭질 놀이는 순간기억력을 더욱 개발시키는 놀이라 좋다.
- * 종이를 구기거나 찢는 놀이는 양손과 손끝을 잘 쓸 수 있는 연습이 되므로 두뇌 계발에도 좋아 마음껏 하게 한다.
- * 쥐면 소리가 나는 장난감이 교육용 놀잇감으로 좋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풍경이 바람에 흔들려서 소리를 내는 것을 보여 주면 좋다.
- * 레코드로 세계 각국의 자장가를 들려 준다.

- * 까꿍놀이를 하면서 즐거워한다.
- * 자기 손가락 발가락은 물론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나 입에 넣어 탐색 하므로 아기 주위에 위험한 것은 두지 않도록 한다.
- * 아기가 가족을 알아보는 시기가 되면 반작용으로 낯선 사람에 대해 불안을 보이며 무서워서 울어버리는 아기가 많은데 이때 품안에 꼭 안아주면서 따뜻한 말로 격려를 해준다.
- *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면 강하게 저항한다.

-9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짹짹, 도리도리 등의 반복 놀이를 시킨다.
- * 유아 TV프로를 조금씩 보여주고 노래가 들어간 녹화 테잎을 보여준다.
- * 색깔이 있는 실로폰을 두드리게 하면 자연스럽게 음계를 익히게 된다.
- * 그림 카드로 말을 가르치는데 실물과 대조시키며 가르친다.
- * 짧은 문장의 그림책을 보여주며 읽어주어 시각과 청각을 자극한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웃사람들과 접하게 하고 자연과도 접하게 해 준다.
- * 놀이터나 공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 준다.
- * 여러 종류의 꽃과 나무를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해 준다.
- * 물놀이를 통해서 불안한 정서를 발산시키도록 해 준다.
- * 아기 때부터 청결한 습관을 길러 준다.
- * 방에 널려 있는 놀이기구를 치우는 모습을 직접 보여 준다.
- * 실제 동식물을 자주 대하게 하여 그에 적응시킨다.
- * 큰 상자 속에 여러 가지 물건을 넣어서 꺼내거나 집어넣기를 하며 놀게 한다.

-10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아, 어, 오, 우, 이 등의 모음을 발음하여 들려준다.
- * 거울을 보면서 엄마와 이야기를 한다.
- * 신체의 각 부분을 이해해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가르친다.
- * 문자표 앞에 데리고 가서 글자를 한자씩 가르친다.
- * 그림 카드를 4-5장 놓고 말하는 것을 집도록 한다.
- * 그림 동화를 매일 읽어 주도록 한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동요나 명곡을 들려준다.
- * 아이가 익숙하지 않은 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주의해서 살펴본다.

- * 다양한 음을 구별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한다.
- * 엄마를 흉내내어 손뼉치기, 문지르기, 주먹 쥐기, 엄지 세우기 등을 따라해 보게 한다.
- * 위인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위인의 성장과정 업적과 일대기를 들려주어 그에 적응시킨다.

-11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막대기를 손에 쥐어 주고 세면기나 공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두드려 보게 한다.
- * 앉아서 엄마와 함께 공 던지기 놀이를 한다.
- * 동물의 울음소리를 흉내내서 들려주고 그 동물이 그려진 카드를 잡게 한다.
- * 대화를 많이 한 아기는 음머음머, 멍멍, 짹짹 등의 소리를 내는데 아직도 못 내면 대화를 더 많이 한다.
- * 아기와 얼굴을 맞대고 아아어어오오우우이 등의 모음을 발음하여 들려준다.
- * 짧은 문장의 그림책을 읽어서 들려준다.
- * 일정한 크기의 적목을 쌓고 허물며 놀게 하며 구체물을 통해 양의변화를 느끼게 한다.
- * 처음 보는 장치가 달린 장난감을 주고 그 반응을 살펴본다.
- * 아이가 좋아하는 동물이나 타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보여 준다.

3. 사회, 정서적 발달

- * 야외, 밤하늘에 별과 달도 보여준다.
- * 전통 음악을 들려준다.
- * 여러 가지 악기 음을 들려준다.
- * 장난감 주고받기 놀이를 한다. - 받았을 때는 엄마가 고맙습니다. 하고 줄 때는 아기에게 주세요 라고 내밀게 한다.
- * 블록 놀이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든다.
- * 아이 주위 환경을 깨끗이 정돈한다.

-12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신체 부위 명칭이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의 이름을 다시 가르친다.
- * 동요내용의 그림을 연상할 수 있게 도와주며 동요 테이프를 들려준다.
- * 동물의 우는소리와 함께 의성어를 들려주며 동물 그림을 보여준다.
- * 동물의 울음소리부터 시작해 부모가 내는 소리를 흉내내게 한다.

3. 사회, 정서적 발달

- *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 * 매일 데리고 나가 주변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이웃 사람과도 이야기하게 한다.
- * 시화작품을 걸어놓고 하루에 2-3차례씩 낭독해 준다.
- * 아기의 주변을 항상 아름답게 장식하고 정리한다.

- * 장난감 다루는 방법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가르쳐 준다.
- * 아이의 눈앞에 여러 가지 물건을 늘어놓고 엄마가 지시하는 물건을 집도록 한다.
- * 엄마의 흉내를 내도록 한다. 나무토막을 높이 쌓게 한다.

-13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그림 동화책을 매일 일정 시간 읽어준다.
- * 아기의 모험심은 주위환경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만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 * 위험한 물건을 만지려 하거나 가스레인지에 다가가면 곧바로 안 된다고 말하고 이유를 설명 해주어 금지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 * 아기 손이 닿지 않게 하려고 모든 물건을 치우는 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 훨씬 낫다.
- * 가능한 위험한 살림도구나 의약품 등은 높은 곳에 두어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 동작 용어를 많이 들려준다.
- * 실내외에서 심부름을 통해 실행하게 한다.
- * 상자, 통, 냄비와 같은 것 속에 여러 가지 장난감을 숨겨서 찾게 한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엄마의 영역을 서서히 침범한다.
- * 아기는 음식으로 여러 장난을 치면서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사물에 대한 이해도 하게 된다.
- * 이 때 식탁에 방수포를 씌워 이 학습과정을 즐겁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 인형이나 동물 장난감을 주어 놀게 한다.
- * 유원지 등에서 어린 형과 누나들 옆에서 놀게 한다.
- * 고운 성악을 들으며 엄마와 함께 따라 무른다.
- * 인간적인 희로애락을 표현한다.

-14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내 것' 이라는 개념을 갖게 된다.
- * 아기는 "이 것은 엄마꺼니까 만지지마" 라며 엄마가 화내는 것으로 엄마 것과 자기것을 구별하는데 순전히 엄마를 통하여 배운 것이다.
- * 자루 속에 물건을 10가지쯤 넣고 1개씩 꺼내면서 그 이름과 용도를 가르친다.
- * 피리, 나팔, 하모니카 등 소리나는 장난감을 준다.
- * 간단한 명령을 내려 간단한 동작을 하게 한다.
- * 자신을 '아기'라고 부르며 3인칭을 사용한다.
- * 아기는 다른 아기가 지나가거나 책에서 아기 그림을 발견하면 "아기다" 라며 반가워서 흥

분된 목소리로 외친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이제는 아기가 물면 아프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 * 자기 장난감에 손을 대거나 엄마 곁에 있는 아기한테 달려들어 할퀴고 무는 것은 이미 아기가 그 효과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 * 이럴 때는 어리니까 하면서 지나치지 말고 야단을 쳐야 하지만 때리는 벌은 아기의 공격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므로 피한다.
- * 장난감을 스스로 꺼내서 놀게 한다.
- *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도록 습관화한다.
- * 아이가 떨어져 있으려 하거나 혼자 걸으려고 하면 지켜본다.
- * 아기는 엄마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라도 하고 있으면 금방 질투가 나 화를 낸다.
- * 엄마는 술래잡기, 숨바꼭질 놀이를 하며 놀아 주는데 가능한 신체 접촉을 많이 한다.
- * 시화 작품을 걸어 놓고 하루 두세 차례씩 낭송한다.

-15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아기는 단어 하나로도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만족하며 단어를 아낀다.
- * 그림카드를 여러 장 늘어놓고 지적놀이를 통해 카드를 집게 한 다음 다시 확인해 준다
- * 여러 가지 동물 그림을 보이며 우는소리를 흉내내 보게 한다.
- * 동요나 영어 테이프를 반복해 들려준다.
- * 기본 음절 표를 하루 한 줄씩 반복해서 가르친다.
- * 하루에 4-8장이 사물 카드를 가르쳐도 좋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여행에 데리고 다니며 풍성한 인상을 새겨 준다.
- * 역사 인물이나 위인의 사진을 자주 대하게 한다.
- * 아기는 어른들과 같이 있기를 좋아한다.
- * 아이는 장난감 던지기를 좋아하며 차츰 끌고 밀고하는 것을 좋아한다.
- *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 * 이제는 아기가 물면 아프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 * 아기는 떼를 쓰며 잠자리에 들기 싫어하는데 이 때는 엄마 대신 아빠가 아기를 재우는 것도 좋다.
- * 자기 장난감에 손을 대거나 엄마 곁에 있는 아기한테 달려들어 할퀴고 무는 것은 이미 아기가 그 효과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 * 장난감을 스스로 꺼내고 스스로 정리하게 한다.
- * 주전자나 컵에 물을 넣는 일을 시킨다.

-16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아기는 말이나 행동으로 싫다는 표현을 한다.
- * "아니"라는 말과 표현으로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자신의 힘을 발견한다.
- * 이 힘을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 * 억지를 부릴 때는 정말 싫다는 것보다는 단지 자신의 자율성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 * 상자, 통, 냄비 같은 것 속에 장난감을 숨겨서 찾게 하고 무엇인지 말하게 한다.
- * 색깔 이름을 가르친다.
- * 주변 사물을 통하여 기본 도형을 가르친다.
- * 그림책, 그림 카드 등으로 여러 명사를 가르친다.
- * 카드의 그림을 보고 이것은 무엇인가 물어본다.
- * 반복하여 매일 그림책을 읽어 준다.
- * 여러 가지 동물 그림카드를 보여 주고 울음소리를 흉내내게 한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아이의 인상을 풍부하게 해준다.
- * 발, 새, 가로수, 신호등, 차, 꽃 등등 주변의 지식을 넓히는 데 노력한다.
- * 4B연필이나 크레파스를 주어 종이 위에 마음껏 그려보게 한다.
- * 엄마를 따라 동요를 부르게 한다.
- * 아기는 주위의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모두 흉내내는 것을 좋아한다.
- * 블록 놀이 후에 엄마와 함께 뒷정리를 한다.

-17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엄마 명령에 순종해 심부름을 잘 한다.
- * 엄마가 기뻐하는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아기는 자랑스러워한다.
- * 색깔 명, 도형 등의 모양을 계속해서 가르친다.
- * '하나' 와 '많다'의 구별이 가능하다.
- * '하나 더'를 안다.
- * 아기와 함께 노래를 부른다.
- * 아직 말을 못하는 아이에게는 그림책으로 끊임없이 언어 자극을 준다.
- * 적목 그림의 이름을 가르치고 부분 명칭도 가르친다.
- * 새, 거리, 자전거, 신호등, 발 등등 가능한 한 충분한 인상을 주어 주변의 지식을 확대시키는데 노력한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타악기를 두들겨 보게 하여 리듬에 적응시킨다.

- * 여러 종류의 악기 음을 들려주어 악기의 이름과 음색을 이해시킨다.
- *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가르친다.
- * 인사말 카드나 그림책을 이용한 간단한 인사말을 가르친다.
- * 간단한 일을 혼자 해낸다고 좋아 하게될 썸 아기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물건들 때문에 신경질을 부리며 화를 낸다.
- * 아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한다.

-18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한 단어로 말하던 아기가 이제는 두 단어를 연결하여 말하게 된다.
- * 아기가 말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보면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를 같이 사용하는 일은 없다.
- * 아직은 흐르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지만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해 현재, 미래, 과거를 발견한다.
- * 색을 가르치며 명암, 차가움, 따뜻함 등을 가르친다.
- *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많이 가르친다.
- * 실물로 보기 어려운 사물의 이름을 그림으로 가르친다.
- * 그림 카드를 보이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묻는다.
- * 이미 알고 있는 말의 반대말을 그림 카드를 보이면서 가르친다.
- * 좋은, 나쁜 등의 형용사나 여기, 저기 등의 부사 그리고 대명사를 배운다.
- * 아기는 책 읽는 억양으로 자기에게 말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 * 사물의 이름을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엄마가 물어보면 손가락으로 가리킬 줄 안다.
- * 아기는 모든 용어를 알지는 못하지만 이야기의 전반적인 의미는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 * 같은 말을 반복하여 많이 들려준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아이는 배설물을 자기 일부라고 생각해 그것을 버리는 것에 대하여 망설인다.
- * 아이가 배설을 하자마자 버리는 것을 자제하고 자신이 직접 물 내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 * 밥을 떠 먹이지 말고 스스로 먹게 한다.
- * 모래 장난, 찰흙 놀이를 시킨다.
- * 유원지, 야외 등에 매일 데리고 나간다.
- * 유아원, 놀이터에 나가서 다른 아이와 놀게 한다.
- * 모두가 자기 말을 들어주기를 원한다.
- * 아기의 행동은 자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인다.
- * 뜻대로 되지 않아 화를 낼 때 도와주려 하면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자기 방에 들어가 화가 가라앉으면 나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19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물감이나 찰흙 만들기 등 서로 녹아서 섞이는 색깔 놀이를 좋아한다.
- * 그림책이나 그림 카드의 그림을 지적하여 무엇인지 말하게 한다.
- * 동그라미, 세모, 네모 등의 모양을 가지고 같은 모양끼리 분류하여 본다.
- *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 동물의 이름을 많이 알려준다.
- * 신체 각 부위의 이름을 묻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게 하거나 대답하게 한다.
- * 아기는 30가지 정도의 단어를 말 할 수 있다.
- * 그림책을 한 장씩 넘기게 한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세숫물을 떠 주지 말고 스스로 세수하게 한다.
- *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게 한다.
- * 자기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발견하고 신기하게 생각해 자주 만지며 장난을 치게 된다.
- * 아이는 다른 신체부위와 마찬가지로 모든 가능성을 시험해 보는 것이므로 대소변 가릴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장난도 혼자 있을 때 방에서 하라고 간단하게 설명해 준다.
- * 소꿉장난, 숨바꼭질을 하고 친구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 친절해야 함을 가르친다.

-20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사용하는 언어가 풍부해진다.
- * 아이가 말하는 것이 어설피다고 해서 엄마가 덩달아 아이의 언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 * 아이의 언어를 풍부하게 하는 데는 책을 많이 읽어주면 좋다.
- * 반복하여 들려 준 말을 아이에게 따라 말하게 한다.
- * '나' 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 * 글자 블록이나 글자 퍼즐로 낱말을 가르친다.
- * 1,2,3,4,5,.....의 숫자를 반복해서 가르친다.
- * 사진이나 그림, 실물을 통해 식물의 이름을 많이 알려 준다.
- * 같은 색깔, 같은 모양, 같은 크기의 블록끼리 골라 보게 한다.
- * 상자 속의 여러 장난감의 이름을 말하며 집어내게 한다.

3. 사회, 정서적 발달

- * 고맙습니다. 실례합니다 등을 말할 수 있게 한다.
- * 밥 먹기 전후나 용변을 본 후에 손 씻는 습관을 길러 준다.
- * 즐겁게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등을 말할 수 있게 한다.
- * 밤을 두려워하는 아이는 잠자기 전에 책을 항상 읽어 주어서 밤에 항상 반복되는 일종의 의식을 만들어 주면 엄마와의 이별에 좀 더 쉽고 빠르게 적응된다.
- * 잠들기 전 아기가 편안함을 얻는데는 보통 20분 정도가 필요하다.

-21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아이는 끊임없이 명령하고 그 명령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
- * 이럴 때는 제멋대로 하게 두지 말고 협상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 * 간단한 카드놀이를 시킨다.
- * 그림 카드를 통해 글자를 익히게 하며 무리하지 않게 하루 2-4장씩 가르친다.
- * 영어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좋다.
- * 1-10까지의 수를 손가락으로 세어 보고 손가락 인형 놀이를 한다.
- * 그림 동화책과 영어 동화책을 읽어 준다.
- * 재울 때에 반드시 이야기를 들려준다.

3. 사회, 정서적 발달

- *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어지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
- * 자기 소유물을 아끼고 나름대로 정리하며 지킨다.
- * 마루에 걸레질을 시키고 끝난 후에는 칭찬해 준다.

-22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120 단어 정도 말한다.
- * 말하는 게 재미있어 화내는 것도 잊어버린다.
- * 더 이상 아이의 말을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다.
- * 아이는 생활에서 겪은 일이나 책에서 들은 이야기 아니면 직접 상상을 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몸짓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 * 그림 카드 등의 수를 늘려서 글자를 익히게 하고 숫자 카드도 활용한다.
- * 1부터 10까지의 수구창을 가르친다.
- * 보아온 사물의 이름을 묻고 대답하게 한다.
- * 좌우 방향도 가르치고 악수는 항상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가르친다.
- * 대화나 동화를 테이프로도 들려준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아침에 일어나면 배개 따위를 정돈하게 한다.
- * 장난감을 상자 속이나 주머니 속에 넣어서 간수하게 한다.
- * 슈퍼마켓에 데리고 가서 진열된 상품들을 보여주고 물건 이름을 말하여 가져오게 한다.
- * 위험한 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친다.

-23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일부러 아니라고 한다.
- * 동물의 왕국 등 자연의 세계를 보여주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하루 20-30분 정도 TV를 시청하게 한다.
- *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연습시킨다.
- * 목욕을 시키면서 신체의 부위를 자세히 가르치고 개수도 세어 보게 한다.
- * 숫자 1과 2를 구별 할 수 있게 된다.
- * '길다'와 '짧다'를 안다.

3. 사회, 정서적 발달

- * 제 물건을 제 스스로 챙길 수 있게 한다.
- * 상자, 공, 바구니 등을 정해진 곳으로 운반하게 한다.
- * 사용한 장난감은 치우게 한다.

-24 개월-

1. 언어, 인지적 발달

- * 300단어 정도 말한다.
- * 소변을 보고 싶다는 뜻을 하소연하게 된다.
- * 이야기를 상상해내고 표현하기를 좋아하며 잘 한다.
- *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잘 이해한다.
- * "더우니까 옷을 벗자" 등의 여러 가지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말을 많이 가르친다.
- * 엄마의 말을 이해한다고 해서 엄마의 말을 항상 따르는 것은 아니다.
- * 많은 사물을 구별하고 이름을 기억한다.
- *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도형 구별이 가능하다.
- * 신체 각 부분의 명칭을 말 할 수 있다.
- * 반대어를 많이 가르친다.
- * 3개의 밥공기 밑에 구슬을 감추고 어디에 있는지 맞히게 한다.

2. 사회, 정서적 발달

- * 자신에 대한 믿음이 커서 이제는 완전히 독립된 존재라고 생각한다.
- * 아이가 밥을 남기려 할 때는 다 먹도록 도와준다.
- * 스스로 정리 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 준다.
- * 주는 것을 가르쳐 주어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한다.
- * 친구 만들기에 관심을 보인다.
- * 자연스럽게 가정생활에 적응한다.

▣ 놀이를 통한 언어기능 촉진 프로그램

1. Program의 내용

; 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성된다.

- 1단계 : 활성화 단계

언어이전 기능은 모방, 상호작용의도, 상징적 놀이, 주의력과 관련된 행동들로서 이러한 행동들은 적극적인 놀이형태의 개입을 통해 효과적으로 습득될 수 있다. 따라서 활성화단계에서는 아동이동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전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놀이 활동을 제공해준다.

- 2단계 : 촉진단계

활성화 단계에서 습득된 놀이전개 능력을 토대로 언어발달에 필수적인 의사소통 기술인, 지시 따르기, 욕구와 요구표현하기, 질문하기, 대답하기 기능을 집중적으로 키워준다. 이 단계에서는 의사소통 기술의 기초가 되는 인지기능을 동시에 증진시키기 위해 놀이와 병행하여 인지적 과제 등이 제공된다.

- 3단계 : 일반화 단계

활성화와 촉진단계에서 습득된 기능들이 실생활에 적용되어 언어발달이 가속화 될 수 있게 부모들이 가정에서 언어지도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지도를 비중 있게 다루게 된다. 이를 위해 부모에게 가정에서의 언어지도의 구체적 지침을 제공해주고 평가해 준다.

1 ~ 2세 영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재, 교구 및 활동

1. 들을 수 있는 것(음악, 언어 등) : 음악소리가 나는 완구들, 딸랑이, 전축이나 카세트 녹음기, 책의 내용, 동요, 음악, 동물 소리가 녹음된 카세트 녹음 테이프, 리듬악기(예 : 종, 북, 우드블록, 리듬막대, 탬버린, 실로폰 등), 환경음
2. 볼 수 있는 것 : 수족관, 형겅, 비닐, 하드보드 등 다양한 재질로 만든 그림책(가족과 친구, 일상생활의 경험, 과학과 자연, 오락과 공상 등의 내용), 용판 깨지지 않고 손에 들거나 벽에 부착할 거울, 눈 높이에 있는 모빌, 가족 사진, 그림(동물, 친숙한 물건) 및 벽걸이, 여러 모양으로 자른 스펀지, 테라리엄
3. 만질 수 있는 것(촉감) : 부드러운 촉감과 그림책, 부드러운 공, 상자, 치아발육용 완구, 질감이 있는 카드와 벽걸이, 유아가 안아 줄 수 있는 봉제완구
4. 블록: 크고 부드러운 블록, 큰 종이 블록, 공간 블록, 소형차와 트럭, 동물 소품(농장/동

물원), 사람 소품 (가족 인형 세트와 여러 직종의 사람 인형들)

5. 조작적 장난감 : 모양 분류하기 상자, 크게 조각난 간단한 퍼즐, 레고(큰 사이즈) 튀어나오는 장난감, 큰 구슬, 크기 순서대로 끼워 넣는 상자세트, 고리 걸기, 점점 크기가 커지는 용기세트(플라스틱 국그릇이나 컵), 큰 구멍의 나무 못판과 크고 색깔 있는 나무못, 큰 나무 구슬 꿰기(큰 나무 구슬과 짧고 두꺼운 실이나 신발끈), 플라스틱 큰 구슬, 뚜껑 달린 종이 상자들, 팔주머니, 밀고 당기는 장난감, 거울(깨지지 않는 것)
6. 극화놀이 : 가방, 담요, 옷 입히고 목욕시킬 수 있는 인형, 봉제 인형, 인형 침대, 인형 유모차, 여러 가지 옷 모자, 가정놀이용품(놀이용 냉장고, 싱크대, 난로, 식탁과 의자, 놀이용 음식, 음식 담을 그릇, 냄비, 팬 플라스틱 접시, 그 밖의 가정 놀이용 기구) 작은 모형(인형집, 농장, 공항 등), 거울, 베개, 손인형, 지갑, 핸드백, 얇은 스카프, 동물 모형, 장난감 전화기
7. 창작적 놀이(미술 활동) : 비닐 깔개, 작업복, 이젤, 풀, 자르기용 잡지, 굵은 수성펜, 이젤용 물감, 손가락 그림용 물감, 물감 붓, 점토와 점토놀이 기구, 여러 종류의 종이, 모래와 모래 장난감, 무독성 색분필, 끝이 뭉뚝하고 부드러운 가위, 물감용 스펀지
8. 대근육놀이 : 여러 종류의 공, 구슬 끼우기 용품, 상자와 카드보드, 플라스틱 볼링 핀과 공, 비누 거품(방울) 자료, 낮은 오리기대, 매트, 레일용 놀이 기차, 밀고 당기는 장난감, 벤치, 경사로(ramp), 바퀴 달린 놀이기구, 고리던지기, 여러 가지 움직이는 완구들(배, 말 등), 모래 놀이대와 모래놀이 용품, 낮은 미끄럼틀, 2단이나 3단의 계단, 그네, 트럭, 터널, 짐수레

♠ 연령별 놀이 활동 ♠

2세(13개월 ~ 24개월)

신체적 독립기라고 할 정도로 운동 능력이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고 사고도 많이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야 할 시기입니다. 구르기, 씨름 놀이, 계단 오르 내리기, 달리기, 공 던지기 등을 함께 하면 효과적입니다.

1. 13 ~ 14개월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 주세요!>

1) 산보하기

또래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나이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 아이가 많이 모이는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 마음껏 놀게 하세요. 가끔씩 코스를 변경하여 평소와 다른 것을 발견하면 다소 과장되게 놀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 맨발로 걸어보기

호기심이 많은 시기이므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 호기심의 폭을 넓혀주고 충족시켜 주세요. 엄마와 손을 잡고 맨발로 걸어봅니다. 모래와 잔디밭을 맨발로 걷는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3) 벤치 뒤에 숨기

벤치에 아이와 함께 앉아 까꿍 놀이를 합니다. 아이가 혼자 잘 앉으면 아이 혼자 벤치에 앉힌 후 숨어봅니다.

4) 거울 놀이

아이들은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좋아합니다.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거울 놀이를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엄마가 하는 인사를 따라하는 놀이를 합니다. "안녕, 좋은 아침이야."

5) 아빠와 놀래요.

몸을 많이 움직이는 놀이를 통해 다리와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고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신체 발달은 아이마다 개인차가 있으나 아이들은 온몸을 움직이며 노는 것은 매우 좋아합니다. 온몸 흔들기, 무등 태우기 등 신체를 많이 움직이는 놀이를 해 주세요.

2. 16 ~ 18개월 <온몸놀이와 걷기 연습을 하세요!>

1) 온몸 놀이를 해 보세요.

아기와 함께 몸을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며 아이의 운동 능력을 키워주세요. 반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전신 운동이 됩니다. 엄마와 아빠가 양손을 잡고 다리를 벌려 발바닥을 맞대고 앉아 아이를 그 안에 앉힌 다음 배를 타듯이 움직입니다.

2) 같이 책을 읽어요.

집에서 그림책이나 신물을 보기도 하고 근처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엄마와 함께 책을 읽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무릎 위에 앉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무릎 위에 앉혀놓고 함께 책을 읽으면, 아이가 책을 보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3) 숨바꼭질을 하세요.

문 뒤로 몸을 숨기는 등의 숨는 놀이는 아이의 기억력을 키워주는 놀이입니다. 무언가를 발견하면 소리를 지르며 좋아합니다. 아이의 눈앞에서 엄마가 커튼 뒤에 숨습니다. 아이는 커튼 뒤로 와 엄마를 찾고 좋아합니다. 찾으면 함께 좋아하세요.

4) 블록 놀이

손의 움직임이 많이 유연해진 시기로 손으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2~3개의 블록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엄마와 함께 블록을 쌓으며 재미있는 체험을 하고 집중력도 기릅니다.

5) 걷기 연습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면서 온몸을 사용하여 움직이며 노는 놀이입니다. 걷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등이나 허리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놀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가 앞서 아이의 옆구리를 잡고 아이가 깡충깡충 뛸 수 있게 도와주세요.

3. 19 ~ 21개월 <균형을 잡고 걸어보세요!>

1) 수를 세며 놀아요.

입으로 수를 세면서 눈으로도 수를 쫓습니다. 손가락으로 세거나 그 개수의 사물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놓습니다. 수세는 것을 공부하기보다 엄마와 숫자 놀이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수를 가르치기보다 놀이로 친하게 해주세요. 수를 세면서 블록을 쌓습니다. 다섯 개를 쌓으면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는 열 개를 쌓는 식으로 놀아보세요.

2) 많이 걸으면 균형감이 키워집니다.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좁은 난간이나 돌 위를 걸어보세요. 익숙해지면 혼자 걷도록 하세요.

3) 그림을 그려요.

이면지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려봅니다. 손목을 많이 이용하는 구불구불한 그림도 그려봅니다. 손동작이 많이 자연스러워진 시기이므로 엄마가 앞에 앉히고 함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종이 위에 동그라미며, 네모, 세모 등을 그립니다.

4) 신나게 굴러볼까요.

구르기를 하면서 몸의 유연성도 기르고, 몸 전체로 균형을 잡거나 상황에 따라서 몸 움직이는 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경쾌한 음악을 틀어놓고 엄마와 아기가 마음껏 방안을 굴러다녀 보세요. 몸과 마음이 상쾌해 집니다.

5) 눈, 코, 입 찾기

눈, 코, 입, 손 등 신체 일부를 찾고 아이가 좋아하는 물건을 찾으면서 분별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물건을 찾아보게 합니다. 아이와 슈퍼에 갔을 때 아이가 사고 싶은 물건은 어디 있는지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4. 22 ~ 24개월 <사물의 모양과 색깔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1) 색 찾기

색상을 가르쳐 주고, 같은 색을 찾는 놀이는 아이에게 색깔이 서로 다른 것을 알게 해주고 색의 감각을 키워줍니다. 산보를 하면서 옷과 같은 색이 보이면 "옷과 색이 똑같네"하며 같은 색을 알려줍니다.

2) 심부름하기

귀찮더라도 아이가 엄마를 돕고 싶어하면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빠한테 신문 가져다주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눈으로는 도와달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장난감 치우기를 할 때는 너무 세밀하게 지시하지 말고 큰 상자부터 차근차근 넣습니다.

3) 그림책 보기

아이가 쉽게 꺼내 볼 수 있는 곳에 그림책을 항상 준비해 두세요. 그림책의 가장 큰 매력은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4) 소리 주인 찾기

병이나 캔에 돌, 모래, 단추 등을 넣고 흔들어 소리를 낸 다음, 구별을 하게 합니다.

5) 바깥으로 나가 시간을 보내요.

집안에서만 노는 것보다 집 앞 공원이라도 나가 기분을 새롭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와 함께 산보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아이가 커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그 날의 날씨에 맞추어 계획을 세워 보세요.

3세(25 ~ 36개월)

신체적 독립기라고 할 정도로 운동 능력이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고

사고도 많이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할 시기입니다. 구르기, 씨름 놀이, 계단 오르 내리기, 달리기, 공 던지기 등을 함께 하면 효과적입니다.

1. 25 ~ 27개월 <말로 표현할 줄 압니다.>

1) 다양한 소리를 들려주세요.

크기와 모양이 다른 유리컵에 물을 부어 컵을 두드리는 것과 같이 높낮이와 울림이 다른 생활 속의 여러 가지 소리를 들려줍니다. 또한 접었다 폄다 할 수 있는 물통이나 장난감 통 등을 귀에 대어 주고 소리를 듣게 합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다양한 소리와 음의 날카로움과 둔탁함 등을 비교하면서 청각을 자극합니다.

2) 함께 춤을 추어요.

엄마 발등에 아이의 발을 올린 상태에서 손을 맞잡고 함께 걸으며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스킨십을 느끼면서 엄마와 아이가 어울려 노는 놀이를 많이 하면 아이의 감성 발달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3) 숫자 도형 알아맞히기

블록이나 숫자 놀이 교구를 이용해서 3이 써진 "빨강고 세모난 모양을 찾아라"라고 한 후 찾으면 숫자 "3"을 가르쳐 준다. 색깔과 도형, 숫자까지 가르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교구가 없을 때는 엄마가 직접 색종이 등을 이용해 숫자 도형을 만들어 봅니다.

4) 자연과 함께 어울리기

꽃과 풀의 향기를 맡고 깨끗한 공기와 바람을 쏘이면서 편안하게 놀도록 합니다. 자연을 접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놀이입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아파트 공용 녹지라도 데리고 나가 마음껏 뛰어 놀도록 해 주세요.

5) 컬러 찰흙 놀이

찰흙을 조물락거리며 아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게도 하고, 엄마가 시범을 보이며 함께 만들어도 좋습니다. 엄마가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상한 모양이라도 아이가 원하는 것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28 ~ 30개월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점검하세요!>

1) 말타기

엄마 등에 아이를 태우고 '따각따각' 말발굽 소리와 '히이익' 말울음 소리를 들려줍니다. 움직임이 클수록 아이는 더 즐거워집니다. 아이에게 흔들리는 진동이 더 잘 느껴지도록 동작을 크게 해 주세요.

2) 찾기 놀이

엄마와 아이가 서로를 찾으면서 쫓고 달아나며 활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엄마가 슬래일 때는 속도를 조절해 아이를 쉽게 잡지 않고 달아나게 해서 아이를 좀 더 많이 움직이도록 하세요.

3) 빵으로 도형 공부를

간식을 먹을 때 도형의 모양을 알게 해주면 아이 혼자서 도형 만들기를 할 수 있습니다. 놀면서 배우는 아이는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물건이나 음식을 이용해 도형을 설명해 주면 더 쉽게 이해하고 인지도 빠릅니다.

4) 역할 놀이 (소꿉놀이)

아빠의 직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직업을 가르칠 수 있어 사회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놀이입니다. 필요한 소품은 엄마 재량 것 비슷한 물건으로 대처하면서 다양한 직업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놀이, 선생님 놀이, 소꿉놀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짝짓기

수의 개념을 아는 아이라면 반으로 나누기, 3등분하기 등의 개념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수 개념과 나누기 개념의 기초를 알게 합니다. 반으로 나눈 것을 각각 또 반으로 나누어 모두 몇 몫인지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세 개씩 짝짓거나, 과자를 반으로, 친구 수 만큼 나누게 할 수 있습니다.

3. 31 ~ 33개월 <아기의 정서발달 형성에 중요한 시기입니다.>

1) 모래 놀이

모래 놀이는 손동작을 많이 요하는 것이어서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돕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마른 모래는 잘 뭉쳐지지 않으므로 모래로 쌓기 놀이를 할 때는 미리 물통을 준비하세요. 적당히 젖은 모래라야 쌓기가 가능합니다. 성 쌓기나 구덩이 파기와 같은 놀이를 하세요.

2) 비누 방울 놀이

불기를 통해 입 운동을 할 수 있고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비누 방울이 금새 사라지지 않게 하고 큰 모양으로 만들려면 비누 거품 용액에 설탕을 약간 넣어주면 됩니다.

3) 손바닥에 글자 쓰기

아이가 엄마가 무엇을 쓰는지 집중하게 되고 상상력과 추리력, 집중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글씨나 그림을 써 주는 동작을 리듬감 있게 반복하고 아이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가볍게 써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손에는 주로 이름을 한자씩 써주면서 한자한자 불러줍니다. 도형을 그려주고 도형을 맞히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4) 시소 타기

무게와 위치가 달라지면서 생기는 변화를 몸으로 느끼며 균형감각을 일깨워줄 수 있습니다. 시소를 내려줄 때는 아이가 놀랄 수 있으므로 너무 빨리 내리지 말고, 시소의 원리를 설명할 때는 쉬운 말로 하세요.

5) 신체 이름 알기

스킨십을 많이 할 수 있는 놀이로 아이의 몸을 토닥여주며 신체 기관의 이름을 알게 합니다. 신체 기관의 이름과 기능을 가르쳐주며, 아이가 자기의 몸에 관심을 갖고 몸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신체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부위를 토닥이면서 아이도 따라하게 하세요.

6) 퍼즐 맞추기

퍼즐을 맞추기 위해 퍼즐의 모양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어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놀이입니다. 아이가 인내력을 가지가 혼자서 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퍼즐 맞추기에 흥미를 갖게 하는 방법입니다.

4. 34 ~ 36개월

1) 인형 친구 놀이

아이가 기분이 좋거나 혹은 짜증이 났을 때의 상황에 맞게 인형 친구와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틈틈이 아이와 악수를 하거나 뽀뽀를 하는 등의 동작까지 곁들이며 실감나게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2) 블록 쌓기

쌓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 수 있는 블록을 이용해 아이의 상상력을 키워주세요. 블록류 장난감은 놀잇감이 되는 것은 물론, 세모 모양 두 개로 네모를 만드는 등의 도형과 색깔을 가르치는 교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실뜨기 놀이

손 조작이 많은 놀이를 하면서 손가락의 운동력을 기르고 눈과 손의 협응력이 좋아집니다. 아이가 자칫 어렵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기초 동작을 충분히 반복해서 익혀준 후에 단계를 올려 실행하세요. 아빠, 엄마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실뜨기를 옮기고 아이가 어려운 단계는 어른들이 해주세요.

4) 도미노 세우기

도미노를 세우는 과정은 극도의 주의력과 집중력을 요하는 과정이므로 침착하게 실시하세요. CD도미노를 아이와 함께 세우려면 바닥에 수건을 깔고 세워보세요. 맨 바닥에서 보다 훨씬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CD로 도미노를 세워주고 아이가 손끝으로 '톡'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몇 차례 반복하세요.

5) 색깔 감각 익히기

크기와 색깔을 비교하면서 시각을 자극시키며 색감을 발달시킵니다. 기초 오감을 자극하는 것은 두뇌 발달에 효과적입니다. 시각을 자극할 수 있는 알록달록한 컬러를 많이 접하게 해주세요. 컬러풀한 자동차는 금세 눈에 띄니다. "빨간색 자동차가 몇 대 지나가나 세어볼까?"하며 세도록 합니다.

1. 아동의 연령별 발달특성 및 상호작용방법

	발달특성	상호작용방법
0 ~ 1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특징: : 울기, 미소 짓기, 웅얼이 등으로 의 사표현을 하고 다른사람의 주의와 관심을 유도 · 4~5개월 - 지각 변별력이 발달하여 엄마나 돌봐주는 사람을 응시함 · 5~6개월 - 돌봐주는 사람을 구분하고 친숙한 사람에게 미소 지음 · 7~9개월 -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려고 의도적으로 만지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함 · 11~12개월 - 부모, 낯익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뚜렷하게 구별함 - 다른 유아들이 놀고 있는 곳을 쳐다 보거나 기어가며 관심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기는 아기의 주된 의사 표현 방법이므로 우는 이유를 잘 파악해서 반응한다. · 수유, 기저귀 갈기 등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아기의 눈을 보며 친절하고 따뜻하게 이야기 해준다. · 부드럽고 일관성 있게 대해 주도하고 양육자가 자주 바뀌는 것을 피한다. · 다른 사람들과 접하는 기회를 가져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넓히도록 한다. · 양육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아기가 새로운 양육자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이전 양육자와 함께 돌본다.
1 ~ 2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이나 손위 형제를 모방하는 놀이가 많음 · 같은 또래보다는 성인이나 자기 형제들과 더 잘 지냄 · 같은 또래와 의견을 나누지 못하며 주로 혼자서 놀이함 ·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관심을 보임 · 간단한 술래잡기와 같이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포함된 놀이를 즐김 · 독립심이 발달하여 무엇이든 혼자서 하려고 시도함 · 초보적인 소꿉놀이를 시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은 유아의 모델이 되므로 성인 자신이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의 모범을 보임. · 자립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기, 혼자 먹기 등등 · 소꿉놀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고 놀이 상대가 되어준다. → 인형 업어주기, 밥상 차리기, 블록으로 만든 자동차 함께 타기 등

	발달특성	상호작용방법
2 ~ 3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다르게 반응함 · 양육자와의 애정적 유대가 견고해져서 새로운 상황, 낯선 사람에게 매우 민감함 · 자기중심적이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다고 생각함 · 같은 또래와 함께 놀고, 탐색하는 것을 좋아하며 점차 놀이 친구가 중요해짐 · 타인과의 관계에서 점차 자기조절력과 통제력이 발달함 · '소유 개념'이 싹트기 시작하여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한 구별이 형성됨. 그러나 아직은 '나누어 공유하기'의 개념이 부족하여 놀이감을 가지고 자주 싸우며 신체적인 충돌이 많음 ·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위로의 표현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청하기도 함 · 차례 지키기의 개념을 약간 보이며 다른 사람에게 공손하게 요청하기도 함 · 가정에서 간단한 심부름을 시키면 좋아함 · 인형이나 자동차와 같은 역할 놀이 도구를 사용하여 상상놀이(~인 척하면서 놀이하는 것)를 즐기며 때로는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전화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경험을 제공하여 낯선 상황에 대해 점차 안정되고 친숙한 느낌을 갖도록 돕는다. · 다른 사람과 즐겁게 지내기 위한 기술의 모델을 보여 유아가 올바른 사회적 태도와 지식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유아들은 좌절감이나 분노를 적절하게 해소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고 역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곤 하므로 성인이 적절한 방법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가 자기 놀이를 방해할 때는 상대방을 때리거나 울기보다는 '친구야, 그러지마. 내가 하고 있는 거야'라고 말하도록 알려준다. · 자립심이 발달하기 시작하므로 서툴더라도 자기 스스로 해볼 기회를 주고 자주 칭찬해 준다. · 상상놀이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소꿉놀이 용품을 준비해주며 놀이의 상대가 되어준다. · 같은 또래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같은 또래와 함께 놀이하고 놀이감을 공유하며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성인이 모델을 보여주거나 도와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가 가진 놀이감을 가지고 놀고 싶을 때에는 무조건 뺏거나 울기보다는 '친구야, 내가 이거 가지고 놀아도 돼? 나도 같이 놀자' 등과 같이 말하도록 알려준다.

	발달특성	상호작용방법
3 ~ 4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경에는 혼자 놀이를 많이 하고, 상호 작용이 많지는 않으나 같은 또래와 함께 놀이하는 빈도가 점차 증가함 · 같은 또래 간의 놀이 시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기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음 · 성구별 없이 놀이하지만 점차 동성 또래에 대한 접근이 빈번해짐 · 차례 지키기 등의 규칙을 학습하기 시작함 · 성인의 칭찬과 승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행동함 · 3세경에는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식별하기 시작하고 행동을 조절하기도 함 · 상상력이 풍부해져 일상의 상황을 극화하기 좋아하고 이를 위해 상징물을 사용하는 것이 증가함 · 2-3명이 상호 작용하는 소집단의 놀이가 가능해짐 · 3세 경에는 복잡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 편 게임은 어려움 · 4세 경에는 같은 또래와의 상호 작용이 활발해져서 함께 어울려 놀이하는 병행 놀이와 연합 놀이가 가능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유아들이 스스로 하도록 기회를 주어, 자기 관리 기술과 독립심이 발달하도록 지도한다(스스로 옷 입고 벗기, 배변, 혼자서 먹기, 이 닦기, 손 씻기, 배변 관리, 장난감 정돈 등). · 아직 근육 조절이 미숙한 시기이므로 때 때로 배변 실수를 하거나 음식을 흘리고 먹더라도 이해해주고, 안정된 마음으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 같은 또래와 놀 기회를 만들어 준다. · 3세는 아직 나누어 쓰기, 차례 기다리기 등이 서투르므로 같은 또래와 놀 때는 비슷한 종류의 놀이감을 제공해주고 서로 바꾸어 놀거나 양보해볼 기회도 준다. · 상상 놀이가 활발해지는 시기이므로 다양한 극놀이용 놀이감으로 소꿉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p>◆ 이 시기에 많이 하는 놀이의 예 엄마 아빠 놀이, 병원 놀이, 음식점 놀이, 가게 놀이, 세차장 놀이</p>
4-6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을 이해하기 시작하므로 규칙을 지키고 타인을 고려하고 돕는 행동 등이 증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사회적 태도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감 있게 지낼 수 있도록 적절한 태도를 지도한다.

호흡 훈련을 위한 방법

1) 바른 자세 가지기

(1) 근육 훈련을 통해 긴장을 조절할 수 있다.

- ① 복부 근육의 긴장 조절하기
- ② 흉부 근육의 긴장 조절하기
- ③ 경부 근육의 긴장 조절하기
- ④ 앉는 데 필요한 근육 운동 기능 조절하기

(2) 근육 훈련을 통해 바른 위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 ① 복부의 바른 자세 유지시키기
- ② 흉부의 바른 위치 유지시키기
- ③ 경부의 바른 위치 유지시키기
- ④ 경부의 바른 위치 유지시키기
- ⑤ 두부의 바른 자세 유지시키기

(3) 들숨과 날숨으로 바른 호흡 패턴을 가질 수 있다.

- ① 입으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기
- ② 입으로 숨을 들이쉬고 코로 내쉬기
- ③ 코로 숨을 들이쉬고 코로 내쉬기
- ④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기
- ⑤ 입과 코로 숨을 동시에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기
- ⑥ 입과 코로 숨을 동시에 들이쉬고 코로 내쉬기

2) 호흡 속도 유지하기

(1) 훈련을 통해 호흡 속도를 늦출 수 있다.

- ① 반듯이 누워 무릎 관절을 굴곡 시키기
- ② 대퇴 전부에서 복부를 압박하기
- ③ 재빠르게 신전 시켜 복부의 압박을 완화시키기
- ④ 호흡 속도를 1분에 20회 정도 유지 반복하기

(2) 날숨과 들숨을 하며 호흡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 ① 급히 들이쉬고 천천히 또는 급히 내쉬기

- ②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또는 급히 내쉬기
- ③ 급히 들이쉬고 중간에 1번 스타카토 넣고 내쉬기
- ④ 급히 들이쉬고 중간에 2번 스타카토 넣고 내쉬기
- ⑤ 급히 들이쉬고 중간에 3번 스타카토 넣고 내쉬기

(3) 신호에 따라 호흡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 ① 손뱁 장단에 따라 입과 코로 숨쉬기
- ② 호루라기 장단에 따라 입과 코로 숨쉬기
- ③ 실로폰 장단에 따라 입과 코로 숨쉬기
- ④ 피리 장단에 따라 입과 코로 숨쉬기
- ⑤ 하모니카 장단에 따라 입과 코로 숨쉬기

3) 날숨 조절하기

(1) 깊은 들숨을 할 수 있다.

- ① 한 쪽 콧속을 막고 호흡하기
- ② 두 콧속을 막고 호흡하기
- ③ 코와 입을 막고 한참 동안 호흡 정지하기
- ④ 입과 코에서 손을 떼고 심호흡하기

(2) 날숨을 느끼게 조절할 수 있다.

- ① 손으로 숨을 확인하기
- ② 복부를 손으로 누르며 숨을 길게 들이쉬고 내쉬기
- ③ 복부에 손을 대고 20초 이내에 5회 이상 숨을 내쉬기
- ④ 들숨의 공기를 날숨 신호까지 참고 내쉬지 않기
- ⑤ 숨을 들이쉴 때 종이가 입에 달게 한 후 내쉬기
- ⑥ 긴 한숨이나 긴 발성, 웅아리 등을 흉내내기
- ⑦ 촛불이 안 꺼지고 흔들리게 날숨을 조절하며 불기

(3) 숨을 내쉴 때 소리나게 할 수 있다.

- ① 손으로 복부를 눌러 손으로 호흡을 확인하기
- ② 숨을 내쉴 때 소리내기
- ③ 복부를 수축하여 호흡하고, /아-/소리를 발음하기

4) 복부 운동 제거하기

(1) 복부로 호흡하며 복부 운동을 제거할 수 있다.

- ① 사지와 몸의 긴장 풀기

- ② 손으로 복부를 밀어 주어 호흡하기
- ③ 복부를 밀지 않고 호흡하기
- ④ 1분에 30회 이내로 호흡 속도 유지하기

(2) 흉골 운동에 따라 일어나는 복부 운동을 제거할 수 있다.

- ① 흉골 하단 ~ 장골능에 벨트를 차고 호흡하기
- ② 흉골 하단 ~ 장골능에 콜세트를 차고 호흡하기
- ③ 벨트나 콜세트를 차고 날숨 호흡을 길게 하기
- ④ 벨트나 콜세트를 차고 소리를 강하게 내기

5) 호흡량 증대시키기

(1) 깃털 불기를 통해서 호흡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 ① 깃털의 움직임을 보면서 불기
- ② 깃털을 10cm 거리까지 날려보내기
- ③ 목표 거리를 늘려 가면서 날려보내기
- ④ 같은 선에서 깃털을 멀리 날려보내는 시합하기
- ⑤ 깃털을 공중에 불어서 날리기

(2) 탁구공 불기를 통해서 호흡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 ① 한숨에 길게 불기
- ② 한숨에 짧게 불기
- ③ 일정한 목표 지점으로 공 불어서 보내기
- ④ 마주 보고 공 불어 보내기
- ⑤ 경사진 흙에 공을 위 아래로 움직이게 불기
- ⑥ 경사진 흙에 공을 일정한 높이로 유지하게 불기

(3) 호루라기 불기를 통해서 호흡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 ① 숨을 세게 내쉬어 호루라기 불기
- ② 시범에 따라 호루라기 불기
- ③ 구령에 맞추어 호루라기 불기
- ④ 오랫동안 그치지 않고 호루라기 불기
- ⑤ 점차적으로 횟수를 늘려 가면서 불기

(4) 바람개비 불기를 통해서 호흡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 ① 짧게 끊어서 '후' 소리를 내기
- ② 연속적으로 짧게 끊어서 '후/후/후~' 소리내기

- ③ 한숨을 쉬듯이 '후~' 소리를 길게 내기
 - ④ 화살표 방향으로 '후' 불어 바람개비 돌리기
 - ⑤ 바람개비를 천천히 또는 빨리 돌리기
- (5) 코끼리 코 불기를 통해서 호흡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 ① 숨을 크게 불어 코끼리 코에서 '뽀' 소리나게 하기
 - ② 코끼리 코가 완전히 퍼질 때까지 코끼리 코 불기
 - ③ 코끼리 코를 불어 표적 맞추기
 - ④ 코끼리 코를 불어 퍼진 상태에서 유지시키기
- (6) 종이공 불기를 통해서 호흡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 ① 가로, 세로 10cm의 종이공에 바람을 넣어 부풀리기
 - ② 점차로 더 크게 접은 종이공에 바람 넣어 부풀리기
 - ③ 종이공을 불어 멀리 날려보내기
 - ④ 종이공을 목표물까지 날려보내기
- (7) 종이관 불기를 통해서 호흡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 ① 종이관에 넣은 화살촉을 날려보내기
 - ② 10cm 거리의 과녁을 향해 화살촉을 날려보내기
 - ③ 목표물과의 거리를 점차 멀리 하여 표적 맞추기
 - ④ 종이관을 불어서 화살촉을 멀리 날려보내기
 - ⑤ 정해진 시간에 화살촉을 바구니에 많이 붙여넣기
- (8) 비누 방울 불기를 통해서 호흡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 ① 컵 속에 빨대를 꽂고 불어서 '보글보글' 소리내기
 - ② 컵 속에 거품이 날 때까지 불기
 - ③ 굵고 짧은 빨대를 이용하여 비누 방울 만들기
 - ④ 길고 가는 빨대를 이용하여 비누 방울 만들기
 - ⑤ 천천히 불어서 커다란 비누 방울 만들기
- (9) 촛불 불기를 통해서 호흡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 ① 생일 케이크에 사용되는 촛불 불어 끄기
 - ② 중간 크기의 촛불 끄기
 - ③ 대형 초의 촛불 끄기
 - ④ 촛불 많이 끄기 놀이하기
 - ⑤ 촛불 빨리 끄기 놀이하기

⑥ 촛불 붙여서 흔들기

(10) 물감 붓기를 통해서 호흡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 ① 한 방울의 물감 붓기
- ② 여러 방울의 물감 붓기
- ③ 물감 붙여서 간단한 모양 만들기
- ④ 물감 붙여서 복잡한 모양 만들기

(11) 호기병 붓기를 통해서 호흡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 ① 적은 양의 물을 다른 쪽의 호기병으로 옮기기
- ② 차츰 많은 양의 물을 다른 쪽의 호기병으로 옮기기
- ③ 호기병의 물을 정해진 시간에 붙여서 옮기기
- ④ 호기병의 물을 빨리 붙여서 옮기기
- ⑤ 호기병의 물을 천천히 붙여서 옮기기

(12) 깃대 넘기기를 통하여 호흡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 ① 1개의 깃대를 붙여서 넘기기
- ② 여러 개의 깃대를 붙여서 넘기기
- ③ 깃대와 입과의 간격을 달리하여 붙여서 넘기기
- ④ 지정된 색깔의 깃대만 붙여서 넘기기
- ⑤ 깃대 붙여 많이 넘어뜨리기 게임 하기

6) 생리적 호흡 훈련하기

(1) 흉식 호흡 방법을 익혀 바르게 호흡할 수 있다.

- ① '하나 둘 셋' 체조에 맞추어 율동 하기
- ② 가슴을 내밀며 숨을 들이쉬었다가 다시 내쉬기
- ③ 어깨와 배를 압박하면서 구령에 맞추어 호흡하기
- ④ 흉식 호흡 방법으로 호흡하기

(2) 다리 구르기 기법을 이용해 바르게 호흡할 수 있다.

- ① 누운 자세에서 팔 올려 호흡하기
- ② 무릎 세워 앉은 자세에서 호흡하기
- ③ 다리를 펴서 내리고 올리며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 ④ 다리 구르기 기법으로 호흡하기

(3) 구강과 비강을 통한 호흡로를 알고 호흡 할 수 있다.

- ① 흡기와 호기의 비율을 달리하며 입으로 호흡하기
 - ② 흡기와 호기의 비율을 달리하며 입→코로 호흡하기
 - ③ 흡기와 호기의 비율을 달리하며 코로 호흡하기
 - ④ 흡기와 호기의 비율을 달리하며 코→입 호흡하기
- (4) 풍선을 이용하여 충분한 흡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① 부풀린 풍선의 바람을 빼면서 흡기 인식하기
 - ② 부풀린 풍선을 배의 복부에 밀착하여 감각 느끼기
 - ③ 부풀린 풍선을 배의 복부에 밀착시켜 호흡하기
 - ④ 숫자를 점차 늘리면서 흡기의 양을 증가시키기
- (5) 청각적 자극에 맞추어 흡기를 조절할 수 있다.
- ① 구령을 세는 동안 흡기 하기
 - ② 구령에 맞추어 흡기 하기
 - ③ 피아노 소리에 맞추어 흡기 하기
 - ④ 박자기에 맞추어 흡기 하기
- (6) 시각적 자극에 맞추어 흡기를 조절할 수 있다.
- ① 도화지에 줄을 그을 동안 흡기 하기
 - ② 줄긋는 속도에 따라 빨리 흡기 하기
 - ③ 줄긋는 속도에 따라 천천히 읊기 하기
 - ④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줄을 그으면서 읊기 하기
- (7) 운동 자극을 통해서 읊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① 국민 체조를 통해 읊기 하기
 - ② 손 건반의 음계에 맞추어 흡기 하기
 - ③ 고리를 봉에 걸면서 흡기 하기
 - ④ 모래주머니를 바구니에 던져 넣으며 흡기하기
- (8) 주어진 지시에 따라 신속한 흡기를 할 수 있다.
- ① 호흡을 정지하고 참고 있다가 힘차게 읊기 하기
 - ② 딸꾹질 흉내내기
 - ③ 울음을 그치려 할 때 나는 소리를 흉내내기
 - ④ 방향제를 빠르게 과장된 동작으로 냄새 맡기
 - ⑤ 코를 훌쩍거리는 흉내내기

혀 및 턱 훈련 지도 방법

○ 혀 훈련

1) 혀 운동하기

- (1) 혀를 앞으로 내밀고 뒤로 당기기를 할 수 있다.
 - ① 설압자로 혀 부위 마사지하기
 - ② 거즈로 혀 부위 마사지하기
 - ③ 부드러운 빵을 혀 돌출하여 핥아먹기
 - ④ 초콜릿을 혀 돌출하여 핥아먹기

- (2) 혀끝을 구개나 입술에 닿 수 있다.
 - ① 혀 거상 운동하기
 - ② 혀끝을 구개에 접촉하기
 - ③ 혀끝을 입술에 부위에 접촉하기
 - ④ 혀 가상 능력 기르기
 - ⑤ 입술 주위에 꿀을 발라 혀로 핥아먹기
 - ⑥ 구렁에 맞추어 혀를 구개에 접촉하기

- (3) 혀끝을 치아나 아랫입술 부위에 닿 수 있다.
 - ① 설압자로 밀어 혀 아래로 내리기
 - ② "치" "첻" "쩍쩍"을 반복적으로 발음하기
 - ③ 구개-치경부-치아 부위의 순으로 혀 쓸어 내리기
 - ④ 아랫입술 주변에 꿀을 발라 혀로 핥아먹기
 - ⑤ 구렁에 맞추어 혀를 내리기

- (4) 혀끝을 오른쪽과 왼쪽 입술 모서리에 닿 수 있다.
 - ① 입술 양쪽 모서리에 꿀을 발라 핥아먹기
 - ② 시범 보며 혀끝을 오른쪽과 왼쪽 모서리에 대기
 - ③ 설압자로 혀 양옆 압박하기
 - ④ 혀끝을 볼 내부와 밖에서 반대 부분으로 밀어 넣기

- (5) 혀끝으로 입술 돌레를 회전할 수 있다.
 - ① 입 주위에 꿀을 바르고 혀로 핥아먹기
 - ② 손잡이 달린 사탕을 입속 부위에서 혀로 핥아먹기
 - ③ 스펀지나 코르크를 입속에 넣어 혀로 이동시키기

- ④ 거울을 보고 혀끝으로 입술 둘레를 회전하기
- ⑤ 구렁에 맞추어 혀끝으로 입술 둘레를 회전하기

(6) 혀끝을 치조 부위에 닿 수 있다.

- ① 치조 부위의 음식물을 혀로 핥아서 먹기
- ② 작고 얇은 붓으로 치조 부위를 자극하여 핥기
- ③ 치조 부위에 설압자를 대면 혀를 갖다 대기
- ④ 거울을 보며 치조 부위에 혀 접촉하기

(7) 혀끝을 경구개 부위에 닿 수 있다.

- ① 경구개 부위의 음식물을 혀로 핥아서 먹기
- ② 얇은 붓으로 경구개 부위를 자극하여 혀로 핥기
- ③ 경구개 부위에 설압자를 대면 혀를 갖다 대기
- ④ 거울을 보며 경구개 부위에 혀 접촉하기

(8) 혀 운동을 통해 연구개 부위를 거상 할 수 있다.

- ① 입안 가시기 기법으로 혀 운동하기
- ② 밀기 접근법으로 혀 운동하기
- ③ 여러 가지 음식물 삼키기
- ④ 빨대를 사용하여 컵에 든 물 마시기

(9) 혀의 운동을 통해 근력과 운동 범위를 넓힐 수 있다.

- ① 후두경(손가락)으로 혀를 밀어 좌로 움직이기
- ② 후두경(손가락)으로 혀를 밀어 우로 움직이기
- ③ 후두경(손가락)으로 혀끝을 밀어 위로 올리기
- ④ 후두경(손가락)으로 혀끝을 밀어 아래로 내리기

(10) 여러 자극을 통해 혀의 감각 능력을 증진 할 수 있다.

- ① '딱딱하다', '말랑말랑하다' 감각 느끼기
- ② '거칠다', '부드럽다' 감각 느끼기
- ③ '따뜻하다', '차갑다' 감각 느끼기

2) 혀의 움직임에 따라 발음하기

(1) 발음을 통해 치조 부위에서 혀를 움직일 수 있다.

- ① /타-타-타/ 발음하기
- ② /나-나-나/ 발음하기

- ③ /나나-내내-노노/ 발음하기
- ④ /다다-대대-도도/ 발음하기

(2) 발음을 통해 경구개 부위에서 혀를 움직일 수 있다.

- ① "치", "첸", "찹찹" 반복적으로 발음하기
- ② /차-차-차/ 발음하기
- ③ /자자-조조-지지/ 발음하기
- ④ /차-자-치-조/ 발음하기

(3) 발음을 통해 연구개 부위에서 혀를 움직일 수 있다.

- ① /가-가-가/ 발음하기
- ② /카-카-카/ 발음하기
- ③ /가가-거거-고고/ 발음하기
- ④ /가카-거커-고코/ 발음하기

○ 턱 훈련

1) 턱 운동하기

(1) 하악을 올려 입을 다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 ① 손으로 하악을 올려 입 다물기
- ② '합죽이'의 손 유희를 통해 오래 입 다물고 있기
- ③ 비스킷 물고 있기
- ④ 설압자 물고 있기

(2) 하악을 자연스럽게 상하로 움직일 수 있다.

- ① '하품' 흉내내기
- ② 치아 맞부딪치기
- ③ 하악을 움직여 입술 맞닿기
- ④ 원순음과 평순음을 연결하여 발성하기

(3) 하악 운동을 통해서 기동성을 넓힐 수 있다.

- ① 하악 상하 운동하기
- ② 하악 좌우 운동하기
- ③ 과장된 움직임으로 발성하기

(4) 하악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할 수 있다.

- ① 하악 하강하기
- ② 하악의 하강 범위 증가하기
- ③ /파/ 발음하기
- ④ 저작을 통해 하악 근력 증가하기

2) 발음에 의한 턱 훈련하기

(1) 발음을 통해 턱을 움직일 수 있다.

- ① /야야-여여-요요/소리내기
- ② /다대도/소리내기
- ③ /사사-세세-소소-사세소/소리내기
- ④ /아이-이오-우아-아이-에이/소리내기

(2) 2음절어 발음을 통해 턱을 움직일 수 있다.

- ① /아아/, /이오/, /우아/, /우오/, /우오아/ 발음하기
- ② /아이/, /아우/, /에이/, /에우/, /아오우/ 발음하기

일상생활동작지도



팀 명	재활2팀
일 시	2012년 07월 16일 - 07월 27일까지
작성자	작업치료사 이애은
담당자	이애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일상생활동작지도

1. 일상생활 동작?

일상생활 동작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 활동을 말한다. 아침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의 모든 일을 나열하면 수백 가지의 활동으로 열거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 옷을 입고, 세수하고, 식사를 하는 등 인간의 일상생활에는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필수 활동이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들을 쉽게, 그리고 생각 없이 실행하고 있다.

일상생활 동작의 목적은 아동의 특정한 장애범위 내에서 그의 일과 사회생활, 자신의 집에서 일상생활을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며 최대한의 독립수준은 각 아동에 따라 다르게 규정됨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상생활 동작에서 완전한 독립은 해당 아동에게는 최대한의 것이 되어야 하나, 장애가 심한 뇌성마비 아동에 있어서는 장비와 보조에 의하여 최대한의 독립수준이 되어야 한다.

독립에 대한 가능성은 아동의 개인적 필요, 가치, 능력, 한계, 환경적 차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신변처리

신변 처리 기술이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관습에 적응하고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충족시켜 결과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행동들로 혼자서 음식 먹기, 옷 입고 벗기, 대소변 가리기, 씻고 몸단장하기가 포함된다.

3. 신변 처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원칙

- 1) 아동이 현재 훈련시킬 수 있을 만큼 성숙되어 있는가, 훈련시키려는 사람과 심리적으로 밀착되어있는가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
- 2) 사랑을 가지고 지도하되 엄격해야 한다. 무절제한 사랑은 자녀를 망치게 되고 나쁘게 들여진 습관에 부모자신이 놀라게 될 것이다.
- 3) 가능하면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바지 입기를 지도하려 할 때 처음에는 두 다리를 끼워주고 윗부분만 입도록 시키다가 익숙해지면 아랫부분도 스스로 입도록 지도한다.
- 4) 자녀가 집안일을 도우려 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때 일을 저지를까 봐서 마냥 하지 못하게 하기보다는 실패를 겪게 하더라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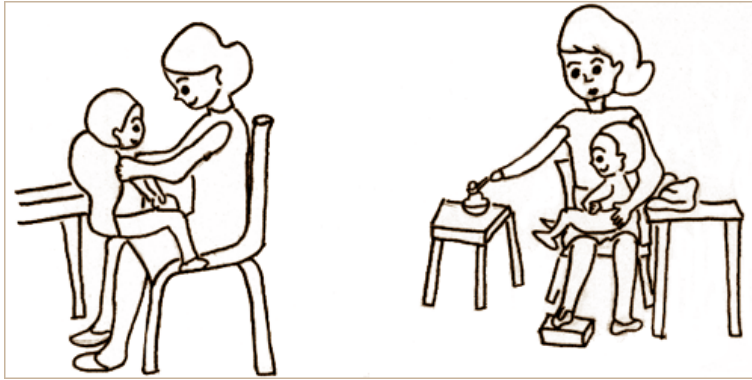
마련한다.

- 5) 자녀는 깨끗하고 단정하게 차려준다. 정갈한 외모를 갖추도록 훈련시키며 관심을 가져주어서 자신에 대한 자아의식도 높여주고 남들에게서 받는 인상도 좋아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 6) 아동의 욕구가 있을 때를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배가 고플 때에 식사 습관을 들이고, 편식을 없애기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러나 매번 그러면 자녀는 짜증을 내고 격한 감정을 내보일 것이다.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7) 훈련시간은 짧게 하는 것이 좋다. 급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긴 시간 지겹도록 같은 과제를 가지고 반복시키지 말라는 것. 너무 긴 시간 지도를 강행하면 자녀도 부모도 지치게 되고 결국에는 훈련 그 자체를 포기해 버리게 된다.

4. 식사하기

1) 먹기

- 0~4개월 : 입 주위에 여러 가지 반사활동들이 나타난다.
(설근반사, 빠는 흡입반사, 삼키는 연하반사)
- 4~6개월 : 모든 반사가 거의 사라진다.
딱 깨무는 교합반사(bite reflex)가 약화된다.
손가락으로 액체를 받아먹을 수 있다.
- 6~9개월 : 비스킷을 깨문다.
씹는데 턱이 위아래로 움직이며 입을 다물고 삼킨다.
- 9~12개월 : 손가락을 사용하여 먹는다.
도와주었을 때 컵을 잡고 마시거나 젓병을 잡고 마신다.
- 12~15개월 : 손가락을 혼자 잡는다. 그러나 음식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는 못한다. 컵을 잡고 마실 수 있으나 가끔 엷지른다.
- 15~18개월 : 서투르게 혼자 먹는다.
컵의 물을 흘리지 않고 마실 수 있다.
- 19개월~2세 : 엷지르기는 하나 손가락을 정확히 사용한다.
빨대를 사용하여 마시기 시작하나 끝을 문다.
- 2~3세 : 완전히 손가락을 사용하여 먹을 수 있다



[그림 1] 올바른 자세

2) 아동이 뺨치는 경우

- 아동이 바르게 앉을 수 없고, 혀로 음식을 뒤로 옮기거나 삼키는 것이 곤란하므로 아동의 엉덩이 관절을 충분히 구부려 뺨침을 막아 편안한 자세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림 2] 나쁜 자세
(뺨침 자세)

- 식사 지도 시 엄마의 팔이 아동의 머리 뒤쪽을 받치고 먹이게 되면 뺨침 자세는 더욱 증가하게 되므로 이 자세는 좋지 않다.(그림2)

3) 먹이는 방법

- 숟가락으로 먹일 때 숟가락을 혀 위에 놓고 아래로 누르면서 뒤로 밀어주면 혀를 내미는 것을 막고 과도한 구토반사를 조절할 수 있다.
- 숟가락은 너무 깊숙이 넣지 말고 아동이 물기 전에 빼야 한다.
- 혼자서 숟가락을 사용하여 먹는 아동의 경우는 숟가락을 잡을 수 없거나, 너무 딱 쥐는 아동은 손잡이가 두꺼운 숟가락을 사용한다.
- 편마비 아동의 경우 식사에 사용하지 않는 손도 식탁 위에 올려놓거나 그릇을 잡게 하여 한 손이 움직일 때 다른 손도 같이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게 한다.

4) 젖은 입을 닦아주는 방법

◆ 잘못된 방법

- 입을 닦아줄 때 아이의 머리를 뒤로 밀면 안된다.
- 아이가 침이 흘렀다는 것을 알 겨를도 없이 갑자기 입을 닦아주면 안된다.
- 과한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닦으면 안된다.
- 입을 빠르게 닦으면 안된다.

◆ 올바른 방법

- 아이가 몸통과 머리를 좋은 자세로 유지하도록 한다.
- 아이가 입을 닦기 위해 다가가는 천을 보거나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입을 닦아주는 재료는 흡수성이 좋고 크기가 작은 재료를 사용한다.
- 천천히 꼭꼭 가볍게 누르면서 닦는다.
- 좀 더 잘 인내할 수 있는 입 쪽에서 시작한다.

5. 장애아동의 옷 입기 지도

1) 옷 입고 벗기

- 6~10개월 : 옷을 입히는 동안 앉아 있다.
- 10~12개월 : 옷을 입힐 때 팔다리를 끼우는 등 협조한다.
- 15개월 : 구두, 모자를 벗는다.
- 18개월 : 장갑, 양말을 벗는다.
지퍼를 내릴 수 있다.
- 1~2세 : 팬티를 벗는다.
구두, 모자를 쓴다.
- 2~3세 : 모든 옷을 벗을 수 있다. 그러나 입을 때는 앞뒤, 좌우를 혼동한다.
- 3~5세 : 옷을 혼자 입는다

2) 자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몸의 각 부분을 알고 좌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각 부분의 명칭을 구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옷을 입고 벗을 때 협조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

예) 양말이나 신발을 신을 때 다리를 고정시키거나, 소매 끼울 때 팔에 힘을 주지 않고 끼우는 동작 등

4) 아동의 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도하며, 아동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기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한다.

- 5) 근육이 굳어 있거나 등이 뒤로 뻗친 자세로 앉은 아동은 엄마의 무릎에 아동의 배가 닿도록 옆드리게 하여 옷을 입힌다.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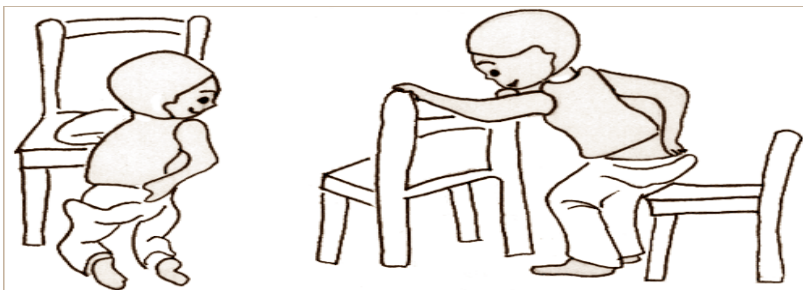
[그림 3]

- 6) 앉은 자세에서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는 엄마의 무릎이나 몸으로 아동의 뒤에서 지지하여 아동이 옷을 입고 벗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그림 4)



[그림 4]

- 7) 균형 감각이 떨어지거나 아동 스스로 설 수 있는 경우는 의자를 잡고 입고 벗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그림 5)



[그림 5]

8) 편마비이거나 장애 정도가 다를 때는 장애가 심한 쪽부터 입고, 벗을 때는 양호한 쪽부터 벗는다.

입을 때 : 장애가 심한 쪽 → 양호한 쪽

벗을 때 ; 양호한 쪽 → 장애가 심한 쪽

6. 대소변처리

1) - 만 24개월에 26%, 30개월에 85%, 36개월에 98%의 아동이 낮 동안에 대소변을 가리게 된다.

- 평균적으로 대소변 가리기 훈련에 걸리는 시간은 약 3개월 정도이다.

- 남자 아이 보다는 여자 아이가 대체로 빨리 가리기 시작한다.

- 대부분 소변 보다는 대변을 더 빨리 가린다.

- 야간의 대소변 가리기는 낮 동안의 가리기가 끝난 후 수개월 뒤에 이루어진다.

- 대부분의 아동은 만 두 살부터 세 살 사이에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아이의 신경계의 발달에 발 맞춰서 하는 것이 좋으므로, 신체발육상태에 따라 조금 일찍 혹은 조금 늦게 대소변 가리기를 시작할 수 있다. 즉, 아이가 대소변 가리기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2) 대소변 훈련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데 정서적 억압이나 흥분상태,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될 때, 학교에 입학 후 처음 며칠간은 대소변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일반아의 용변훈련이 쉽지 않다면 뇌성마비 아동은 이보다 훨씬 어렵다. 아이에게 어느 정도의 일은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 해 주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계속 신경을 쓰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이가 몸을 깨끗이 하고 변기를 사용하여 대소변을 보았을 때 칭찬해주고, 변기를 사용하지 않아 더러운 경우에도 너무 야단치지 말아야 한다. 자기의 잘못을 알게 되면 걱정만 할 뿐이지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장 이상적인 용변훈련의 하나는 일정한 간격으로 변기에 앉게 하여 규칙적인 일과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뇌성마비아의 용변훈련은 정신집중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는 앉을 수 없고, 근육의 긴장을 풀지 못하며, 아랫배에 힘을 줄 수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뇌성마비아들은 다른 여러 가지 운동이나 자세의 문제들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의 원인을 찾고 제거하는 일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 Occupational therapy for children, evolve
포테이지 아동 발달 지침서, 도서출판 특수교육
서울 특별시 교육청 주관 특수학교 학부모 연수교재
www.ddchild.com
www.gokgyo.co.kr
www.kyungpook.ac.kr

부모교육 12-09

자녀의 성장과 성에대한 이해



팀 명	사회심리재활팀
일 시	2012년 7월 5일(목) 16:00-17:40
장 소	3층 강당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2012년 사회심리재활팀 부모교육 및 간담회 보고서

1. 일시 : 2012년 7월 5일(목) 4시-5시30분

2. 장소 : 3층 강당

3. 내용

자녀의 성장과 성에 대한 이해

4. 강사

최현기 / 청소년대안공간 돌음'어깨동무 청소년교실' 팀장/성폭력전문 상담교육원
hkchoi21c@hanmail.net/

5. 참석자

총 52명 < 부모교육 연명부 참조 >

6. 평가

1) 장애인부모회 강사지원 받아 효율적 운영

장애인부모회 강사지원을 활용하여 질 높은 강사를 소개 받아 운영할 수 있었으며 강사지원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잇점이 있었음.

2) 교육 욕구가 높은 강의 주제

교육욕구가 높은 '장애자녀의 성'의 성을 주제로 부모교육이 진행되어 참여 부모님의 참여도가 높았음.

3) 청소년과 성인을 아우를 수 있는 내용으로 보호자의 공감도가 높음

강사와 교육 대상 및 내용이 사전 논의되어 청소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 까지 적용가능한 내용으로 성교육이 진행되어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단지 시간이 부족하였다는 간담회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전달 내용에 비하여 시간이 다소 부족하였음.

4) 팀원 협력 사업 효율성이 높음

팀 협력사업으로 진행되어 교육 대상 부모 모집과 참여가 용이하였음. 또한 세부 업무분장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음.

8. 설문지 분석

1.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①남동대학	②남동아카데미	③주간보호	④창작공예	⑦할 수있어
8명 (19.5%)	5명 (12.2%)	7명 (17.1%)	2명 (0.4%)	2명 (0.4%)
⑧퍼니쿨	⑨파워스피치	⑩탁구교실	⑪신나는토요일	⑫무지개교실
2명 (0.4%)	2명 (0.4%)	3명 (0.7%)	3명 (0.7%)	1명 (0.2%)
⑬표현기술훈련	⑭기타			
4명 (0.9%)	2명 (0.4%)			

2. 주제 ‘자녀의 성장과 성에 대한 이해’에 대한 만족

①매우 만족하다	②만족하다.
34명 (81%)	8명 (19%)

3. 강사 ‘최현기:탁틴내일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대한 만족도

①매우 만족하다	②만족하다.
34명 (81%)	8명 (19%)

4. 진행시간(90분)에 대한 만족도

①매우 만족하다	②만족하다.	③불만족
25명 (59.5%)	14명 (33.3%)	3명 (7.1%)

*불만족 사유

- 1)시간이 짧음
- 2)시간이 짧음
- 3)전반적인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

5. 부모교육 시간(오후 4시)에 대한 만족도

①매우 만족하다	②만족하다.	③불만족
34명 (81%)	6명 (14.3%)	2명 (4.8%)

6. 부모교육이 자녀의 이해에 도움이 된 정도

①매우 만족하다	②만족하다.
39명 (92.9%)	3명 (7.1%)

7. 다음번 듣고 싶은 부모교육 주제

- 1) 행복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웃음치료
- 2) 장애인 성인기 준비(성인장애인의 직업)
- 3) 인성교육
- 4) 참부모교육
- 5) 장애를 가진 가정, 가족관계 개선과 이해
- 6) 장애아이의 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8. 간담회 내용

- 교육위주의 부모교육 보다 부모들도 즐거움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면 좋겠다.
- 장애인 후견인 제도 등 다양한 법 제도가 생성되고 있다. 이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치료 프로그램 개설 욕구도 있지만 법제도와 속도를 같이하는 교육도 필요하리라고 사료된다.
- 요즘 비장애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장애아이들에 있어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에 가정에서 인성지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부모들도 이에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장애가족프로그램들이 많이 부재하다. 장애가족들의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어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호자의 인식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족프로그램인데 아이들만 보내 놓고 자신들은 쉴려고 하는 욕구들이 더 강한 것 같다. 부모님들도 자성해야 한다.

9. 사진자료



사회적 기업의 이해



팀 명	직업재활팀&열린일터
일 시	2012.03.08
발표자	강명진
장 소	무한U&I



노동장애인종합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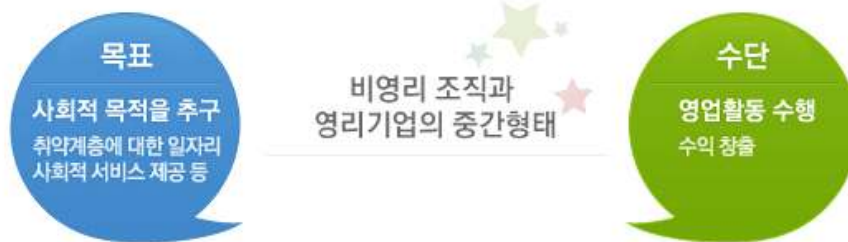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

으로 좋은 일 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기업을 말합니다.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합니다.
- 일반적인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나,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합니다.

◦ 사회적기업의 개념



• 협의(법 제2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광의(영국통상산업부, DTI)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사업

◦ 사회적기업의 특징

-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
-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 사회적 목적에 사용
-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 의사결정은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인사·주주 등 이해관계자 참여도 등 민주적으로 결정

▣ 사회적 기업의 역할



▣ 사회적 기업 육성법

○ 주요법령

• 취약계층의 기준

- 사회적 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주로 제공해야 되는 대상이 되거나 고용해야 하는 취약계층의 기준을 규정
 - 실제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0% 이하인 계층,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 여성,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등을 고려하여 인정한 자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범위

-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한 서비스
 - 보육, 예술, 관광 및 운동, 산림보조 및 관리, 간병 및 가사지원, 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등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 기준
 - 일자리 제공 사회적기업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
 -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 : 전체 서비스의 30% 이상을 취약계층에게 제공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해당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30% 이상

• 재정지원 요건 및 대상기관 선정

-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수혜비중, 재정자립도,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지원 여부, 영리·비영리 단체 여부, 업종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정함
- 노동부 장관이 예산을 감안하여 매년 재정지원계획 공고
- 재정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함

•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의거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추진 방향
 -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사회적 기업 현황

○ 인천현황

- 사회적기업 / 예비 / 인천형








구분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인증/예비/인천형	4/2/1	2/0/1	4/3/6	4/1/1	5/0/7	5/0/3	4/1/4	4/0/3	2/0/5	-

*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현황(2011.04.13) : 총 31개기관/ 남동구 7개선정

○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노동부 인증】

기업명	주소	주요생산품/서비스	연락처
(주)아이티그린 	논현 437-3	폐자원 재활용/금, 은, 비철등생산	032-812-8386 www.itgreen.co.kr
(사)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 		지류, 문구류, 현수막제작 ※ 복사용지 구입시 이용협조	032-435-8858
두리지역복지센터 	만수 987-8	세라믹 페인팅 생활자기류 생산, 바리스타양성	032-422-8415 www.sedoori.com
(주)청솔노인요양센터 	간석 432-4	방문(요양, 목욕)서비스	032-425-0630 http://cafe.daum.net hungsol-center
N.G.O기업장애인남동지부 	서창560-16	재활용품 활용/구제품/생활 용품 판매	032-464-7856

○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기업명	주소	주요생산품/서비스	연락처
(주)그린나눔미 	논현 437-3	폐식용류 재활용사업 【천연비누 및 재생비누제조】	032-812-8386
(주)무한유엔아이 	논현 429-11	감염성폐기물합성수지류 전용용기개발 및 판매	032-815-2365
두리복지(남동사업단) 	구월 1190-10	세라믹페인트공방 및 직업전환교육훈련	032-464-7700
(사)아가페요양센터 	간석 280-11 401호	방문요양서비스(독거노인)	010-3485-1291
소망을나누는사람들 (보리떡다섯개) 	고잔 652-9	경생보호대상자 직업자활 ※ 각종 행사시 떡 주문 협조	032-815-2555 010-6476-8223
(주)바이카에듀 	구월 1134-12 태양빌딩 5층	장애인학생 영어자기 주도학습 교육 ※ 직장내 영어 교육 활용	032-421-7172
위더스(with-us) 	만수 987-8	공공시설내 카페창업 (장애인일자리제공)	032-422-8415

※ 2011년에 두리지역복지센터를 견학하였으며, 금회에는 부모회의 요청에 의해 자립작업장으로 시작하여 사회적 기업 준비단계 과정에 있는 무한U&I를 견학하게 됨.

□ 사진 자료

■ 아이티그린



유희대론 친환경가전 모으기 캠페인



유희대론 친환경가전 모으기 캠페인



자활용 금



자활용 은



유희대론 모으기 캠페인



유희대론 모으기 캠페인



고철,비철 재활용



고철,비철 재활용

■ 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



■ 두리지역복지센터



■ NGO기업장애인협회



■ 두리지역복지센터 남동사업단



형의인생교육/저탄소녹색성장교육



장애우 도자기 생산품

■ 아가페요양센터



■ 청솔노인요양센터



■ 그린나누미



■ 위더스



기관견학(교남어유지동산)



팀 명	직업재활팀&열린일터
일 시	2012.10.11
발표자	강명진
장 소	교남어유지동산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 일시 : 2012년 10월 11일(목) 12:30~17:00

■ 장소 : 교남어유지동산(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241 / 031.958.8593)

■ 일정

시 간	프로그램 내용	비 고
~12:30	복지관 집결	
12:30~14:00	이동(복지관 차량 이용)	
14:00~15:30	현장견학	
15:30~17:00	복지관 도착 및 해산	

■ 어유지동산 알아보기

- 시설명 : 교남어유지동산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교남재단

설립연월일(허가 관청)	대표자	주요사업
1957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	이사장 채주원	생활재활사업 - 교남소망의집 특수교육사업 - 교남학교 직업재활/보호작업사업 - 열림일터 직업재활사업 - 교남어유지동산 등 지역사회재활사업 - 늘푸른마을 등 조기노화장애인지원사업 - 교남시냇가
주소 / 연락처	서울시 강서구 화곡6동 960-22 / 032.2602.3396	

■ 연혁

일자	내용
1986. 05.	그리스도신학대학의 토지를 임대하여 실험농장(100평) 시작
1989. 04.	실험농장을 강화도록 확장, 임대농장(2000평)으로 운영
1994. 03	현부지 매입 및 자립농장으로 건축 가공
1995. 04	자립농장 개원(교남소망의집 부속시설)
1998. 12	장애인 직업재활(보호작업장)시설 설치(파주시청)
1999. 08	장애인 직업재활(근로작업)시설 신축 가공
2000. 01	장애인 직업재활(근로작업)시설 건축완공(280.41평)
2002. 04	근로장애인 2쌍 합동결혼식
2005. 10	목적용 농지(어유지리 130번지 / 1,390㎡) 추가 매입
2006. 01	자립가정 9세대 설치 운영(동두천)
2006. 10	웰빙테마파크 '어유지' 운영 개시
2010. 0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2010-0005호, 서울특별시)
2010. 06	친환경농산물 재인증(저농약)(제10-19-4-51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0. 12	사회적기업 인증(제2010-165호, 고용노동부)

■ 근로장애인현황(2011년 기준)

정원	현원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성별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소계	1급	2급	3급	소계	남	여	소계
60	36	32	3	1	36	3	20	13	36	32	4	36

■ 주요사업

구분	내용
 <p><영농사업></p>	<p>어유지동산은 농업을 주업종으로 운영하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로써, 일반 사업체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된 환경 속에서 근로능력 향상을 통한 직업재활을 실행하고 있다.</p> <p>이에 4만여㎡의 부지에서 각종 채소류 및 식용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가공을 통한 물품을 생산해내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작품목 : 방울토마토, 오이, 감자, 고구마, 고추, 배추, 쌈채소 등 20여 품목 - 가공품 : 된장, 간장, 고춧가루, 수세미화장수, 김치 등 - 원내 부지에 대해 친환경인증 획득(제10-19-4-51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ISO 9001 인증(KorQ-071738, MSA인증원) - 지하 100m 암반수 사용
 <p><숙박&체험사업></p>	<p>농업의 수익성 한계 및 외부자원 활용을 위해 '어유지'를 브랜드화한 웰빙테마파크 형태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p> <p>이에 각종 연수회, 세미나, 봉사캠프 등의 유치를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활동 및 영농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농장, 운동장, 강당, 세미나실, 비닐하우스, 연못, 야외 식당
 <p><직업적응훈련 및 자립생활 지원></p>	<p>현재보다 상위기관으로의 전이를 위한 다양한 직업전 적응훈련 및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잠재된 개별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p> <p>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결혼가정 및 자립형가정을 운영, 지원하고 있다.</p>

▣ 근로장애인 채용

- 채용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일상생활 신변처리 가능자, 특수학교 고등부 과정을 졸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접수 : 수시접수(전화 또는 내방)
- 채용과정 : 초기면접→현지적응평가(1차평가)→수습(훈련)기간(2차평가)→최종평가→근로계약서 작성

환경교육 - 유기 순환운동, 지렁이를 이용한 농사 방법



팀 명	직업재활팀&열린일터
일 시	2012.11.08
발표자	김대중
장 소	해맑음땀방울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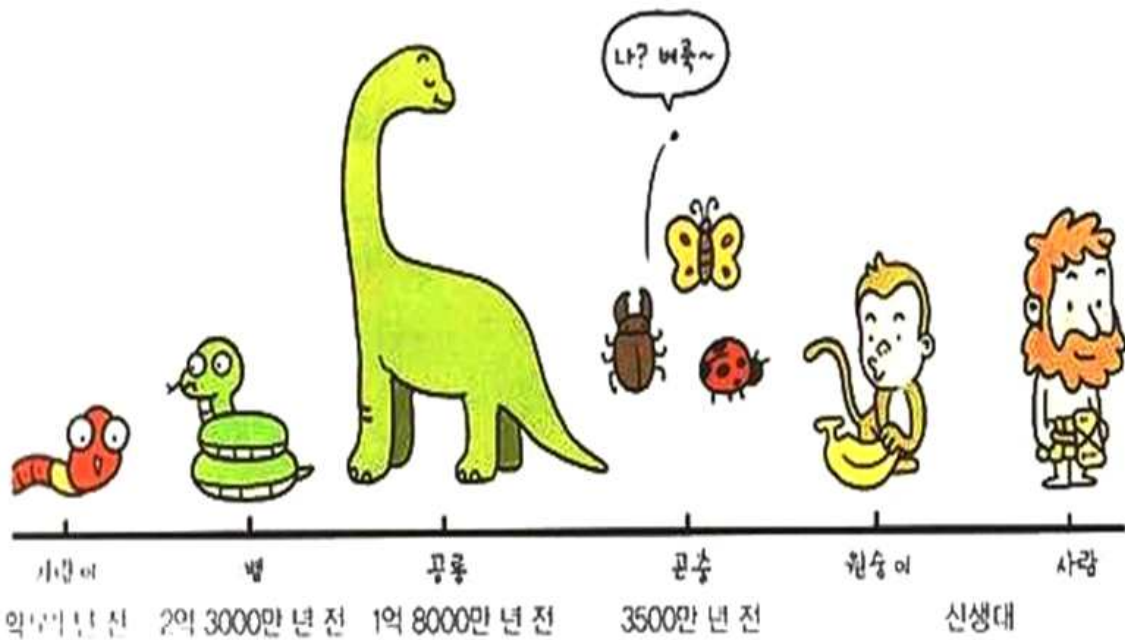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해맑음 팜방울 농장

지렁이이다



지렁이는 언제 태어났을까?



지렁이의 생김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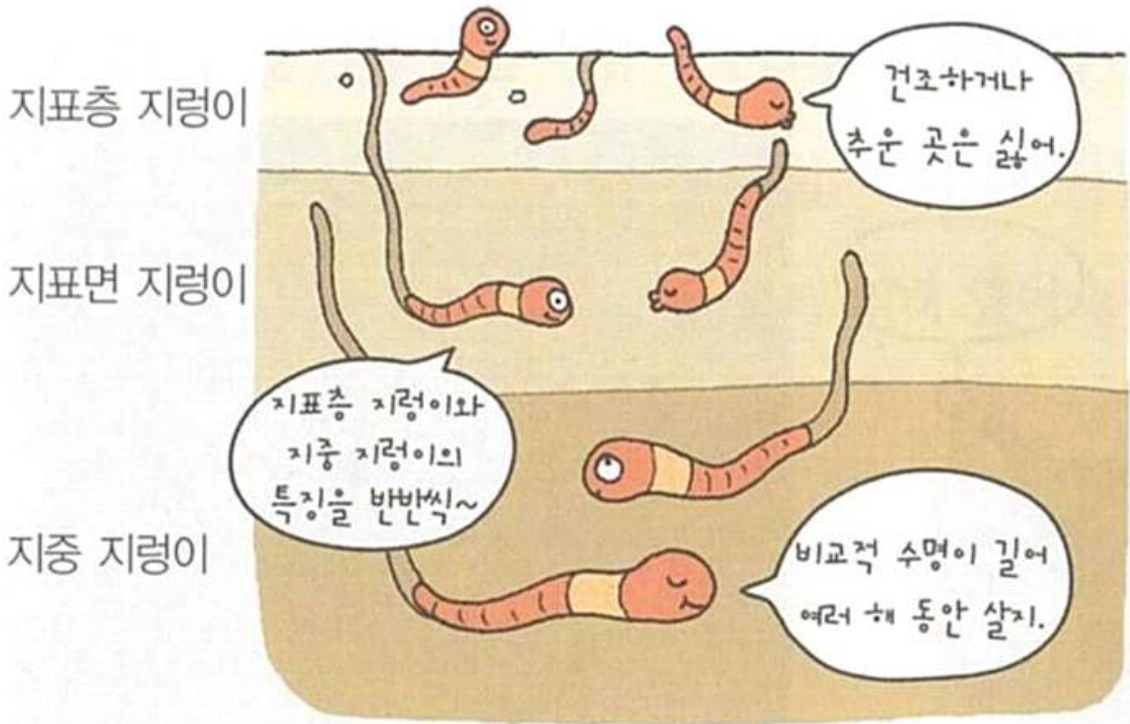


지렁이 전체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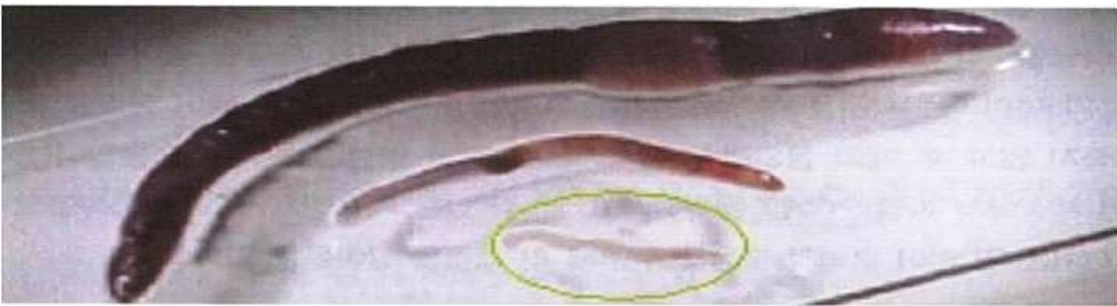


둥근 형태의 체절로 이루어진 지렁이 머리 부분

지렁이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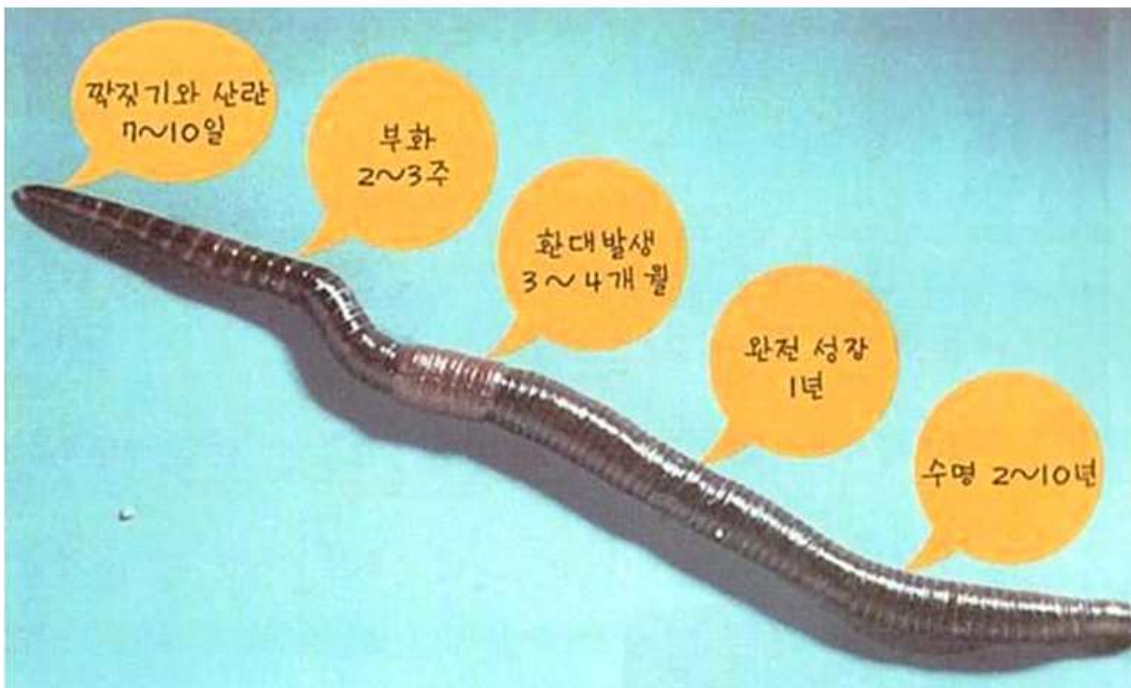


지렁이의 성장기



지렁이의 성장(성체 지렁이, 중간 지렁이, 지렁이 새끼)

지렁이의 일대기



지렁이의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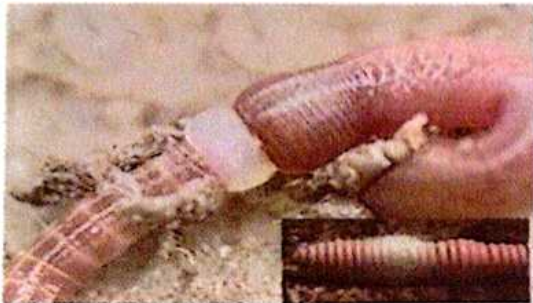


환대가 부은 지렁이



짜짓기 중
부끄부끄 >_<

지렁이의 산란과정



① 난포막이 머리 쪽으로 이동



② 이동 중 수정이 이루어짐



③ 난포막이 머리를 벗어나는 순간



④ 알의 완성

지렁이 알의 부화과정



흰색 → 2~3일 후 녹색 → 부화시점 담황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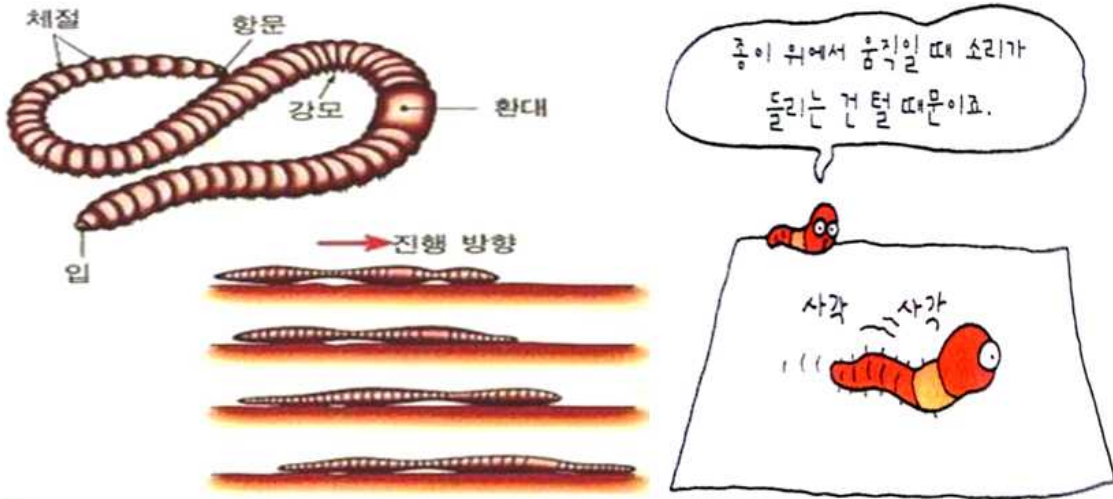
지렁이의 특징 1



윤기가 있는 지렁이의 몸

- ↳ - 점액분비를 통해 피부수분 유지
- 땅 굴 벽면을 굳게 함
- 짹짹기를 통한 정자 보호

지렁이의 특징 2



- ↳ - 강모(털)와 근육의 수축 이완 반복으로 이동
- 빛의 반대쪽으로 움직임(음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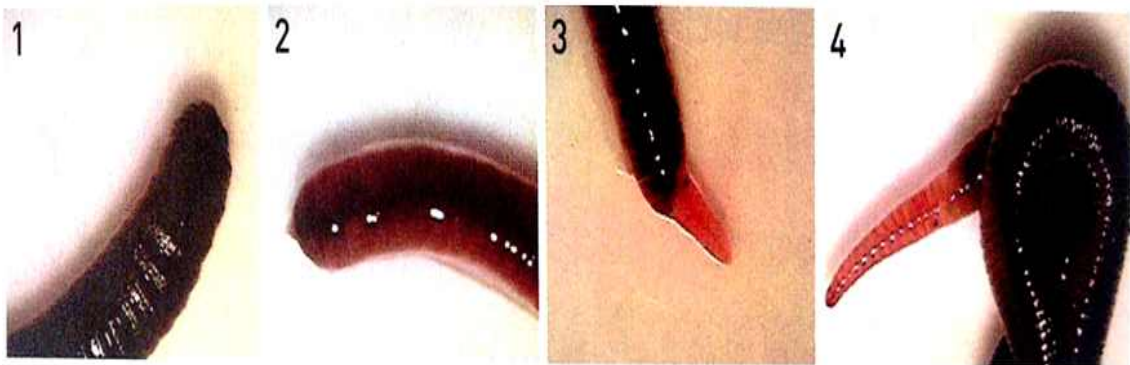


지렁이의 특징 3



- ↳ - 피부감촉으로 사물감지
- 피부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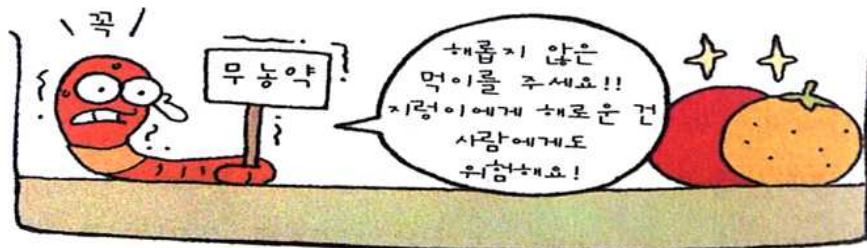
지렁이의 특징 4



① 꼬리가 잘림(0일) ② 잘린 부분이 뭉툭해짐(7일) ③ 약간 자라난 꼬리(14일) ④ 꼬리가 길게 자람(21일)
 사진 제공: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 환형동물자원은행(ARRC)

- ↳ - 재생가능(양방향성 재생으로 두 개체로 분화)
- 종마다 다르지만 보통 40~80일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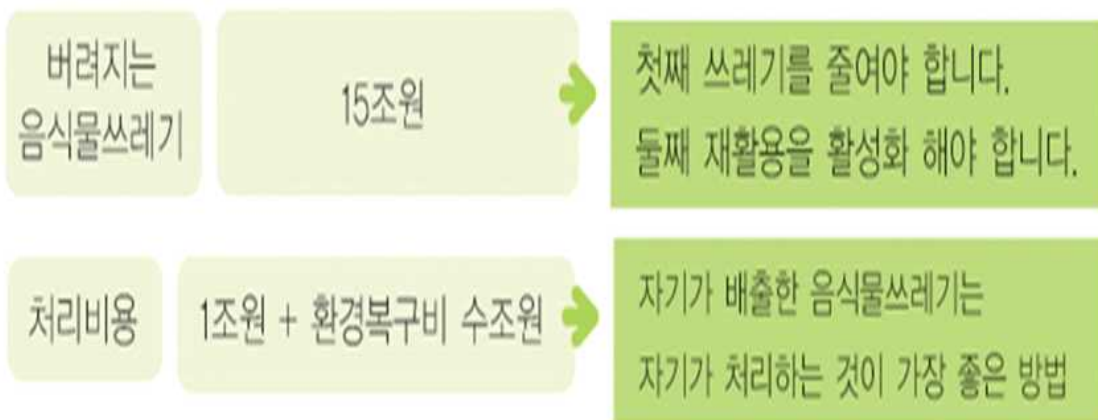
지렁이의 특징 5



- ↳ - 지표동물(토양오염 상태 확인)
- 중금속, 농약, 살충제 등으로 오염된 땅에서는 살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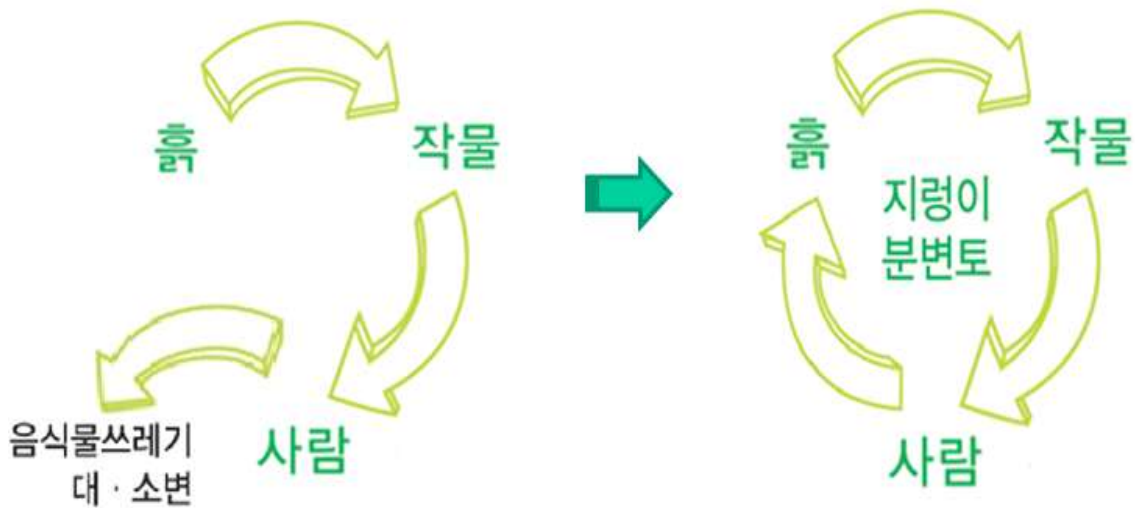
지렁이는 왜 키울까?

우리나라 연간 음식물쓰레기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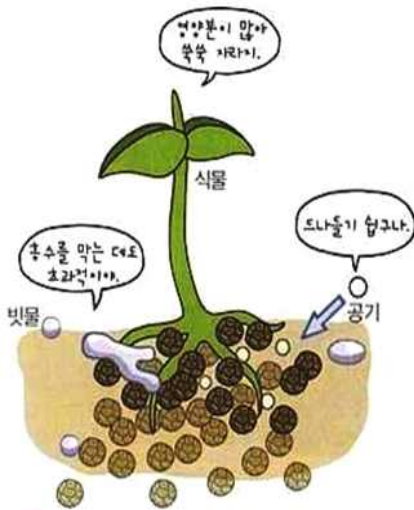


유기순환 운동이란?

↳ 흙에서 난 것을 흙으로 보내는 운동



지렁이 똥 (분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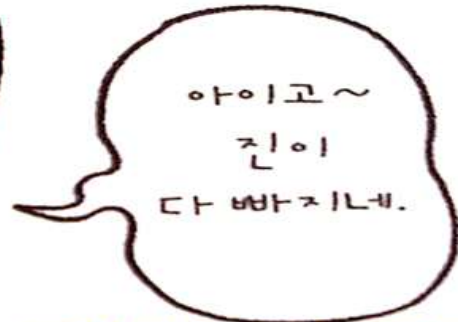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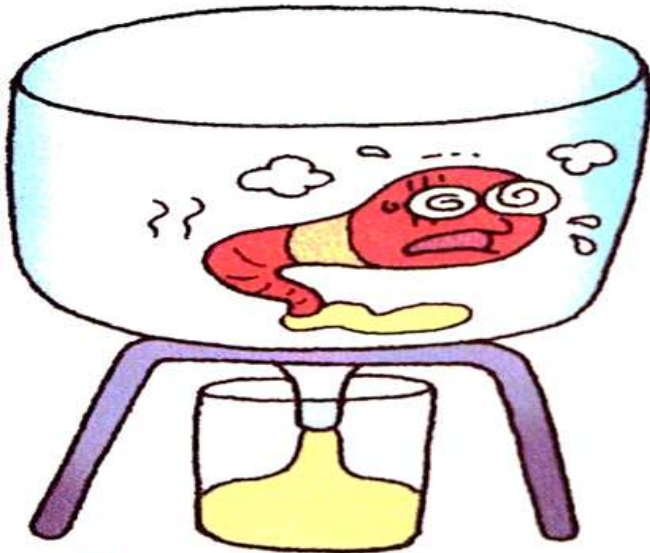


지렁이 분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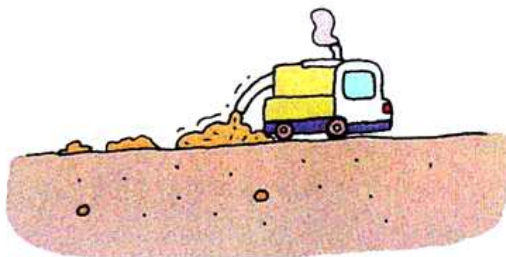
- ↳ - 씨알구조로 물과 공기의 통기성이 좋음
- 미생물과 영양분이 풍부하여 천연비료로 활용 가능

지렁이 목욕물 (분변토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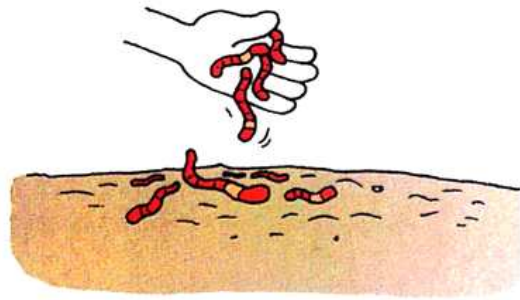


- ↳ - 분변토 영양분 + 지렁이 체액
- 분변토와 같은 역할

지렁이와 농사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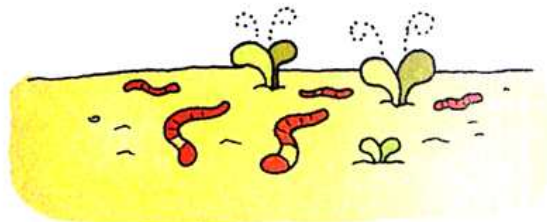
① 땅을 갈고 유기물을 뿌린다.



② 지렁이를 옮겨 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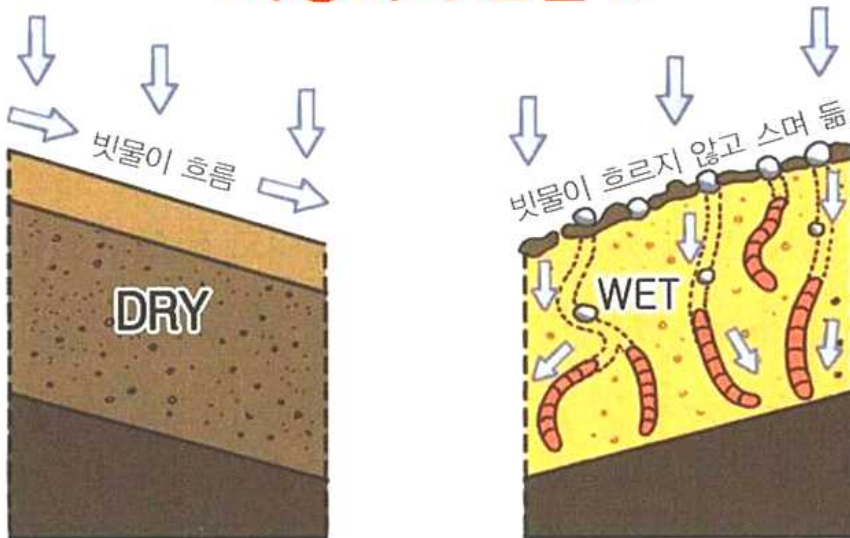


③ 지렁이의 수가 늘어난다.



④ 식물이 잘 자란다.

지렁이의 선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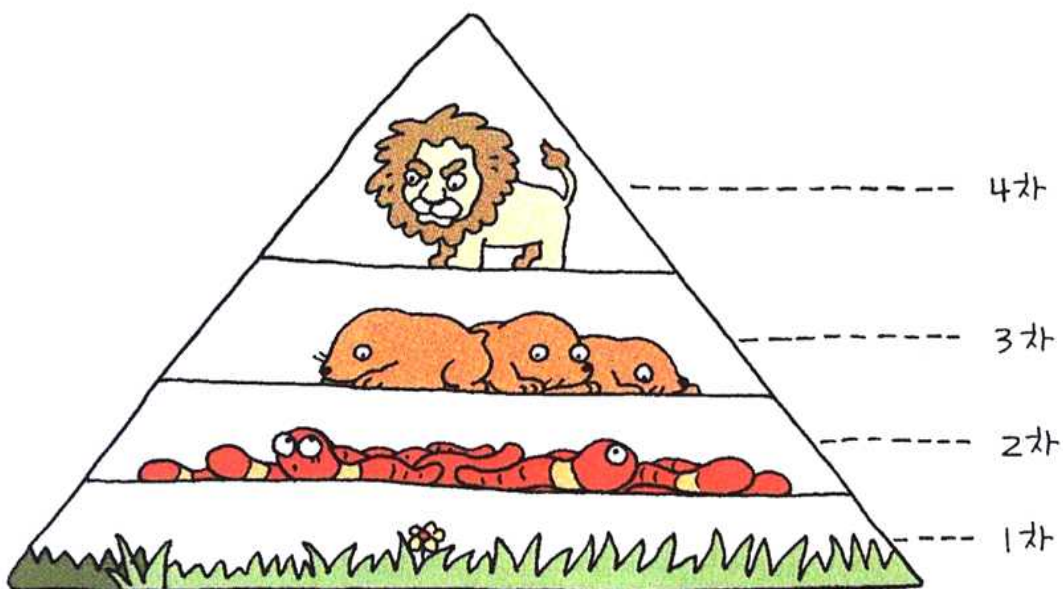


지렁이가 살지 않는 땅

지렁이가 사는 땅

- ↳ - 지렁이의 이동으로 인한 통로 발생
- 식물이 자라기 적합하며 자연재해 예방가능

지렁이의 선물 2



- ↳ 먹이사슬의 아래단계에서 생태계 순환을 도움

지렁이의 선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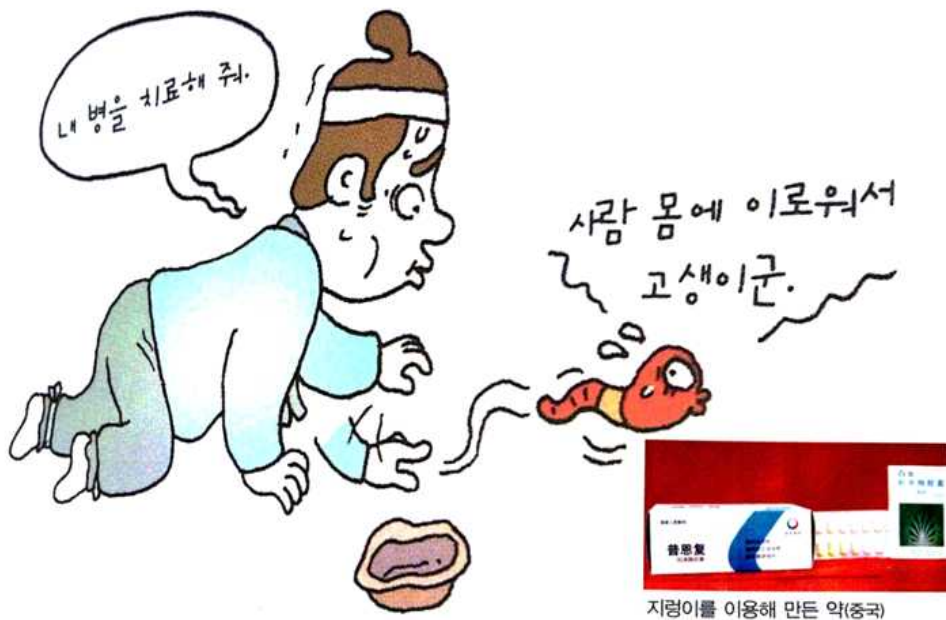


지렁이 미용 비누

지렁이 미용 팩

↳ 지렁이 체액(보습효과와 윤활작용 탁월)

지렁이의 선물 4



지렁이를 이용해 만든 약(중국)

↳ 해독작용과 염증 및 혈관성 질환 치료

지렁이의 선물 5



토룡탕과 용봉탕

가장 널리 알려진 토룡탕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렁이를 잡아서 며칠 동안 헝겊이나 종이로 덮어 둡니다. 그동안 섭취한 먹이를 완전히 소화시켜 배설물을 배출하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배설물을 다 배출한 지렁이를 깨끗한 물에 씻은 후, 끓는 물에 조금씩 넣어 가면서 감초, 계피, 대추를 함께 넣어 10시간 정도 푹 끓이면 토룡탕이 완성됩니다.

토룡탕 외에 지렁이와 관련된 음식으로는 용봉탕도 있습니다. 옛날 어느 효자가 병에 걸린 아버지에게 물을 떠다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물을 떠 온 웅덩이에 수많은 지렁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식욕을 잃고 죽어가던 아버지는 그 물을 마신 후 갑자기 닭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고, 닭 한 마리를 삶아 먹은 후 기운을 차리고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용봉탕인데, 지렁이를 먹여서 기른 닭을 삶은 음식이나 지렁이를 넣어 삶은 닭을 모두 용봉탕이라고 부릅니다. 지방에 따라서는 잉어와 닭을 고아 만든 음식, 자라와 닭을 함께 삶은 음식도 용봉탕이라고 하며,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용봉탕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봉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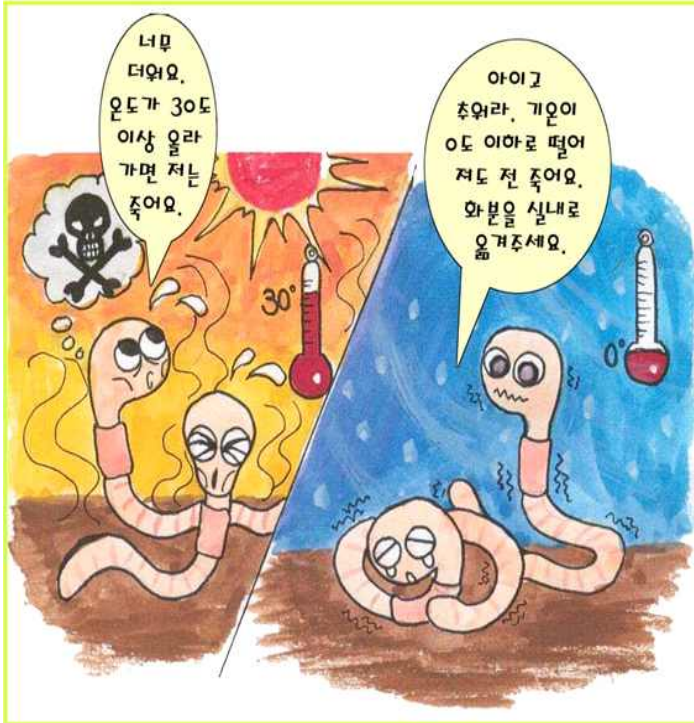
지렁이 사육 - 퇴비와 용기



배수구



지렁이 사육 - 화분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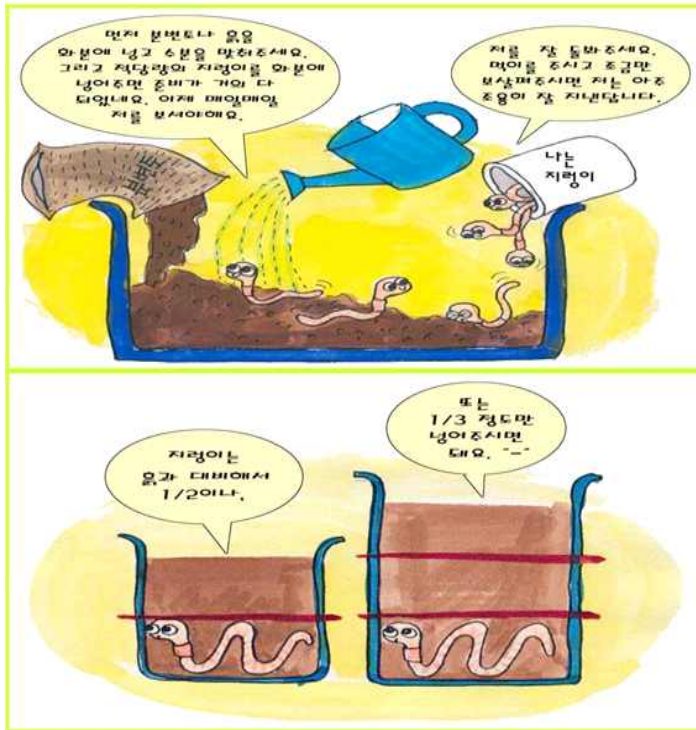
☚ 햇빛이 들지 않고, 온도가 10~15 °C 내외인 곳이 좋음

지렁이 사육 - 화분 고르기



☚ 화분 높이는 30cm 내외의 것이 적당하며, 습도 유지를 위해 숨을 쉬는 토기 화분이 좋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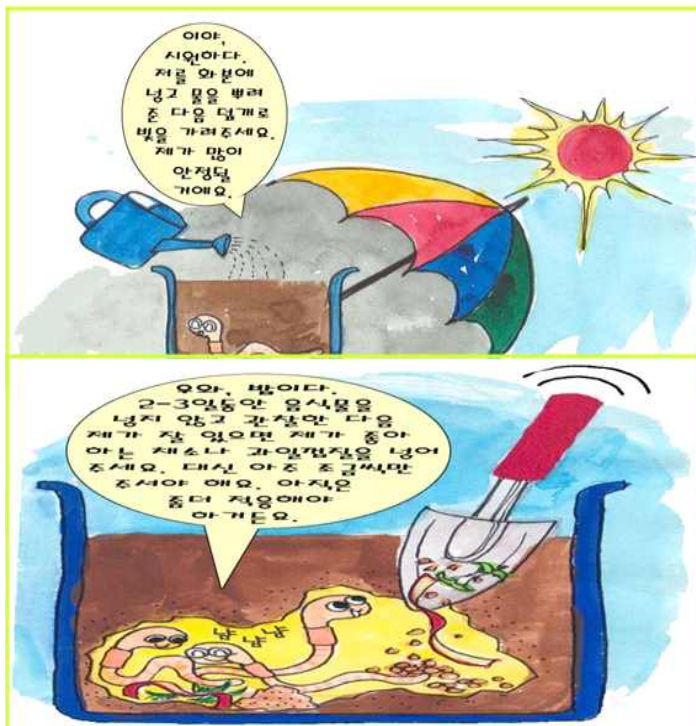
지렁이 사육 - 입식 1



분변토나 흙을 화분에 넣고, 수분을 맞춘 후에 적당량의 지렁이를 넣어 줍니다.

Tip. 지렁이의 양은 흙과 대비하여 약 1/2~1/3정도

지렁이 사육 - 입식 2



지렁이를 화분에 넣고 물을 뿌린 다음 덮개를 덮어 빛을 가려 줍니다.



지렁이가 잘 적응하는지 2~3일간 관찰한 후에 지렁이가 좋아하는 소량의 채소나 과일 껍질을 넣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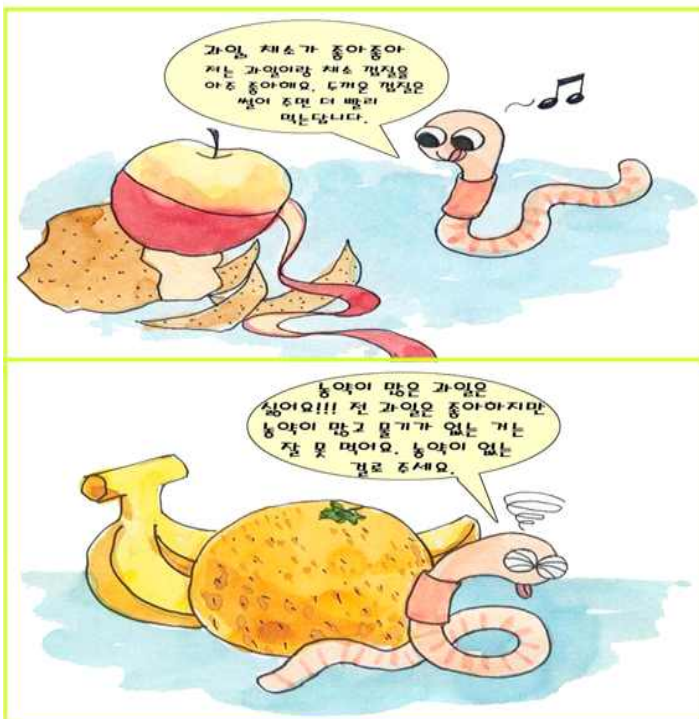
지렁이 사육 - 먹이주기 1



지렁이가 먹기 쉽도록 잘게 갈고, 얇게 펴서 주면 짧은 기간 내에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을 흙 속에 묻어야 날파리가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지렁이 사육 - 먹이주기 2



지렁이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과일, 채소 껍질, 감자 등은 아주 잘 먹습니다.

농약이나 화학 물질이 많은 음식은 지렁이가 먹지 못합니다.

지렁이 먹이 종류

구 분	지렁이 상자			내 용
	50%처리	100%처리	처리여부	
밥	3일	5일	가능	점질성인 것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냉면	2일	3일	가능	바로 먹지 않으나 부패된 후 먹기 시작합니다.
국수	5일	7일	가능	지렁이가 좋아합니다.
된장찌개	3일	5일	가능	설거지물로 세척하여 염분 제거한 후 넣어주면 처음부터 잘 먹습니다.
열무김치	3일	5일	가능	
사과껍질	4일	6일	가능	사과껍질이 부패 후에 먹기 시작합니다.
수박껍질	2일	3일	가능	처음부터 지렁이가 잘 먹기 시작합니다.
토마토	2일	4일	가능	단단한 경우에는 먹기 못하나 부패되면서 먹기 시작합니다.
사과+오이껍질	3일	5일	가능	하나만 주는 것 보다 두 개를 혼합하여 주면 더 잘 먹습니다.
참외껍질	3일	4일	가능	당도가 있는 과일은 다 잘 먹습니다.
신문용지	6일	10일	가능	신문 용지도 먹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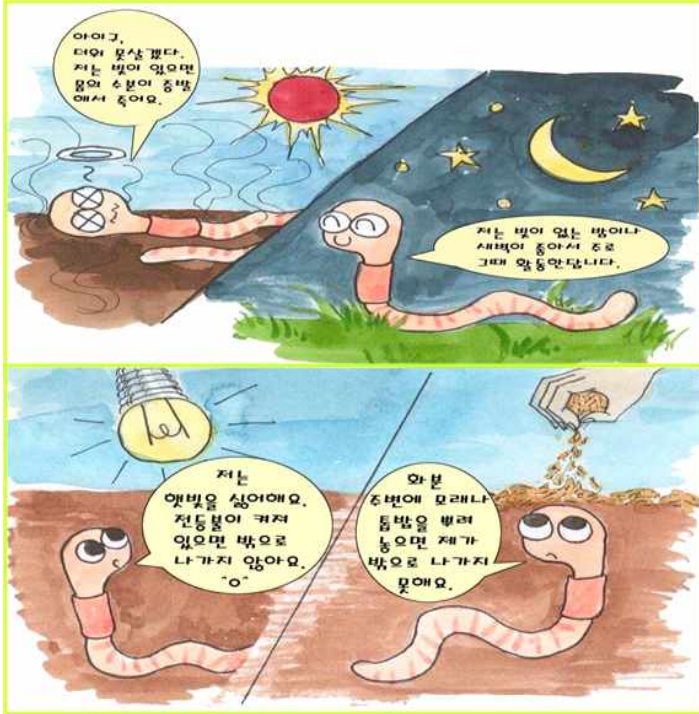
지렁이 사육 - 주의사항 1



지렁이는 서늘하고 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지렁이는 죽게 됩니다.

지렁이 사육 - 주의사항 2



지렁이는 피부가 약해서 빛을 너무 많이 쬐면 죽게 됩니다.

지렁이가 화분에서 나오는 경우

- ① 전등불 켜기
- ② 주변에 모래나 톱밥 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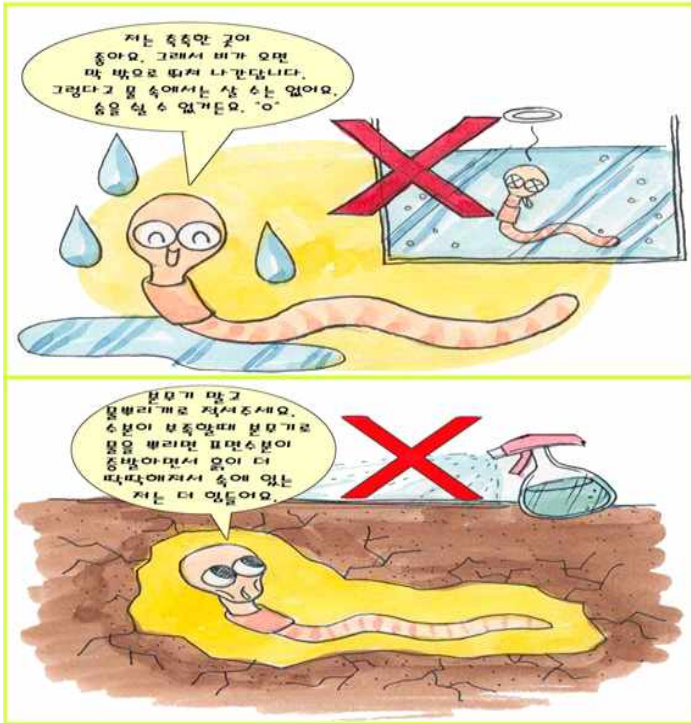
지렁이가 밖으로 왜 나올까??



화분 안의 환경이 좋지 않으면 지렁이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화분 안의 습도, 음식물의 가스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고 조치해 주세요.

지렁이사육 - 주의사항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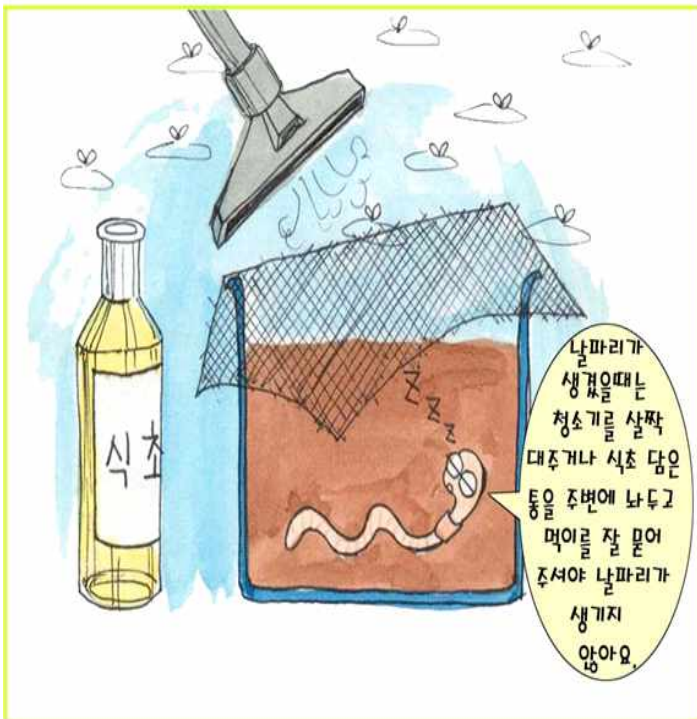


수분이 부족하면 조리개로 물을 살짝 뿌려 주세요.

야외에서 키울 때는 비에 맞지 않도록 화분을 옮겨주세요.

스프레이로 물을 주면 흙속까지 스며들지 않아 수분이 부족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렁이사육 - 주의사항 4



“벌레가 생겨요!!”

음식물 위에 흙을 충분히 덮어 주지 않거나 음식물이 부패할 경우 날파리와 벌레가 생깁니다.

이 친구들이 생기면 **환경**에 신경써주세요!!



톡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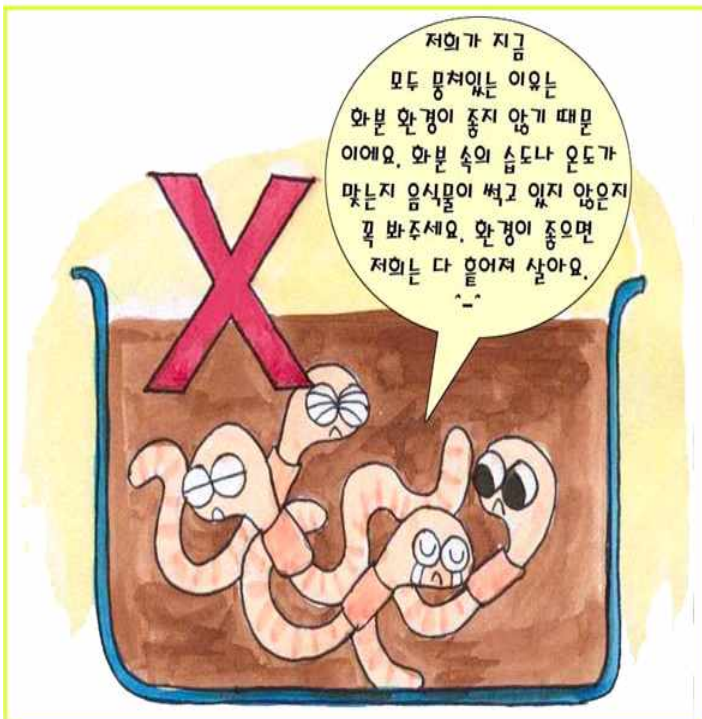


흰벌레



쥐며느리

지렁이 사육 - 주의사항 5



“지렁이가 멍쳐요!!”

지렁이는 환경이 좋지 않으면 멍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화분 속의 습도, 온도, 음식물 부패 여부 등을 확인해 주세요.



지렁이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모두 기억하시나요?
친환경 동물 지렁이와 함께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봐요 ^^*

감사합니다~!

늘푸른동산 사업소개 및 운영방침



팀 명	주간보호팀
일 시	2012년 2월 16일 16:00-17:00
담 당	김 은 속
장 소	별관 2층 프로그램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2012년도 늘푸른동산 사업 소개 및 운영 방침

1. 목적

주간보호사업은 중증의 장애인들에 대하여 주간보호서비스(보호 및 훈련)를 제공하여 장애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기능의 손실을 방지하고 잔존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여 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 부모들에게 장애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장애가족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서비스 내용

1) 프로그램 이용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 09:00~17:00까지 진행(송영서비스 시간 제외)
-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09:00~14:00(토요문화체험) 진행

2) 세부프로그램

- 이용인 정규프로그램

	월	화	수	목	금	토
9:00-9:40	Tea Time/ 독서 지도					토 요 문 화 체 험 (월1회)
10:00-10:50	생활미용관리/ 환경,인권교육	*종이접기	시청각활동	미술활동	음악활동	
10:50-11:00	휴식 시간					
11:00-11:50	인지학습	대화기술훈 련	시청각활동	직업인식	성교육	
12:00-13:00	점심 식사					
13:00-14:00	*컴퓨터교육	*컴퓨터교육	*컴퓨터교육	가사지도	요리활동/ 수중운동	
14:00-15:30	보드게임/ *CA활동	*헬스	볼링	*헬스		
15:30-16:00	청소 시간					
16:00-16:40	간식 및 자유시간					
16:40-17:00	종 례					

- 1) *표시는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활동임
- 2) CA활동은 도예체험, 비즈공예, 네일아트로 이용인들이 원하는 활동을 직접 선택하여 진행됨
- 3) 월 1회 : 지역사회시설이용, 지역사회참여활동 실시
- 4) 년 4회 : 분기별로 각종행사(봄여행, 일일캠프, 가을나들이, 성탄행사)
- 5) 년 6회 : 체지방측정(4회), 독감예방접종(1회), 건강진단(1회)
- 6) 년 2회 : 구강교육, 비만교육
- 7) 년 2회 : 상하반기 소방교육
- 8) 년 5회 : 비장애인과 장애인 통합활동
- 9) 년 4회 : 상하반기 욕구조사(2회), 상하반기 만족도조사(2회)

• 이용인 부모 및 가족 프로그램

- 부모상담- 수시
- 부모교육- 년 4회 실시
- 부모회 모임- 년 4회 실시
- 가족송년모임 실시 - 12월 중 실시되며, 가족 모두 참석하여 본 센터 사업보고 및 시상식 진행

제 6 장 부모회

제16조 (부모회)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부모 모임을 부모회라 칭한다.

제17조 (부모회 및 부모교육)

주간보호센터의 서비스를 개시한 날부터 이용인의 부모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실시하는 부모모임이나 부모교육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어도 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 이용료

(1) 적응기간 이용인

- 식대는 별도로 날일 구입하여 사용 1일 : 2,500원
- 적응기간에는 정규이용인의 월이용료 기준으로 날일 계산하여 납입

(2) 정규 이용인

- 이용료는 130,000원이며, 선불을 원칙으로 하고 당월 15일까지 입금
(단,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 세대의 경우 이용료는 50% 감면)

(3) 식대는 월 단위로 40,000원 금액을 납입하며, 선불을 원칙으로 하고 당월 5일까지 입금

(4) 2012년도 이용료 산출근거 내역서 참조

4) 환불

제14조 (환불)

1. 이용인 및 보호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용 중단 시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2. 운영 규정에 따라 서비스 종결이 필요한 상황에는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환불규정을 정한다. 즉, 15일 이전 종결 시에는 이용료 및 식대는 50%를 지급하고 15일 이후 종결시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5) 프로그램 이용기간 : 3년(서비스 계약서 상단에 이용기간 날짜 명시되어 있음)

3. 서비스 종결 내용

운영규정 중 제 9조 <서비스 종결>

본 주간보호센터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이용인의 서비스를 일시 또는 영구 종결할 수 있으며 시설장의 재가로 확정한다.

1. 본인포기 - 이용인 본인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포기 의사가 있을 때
2. 강제종결
 - (1)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이용인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2) 대상자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3) 무단으로 연속 2회 이상 결석하였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을 때
3. 일시종결
 - (1)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나, 일정 기간의 치료로서 증세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때
 - (2) 이용인의 장애나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대상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그 위협이나 지장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 (3) 무단으로 서비스에 연 5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 (4) 건강이나 가정문제 등의 사유로 인한 이용인 및 보호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 (5) 일시종결은 서비스 담당자가 결정하며, 필요시 보호자와 협의한다.
단, 일시종결은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화재)가 있는 경우 1개월로 국한하며 1개월 이 지 날경우 자동종결 된다.

부모교육 12-14

장애자녀의 성장과 성에 대한 이해



팀 명	주간보호팀
일 시	2012년 7월 5일 16:00-17:30
담 당	김 은 속
장 소	본관 3층 강당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 아동·청소년 성교육

- 지적장애·발달장애인 성교육 중심으로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강사 최현기

1. 성교육의 목적

성교육은 인간의 상호관계 맺기, 전체교육의 일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지적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통합교육, 자기권리 찾기 그리고 자립성과 같은 개념들이 이전보다 훨씬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는 현재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요구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그러므로 지적장애인이 자주 부딪히게 되는 정상화, 통합교육, 자기권리 찾기 그리고 자립성의 네 가지 영역이 성의 개념에 건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성교육의 필요성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 비장애 아동·청소년과 함께 교육을 진행한다면 장애 특성과 발달상 특별한 감각통합의 문제와 낮은 지능으로 인한 미숙한 긴장해소로 인하여 필요 이상의 성적 호기심을 유발 하게 할 수 있고, 도리어 교육을 잘못 인지하여 유사 성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장애 아동·청소년은 비장애 아동·청소년보다도 더욱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입장임을 고려하여 사회 성문제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예방 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로 인한 제약된 생활환경으로 성교육의 기회마저 부족한 실정에서 성교육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적장애인도 단체나 다양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비장애인처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지적·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교육하는 많은 지도자와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보호자들은 성교육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불안함과 불안전함에 대해 고민하여 성교육 자체를 거부하거나, 단순하게 저연령의 비장애 수준의 내용으로 교육을 하거나, 교육대신 일방적 강압과 심지어 최면적인 지도로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의 불안전감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지적·발달장애인의 성과 관련하여 함께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우리 사회와 일반 사람들의 결핍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 아동·청소년에 눈높이에 맞춘 생애전반에 걸친 성의 모습을 한눈에 파악하고 성장 발달에 따른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성의 인지를 도와야 한다. 또한 장애 아동·청소년에 특성과 교육수준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도함을 통하여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소통하며 건강한 성문화를 조성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이 꿈꾸는 행복한 삶은 어떤 것일까?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행복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고 명예를 추구하려는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머슬로우 Maslow) 등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신체적, 지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등의 생애주기를 겪으며 각각의 발달 수준에 따른 교육이 비장애인들보다 많이 필요하다. 사회성 교육(사회적응)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 중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성교육이다.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도 성적 느낌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성적인 행동을 보다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이 이번 교육 목표이다.

장애특성상 보호자(부모, 생활교사 등)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친밀감 표현을 한다. 가족, 보호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또래친구나 다른 사람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가족, 보호자 이외의 관계에 따른 적절한 친밀감 표현법을 익히지 못하면 특히, 친밀감이 성행동이나 성폭력으로 보여 지기도 한다. 더욱이 성에 대한 장애학생들의 이해가 부족하여 친밀감으로 다가갈 때 성폭력 가해를 하여도 성폭력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러므로 장애학생들에게 적합한 성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다.

생활연령에 맞게 교육받지 못하고 인지연령에 따라 유아적으로 지도되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령에 맞지 않는 표현이 많았다. 따라서 장애학생들 각각에 맞는 적절한 성행동지도를 비롯한 구체적인 성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3. 성행동 특성

○ 청소년기의 신체변화

갓 태어난 남자, 여자아기는 생식기가 다르다는 것 외에 큰 차이가 없지만 사춘기가 지나면서 신체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성기관이 발달하여 2차 성징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사춘기의 몸의 변화들은 새 생명을 만들기 위한 준비과정이므로 내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여, 남	여자	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생식호르몬의 활성화 된다. ·체모가 증가 (다리 팔 겨드랑이 음모) 한다. ·피지분비증가로 여드름이 난다. ·발한증가로 겨드랑이 냄새가 난다. ·키와 몸무게가 증가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자가 성숙되고 난소에서 배출-배란과 월경을 시작한다. ·유두 색깔이 진해진다. ·엉덩이가 둥글어지고 넓어진다. ·가슴이 성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환에서 정자가 생산된다. (몽정을 하게 됨) ·성기가 커진다. ·사정이 가능하다. ·자주 발기 된다. ·목소리가 굵어진다. ·어깨가 넓어진다.

○ 청소년기의 심리적 변화

신체적으로 2차성징을 겪으면서 성호르몬의 증가로 성적 호기심이 급증하게 된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인지가 부족하거나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 표현이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 오해를 받기도 한다.

또한 성교육이 미비할 경우 자신의 성적 표현을 장소와 관계에 따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여 성폭력 피해자 또한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4. 성교육 내용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의 이해 -몸의 이해, 관리법 -사춘기 몸변화 (생리, 몽정) -자위행위에 대한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맺기, 친밀감 표현하기 -데이트와 스킨십 -성적자기결정권; 성관계와 피임 (필요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디어속의 성 -성폭력 예방

① 성의 의미 알기

▶ 교육 내용

-성의 다양한 의미를 알아본다. (남/녀, 몸, 위생, 예절, 사랑, 결혼, 임신과 출산, 관계, 성폭력 등)

이 때, 성을 꽃에 비유하면서 설명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 지도 방법

꽃이 아름답게 피려면 물, 햇빛, 공기 등 수고가 필요하듯 성도 열심히 노력해야 아름답게 필 수 있고 꽃들이 다양하고 자기만의 매력이 있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성은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자기만의 성이란 꽃으로 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나의 성이 중요하듯 다른 사람의 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② 몸의 이해, 관리법

▶ 교육 내용

- 생식기명칭을 알려주고 기능을 설명한다.

-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를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자세한 관리 방법을 알려주고 우리 몸은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 지도 방법

생식기 그림 등을 활용하여 설명할 때 관계나 장소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몸을 볼 수 있는 장소의 구분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③ 사춘기 몸 변화

▶ 교육 내용

- 사춘기에 나타날 몸 변화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익힌다.

④ 자위행위에 대한 지도

▶ 교육 내용

-자위 에티켓을 학습한다.

▶ 지도 방법

-아동들의 인지 수준을 파악한 후 교육한다.
-건강한 자위를 위한 장소와 준비, 자위의 순간과 뒤처리 지침을 이야기한다.

*자위행위에 대한 지침

- 남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한다.
- 청결을 유지한다.
- 츄리닝과 같은 바지를 입히지 않는다.
- 운동을 생활화하고 다양한 취미나 여가활동을 경험하게 한다.
- TV시청 시에는 누워서 보지 말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본다.

⑤ 관계맺기

▶ 교육 내용

-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고 관계에 따른 인사법을 알아본다.

⑥ 데이트와 스킨쉽

▶ 교육 내용

- 상대방을 좋아하는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고 적절한 데이트방법과 스킨쉽 선을 조절,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 지도 방법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바람직한 고백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그리고 이성교제시 만나는 시간, 장소, 관계유지하는 방법과 스킨쉽 선에 대해 이야기한다.

⑦ 성적자기결정권

▶ 교육 내용

- 우리 몸, 마음, 성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면서 성관계는 서로 책임질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⑧ 미디어속의 성

▶ 교육 내용

-미디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컴퓨터를 하면서 접할 수 있는 음란물에 대한 문제점, 접했을 때의 대처법을 알아 본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팀 명	주간보호팀
일 시	2012년 10월 5일
담 당	김 은 속
장 소	서면교육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2.8] [법률 제10789호, 2011.6.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란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 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

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교육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

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의를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

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건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건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건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패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1>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1>

[제목개정 2010.5.11]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3.29>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급·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참정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도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

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 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①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1>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5.11>

③ 삭제 <2010.5.11>

④ 삭제 <2010.5.11>

⑤ 삭제 <2010.5.11>

부칙 <제10789호, 2011.6.7> (영유아보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28조제3항 중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를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26>부터 <32>까지 생략

2012년 열린일터 사업 안내 및 운영규정 교육



팀 명	열린일터
일 시	2012년 1월 12일 (목) 저녁 7시
장 소	열린일터 작업장



열린 일터

2012년 열린일터 사업일정

날 짜		내 용
1월	9일	사무식
2월	17일	소방교육
3월	19일-23일	1차 운영위원회의(서면)
4월	25일	장애인문화축제
	27일	등산
5월	5일	비루고개축제(부모님 자원봉사)
	날짜 미정	가정의 달 행사(성모성월 미사)
	날짜 미정	상반기 만족도 및 욕구조사
6월	8일	등산
	12일	2차 운영위원회의
7월	27일	데이캠프
	30일-8월 3일	하계휴가
9월	날짜 미정	하반기 만족도 및 욕구조사
	14일	휠체어마라톤대회
	21일	등산
	17일-21일	3차 운영위원회의(서면)
10월	10일	서창 119센터와 합동 소방훈련
	24일-26일	제주도 여행
11월	6일	건강검진
	9일	등산
	20일	4차 운영위원회의
12월	7일	자원봉사자 감사의 밤(부모님 자원봉사)
	19일	남동송년예술제
	28일	가족송년회
	31일 -1월 4일	동계휴가

*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며 매월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근로자 및 훈련생 명단

근로자	훈련생
정민경, 김형범, 김상준, 김영희 강웅혁, 장지혜, 구향미, 문은선 남빛, 문성준 (10명)	김광호, 심재홍, 최동식, 김동준 이해민, 김성학, 김필두, 이용국 진은혜, 이상복, 김성준, 이선영 김훈범, 김동하, 한운철, 황정하 박경세, 김인영, 이원정 (19명)

2012년 프로그램 참여 이용인 명단

프로그램명	이용인 명단
성교육	최동식, 김필두, 한운철, 김동준 김인영, 이원정, 신규 훈련생 2명
사회기술훈련	김동준, 김동하, 김성준, 김필두, 한운철 이해민, 심재홍, 이상복, 이선영, 이용국 진은혜, 이원정, 박경세, 신규 훈련생 2명
운동활동	황정하, 최동식, 이선영, 김훈범, 김성학
컴퓨터 교육	최동식, 이해민, 이선영, 김훈범, 김동하
비즈공예	정민경, 장지혜, 구향미, 문은선 남 빛, 진은혜, 이선영
자판기 관리	김상준, 장지혜, 문은선, 강웅혁 이선영, 김성준, 박경세, 이원정
전환고용준비훈련	이해민, 김훈범, 이용국, 이선영, 김성준
지역사회적응훈련	전체 이용인
인권교육	전체 이용인
안전교육	전체 이용인
동아리활동	신청자
해맑음땀방울 농장	신청자 중 평가를 통해 선정

보호고용 운영규정

제정 2011. 1. 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열린일터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장애인의 근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하여 자활기반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1. 본 보호작업장은 '열린일터'(이하 시설)라 칭한다.
2. 열린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이용자'라 칭한다.
3. 이용자 중 보호고용 된 자는 '근로자', 작업활동 프로그램생은 '훈련생'이라 칭한다.

제3조 [적용 및 범위]

1. 본 규정은 본 시설의 보호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2. 보호고용 운영에 관하여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근로자의 정의]

본 규정에서 근로자라 함은 본 규정 제 2장에 의거해 보호고용 근로자로 선정되어 근로 계약이 된 자

제 2 장 근로자 선정 및 계약

제5조 [근로자 선정]

근로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근로자 선정은 '근로자 선정평가'를 통하여 실시한다.
2. 본 시설의 이용자들 중 6개월 이상 이용하였으며 '근로자 선정평가'를 2회 이상 실시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3. 매 연말 분기별 실시한 '근로자 선정평가'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근로자 10명을 선정한다.

제6조 [근로자 선정평가]

'근로자 선정평가'는 본 시설을 1개월 이상 이용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분기별 1회 실시한

다.

제7조 [근로 계약]

근로자로 선정된 이용자와 시설장은 근로계약서(별표 1)에 서명 날인하여 1부씩 교환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 3 장 프로그램

제8조 [재활프로그램]

본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 장애인의 유형, 연령별 특성과 당해 시설에서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재활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 8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직업적응훈련 : 보상기능훈련, 인성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 2) 문제해결훈련 :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위급 혹은 응급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 및 주장훈련
 - 3) 직업평가 : 작업표본평가 및 현장 평가
 - 4) 직무기능향상훈련 :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 5) 지역사회 자원 활용훈련 : 지역사회적응훈련

제 4 장 복 무

제9조 [근로자의 책임]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직무에 관한 관계법규와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시설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3. 청결 및 도난, 재해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 및 보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고의나 과실로 인해 본 시설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무일 및 근무시간]

1. 근무일은 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로 한다.
2. 근무시간은 1일 6시간 40분(09:00~17:30)으로 한다.

단, 추가 근무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쌍방의 합의 하에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3. 휴게시간은 1일 1시간 50분 (10:25~10:40, 11:40~13:00, 15:00~15:15)으로 한다.

제11조 [지각, 조퇴, 외출, 결근]

1. 지각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시작 시간(오전9시) 이후에 출근한 것을 의미한다.

2. 조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종료 시간(오후 5시30분) 이전에 퇴근한 것을 의미한다.
3. 지각, 조퇴, 외출 3회 시 결근 1일로 계산한다.
단,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료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출근으로 인정한다.
4. 지정된 출근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연락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연락 없이 결근, 조퇴할 경우 무단결근, 무단조퇴로 간주한다.

제12조 [정기휴무]

1. 주휴일
2. 법정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임시 공휴일
5. 시설이 정하는 휴일

제13조 [임시휴무]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휴무를 실시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으로 근무의 어려움이 판단 될 경우
2. 시설의 공사 혹은 행사로 인해 근무가 어려울 경우

제14조 [정기휴가]

본 시설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기를 정하여 정기휴가를 일괄적으로 여름휴가 1주일, 겨울 휴가 1주일을 실시한다.

제15조 [특별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단, 특별휴가 중의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한다.

1. 결혼 : 본인(7일),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2. 회갑 : 본인, 배우자 (1일)
3. 사망 : 배우자(7일), 부모, 자녀(5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3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3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백숙부모(1일)
4. 출산 : 본인은 출산전후 (90일, 단 산 후 45일 이상 보장), 배우자 (3일)
5. 졸업식 : 본인의 졸업식 참석 (1일)

*특별휴가 대상 친족의 범위 (공무원 복무관리 예규 기준)

1.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뿐 아니라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양자, 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계부, 계모는 인적으로 직계 존속이 아님
2.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백숙부모 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제16조 [병가]

질병 및 상해로 직무 불능일 때 30일 이내에 한하여 병가를 얻을 수 있다.
단, 3일 이상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가]

시설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업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
2. 법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장애 재진단을 받을 때

제 5 장 임 금

제18조 [임금지급 기준 및 방법]

1. 본 시설의 임금지급 기준은 '인천시장애인복지사업안내 상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급여 지급 기준'에 준한다.
2. 매월 출근일의 80%이상을 출근했을 시 만근으로 간주하며 80%미만 출근했을 시는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3. 임금은 서류상 절차를 거친 후 근로자 개별 통장으로 입금한다.

제 6 장 종 결

제19조 [종결]

본 시설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서비스를 일시 또는 영구 종결할 수 있으며 시설장의 재가로 확정한다.

1. 본인 포기
근로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이용 포기 의사가 있을 때
2. 강제 종결
 - 1) 정신병적 또는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2) 근로자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3)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형의 유죄판결이 확정 되었을 때
 - 4) 무단으로 연 5회 이상 결근 하였을 때
3. 일시종결
 - 1)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일정기간의 치료로서 증세가 회복 될 가능성이 있을 때
 - 2) 이용자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자의 서비

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그 위협이나 지장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 3) 건강이나 가정문제 등의 사유로 인한 근로자 및 보호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 4) 일시종결 시 기간은 서비스 담당자가 결정하며 필요시 보호자와 협의한다.

4. 계약종결

'근로자 선정평가'결과 근로자로 선정 되지 않았을 때

제 7 장 서비스 개시, 종결 통보

제20조 [서비스 개시, 종결 통보]

서비스 담당자는 근로자의 개시, 종결상황을 최소 2주내에 근로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8 장 손해배상

제21조 [손해배상]

서비스 이용과정 중 발생하는 기타 손해배상 등의 처리는 근로자 및 보호자가 별도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규정 시행일)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규정

제정 2011. 1. 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열린일터를 이용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생의 훈련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차 보호고용 등으로 전이되어 유망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활기반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1. 본 보호작업장은 ‘열린일터’(이하 시설)라 칭한다.
2. 열린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이용자’라 칭한다.
3. 이용자 중 보호고용 된 자는 ‘근로자’, 작업활동 프로그램생은 ‘훈련생’이라 칭한다.

제3조 [적용 및 범위]

1. 본 규정은 본 시설의 작업활동 프로그램 훈련생에게 적용되며,
2. 작업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훈련생 정의]

1.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5세 이하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진단 평가 및 재활
계획회의 결과 신규 이용이 결정되어 훈련이 계약된 자
2. ‘근로자 선정평가’ 결과 작업활동 프로그램 대상으로 결정되어 훈련이 계약된 자

제 2 장 서비스 과정

제5조 [훈련생 선정 및 과정]

1. 초기면접과 직업평가 후 재활계획회의 결과 이용을 결정한다. 필요 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타기관의 동일한 진단평가(6개월 이내)를 통해 의뢰된 경우, 현장평가를 통해 이용을 결정한다.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훈련생으로 계약할 수 없다.

1. 이용기간이 만료하여 이미 퇴소한 자
2. 2011년 1월 1일 이전 입소자 중 이용기간이 5년 초과된 자

3. 2011년 1월 1일 이후 입소자 중 3년 훈련 후 보호고용으로 전환되지 못한 자

단, 3년의 훈련기간 연장자는 훈련을 지속하고, 그 후 보호고용 전환이 되지 못한 경우는 훈련생으로 계약할 수 없다.

제7조 [훈련계약]

훈련생으로 입소가 확정된 훈련생과 시설장은 훈련계약서(별표 1)에 서명 날인하여 1부씩 교환함으로써 훈련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년 중 입소자의 경우에는 입소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계약일로 한다.

제8조 [구비서류]

열린일터 훈련생으로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계약서 1부
2. 서약서 1부
3. 이용자의 권리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복지카드 사본 1부
6. 건강진단서 1부
7. 기타 시설에서 필요로 요구하는 서류

제9조 [훈련기간]

3년간 훈련생으로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3년 훈련 후 평가를 통해 보호고용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훈련생에 한하여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훈련내용 및 훈련비]

본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41조에 의거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1. 훈련 프로그램은 훈련생이 장차 보호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주당 24시간 이상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실시한다.
 - 1)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
 - 2) 사회적응훈련 : 지역사회에 한 일원으로 통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인관계기술,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지도
 - 3) 작업훈련 : 작업기능의 향상을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장애인 보호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
 - 4) 직업평가 : 적절한 평가도구를 통한 직업평가를 실시
 - 5) 통근훈련 : 지역사회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
 - 6) 취미 및 여가활동 :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고 긍정 인 생활

- 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
- 7) 생산활동과 연계된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작업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

2. 훈련비

- 1) 매월 정액의 훈련비는 없으나, 훈련 내용에 따라 실비를 납부할 수 있다.
- 3) 중식비는 매월 말일에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훈련수당 지급]

1. 훈련생은 분기당 1회 훈련수당을 지급받는다.
2. 훈련수당은 월 1회 훈련수당지급평가와 실제 훈련일수를 통해 차등 지급된다.

제 3 장 복 무

제12조 [훈련생의 책임]

훈련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훈련생은 직무에 관한 관계법규와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훈련생은 시설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3. 청결 및 도난, 재해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 및 보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고의나 과실로 인해 본 시설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훈련일 및 훈련시간]

1. 훈련일은 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로 한다.
2. 훈련시간은 1일 6시간 40분(09:00~17:30)으로 한다.
3. 휴게시간은 1일 1시간 50분(10:25~10:40, 11:40~13:00, 15:00~15:15)으로 한다.

제14조 [지각, 조퇴, 외출, 결근]

1. 지각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시작 시간(오전9시) 이후에 출근한 것을 의미한다.
2. 조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종료 시간(오후 5시30분) 이전에 퇴근한 것을 의미한다.
3. 지각, 조퇴, 외출 3회 시 결근 1일로 계산한다.
단,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료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출근으로 인정한다.
4. 지정된 출근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연락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연락 없이 결근, 조퇴할 경우 무단결근, 무단조퇴로 간주한다.

제15조 [정기휴무]

1. 주휴일
2. 법정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임신 공휴일
5. 시설이 정하는 휴일

제16조 [임시휴무]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휴무를 실시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으로 훈련의 어려움이 판단 될 경우
2. 시설의 공사 혹은 행사로 인해 훈련이 어려울 경우

제17조 [정기휴가]

본 시설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기를 정하여 정기휴가를 일괄적으로 여름휴가 1주일, 겨울 휴가 1주일을 실시한다.

제18조 [특별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단, 특별 휴가 중의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한다.

1. 결혼 : 본인(7일),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2. 회갑 : 본인, 배우자 (1일)
3. 사망 : 배우자(7일), 부모, 자녀(5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3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3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백숙부모(1일)
4. 출산 : 본인은 출산전후 (90일, 단 산 후 45일 이상 보장), 배우자 (3일)
5. 졸업식 : 본인의 졸업식 참석 (1일)

*특별휴가 대상 친족의 범위 (공무원 복무관리 예규 기준)

1.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뿐 아니라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양자, 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계부, 계모는 인적으로 직계 존속이 아님
2.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백숙부모 뿐 아니라 고부(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경조사 특별 휴가 일수에는 공휴일이 포함되므로 경조사별 휴가 일수 외에 공휴일이 추가되지 아니함.

제19조 [병가]

질병 및 상해로 직무 불능일 때 30일 이내에 한하여 병가를 얻을 수 있다.
단, 3일 이상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공가]

시설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업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
2. 법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장애 재진단을 받을 때

제21조 [종결]

본 시설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훈련생의 서비스를 일시 또는 영구 종결할 수 있으며 시설장의 재가로 확정한다.

1. 본인 포기
훈련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이용 포기 의사가 있을 때
2. 기간 만료
훈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강제 종결
 - 1) 정신병적 또는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2) 훈련생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3)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형의 유죄판결이 확정 되었을 때
 - 4) 무단으로 연 5회 이상 결근 하였을 때
4. 일시종결
 - 1)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훈련생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일정기간의 치료로서 증세가 회복 될 가능성이 있을 때
 - 2) 훈련생의 장애,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그 위협이나 지장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 3) 건강이나 가정문제 등의 사유로 인한 훈련생 및 보호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 4) 일시종결 시 기간은 서비스 담당자가 결정하며 필요시 보호자와 협의한다.

제22조 [훈련개시, 종결, 통보]

훈련 담당자는 훈련의 개시, 종결상황을 최소 2주내에 훈련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4장 대기자

제23조 [대기자]

서비스 담당자의 서비스 이용 의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서비스를 유예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시가 유예된 대상을 '대기자'로 칭한다.

1. 현 서비스 대상자가 정원에 달했을 때
2. 특수학교 및 학급에 재학 중일 경우 (단, 고3에 한해 대기할 수 있다.)
3. 본 시설 이용 중 특별한 사유(이용자 및 보호자의 입원 혹은 수술, 보호자의 출산 등)에 의해 2개월 이상 훈련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시종결을 하고 우선대기(1순위)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5장 손해배상

제24조 [손해배상 등]

서비스 이용과정 중 발생하는 기타 손해배상 등의 처리는 훈련생 및 보호자가 별도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규정 시행일)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2012 전문자료집 - 부모교육

남동발간 2012- 9호

- 발행일 : 2012년 12월
- 발행인 : 서 현 정
- 편집인 : 임 하 나
- 주 소 : (405-86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98번길
- 대표전화 : 032) 472-4004 팩스 : 032) 472-4005
- 홈페이지 : www.ndjb.or.kr